

## 방통위 말련, 중국, 몽골 출장 결과

- ITU 아태 규제자 라운드테이블 참석, 한·아세안 방송 쇼케이스 주최,  
중국·몽골 방송통신 협력 강화 -

◆ 기 간 : 2015. 8. 23(일) ~ 8. 29(토), 6박 7일

◆ 방문국가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중국 (베이징), 몽골 (울란바토르)

2015. 9.



방송통신위원회



## 목 차

I . 출장 개요 .....	5
II . 세부 활동 .....	7
1. 말레이시아 일정 .....	7
가. 방송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 위원장 면담 .....	8
나. 제5차 ITU 아·태 규제자 라운드테이블 참가 .....	14
2. 2015 한-아세안 방송 콘텐츠 쇼케이스 주최 .....	67
3. 중국 일정 .....	127
가. 국가인터넷정보관공실 방문 .....	128
나.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방문 .....	134
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방문 .....	139
4. 몽골 일정 .....	145
가. 방송통신규제위원회(CRC) 방문 및 MoU체결 .....	146
나. 몽골공영방송(MNB) 방문 .....	151
다. 블룸버그TV 몽골 인터뷰 .....	153
III . 보도자료 .....	172





## I. 출장 개요

### 1. 출장 목적

- 제5차 ITU 아태 규제자 라운드테이블 참석 및 한-아세안 방송 쇼케이스 개최
- 중국 및 몽골의 방송통신 규제기관 등 방문, 면담 및 MoU 체결

### 2. 출장 국가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중국(베이징), 몽골(울란바토르)

### 3. 출장 기간 : '15년 8월 23일(일) ~ 29일(토), 6박 7일

※ 국제협력팀장 등 3인은 8.22(토)에 사전출발(쇼케이스 행사 준비)

### 4. 출 장 자

구분	부 서	직 위(직 급)	성 명	비 고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 성 준	
2	위원장실	보좌관(서기관)	김 상 순	말레이시아 일정만 수행
3		수행비서(행정사무관)	권 영 재	
4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고위공무원)	정 중 기	중국 일정만 수행
5	홍보협력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서기관)	배 춘 환	기자단
6	국제협력팀	국제협력팀장(서기관)	박 명 진	
7		주무관(행정주사)	신 은 정	아태 규제자 라운드테이블, 몽골 방통규제위 담당
8		주무관(방통주사)	박 민 규	한-아세안 방송 쇼케이스 담당
9		주무관(행정주사보)	장 좌 영	중국 광전총국 및 인터넷판공실 담당
10	방송기반국	편성평가정책과장(서기관)	김 중 영	중국 일정만 수행
11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방통주사)	김 은 자	
12	한국인터넷진흥원	선임연구원	정 홍 순	
13		연구 원	임 준 옥	
14		한-영 통역사	이 경 민	

\* 동행 기자단(총 4인) - 최문종(KBS), 강민구(MBC), 김윤수(SBS), 김현우(YTN)

### 5. 주요 활동

- (말레이시아) ITU 아태 규제자 라운드테이블에 참가하여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 정책 및 관련 산업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강화
  - 한·아세안 방송 쇼케이스를 개최하여 우리 방송 콘텐츠의 해외 진출 및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의 방송 콘텐츠 교류 지원
- (중국, 몽골) 중국 및 몽골의 방송통신 분야 유관기관과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해당국과의 방송통신 민·관 교류 활성화에 기여



## 말레이시아 일정

---

◆ 기 간 : 2015. 8. 24(월) ~ 8. 25(화)

※ 아·태 규제자라운드테이블(24~25),  
한·아세안 방송 쇼케이스(24~29)

◆ 방문지역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

## 방송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 위원장 면담

□ 일시 /장소 : '15.8.24(월) 11:30~12:30, 그랜드 하얏트 호텔(쿠알라룸푸르)

□ 면담자 : 할림 샤페이(Dato's Sri Dr. Halim Shafie) 위원장 등

### < 방송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 개요 >

#### o 설립취지

- 1998년에 제정된 정보통신 방송·융합 관련 법안인 방송통신 및 멀티미디어 위원회법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 Act)과 통신및멀티미디어법(Communication and Multimedia Act)을 근거로 설립

#### o 주요역할

- △ 방송통신 시장 및 사업자의 관리 감독 △ 라이선스 발급 및 주파수 관리 △ 번호 정책 수립 및 관리 △ 통신 장비 인증 및 기술 규제 △ 정보통신멀티미디어부(KKMM)에 정책, 전략, 법규 관련 조언
- 정보통신멀티미디어부가 방송통신 분야 관련 정책이나 규제 혹은 법규를 마련하는 과정에 협력하고 이에 대한 조언을 제공
- 정보통신멀티미디어부가 마련한 정책 및 전략을 수행

#### o 조직구성

- 위원구성은 총 9명으로 총리가 임명하며, 정부 인사 3명(임기), 비정부 인사 6명(임기)
- △ 서비스 인프라 개발 및 콘텐츠 산업 개발을 관장하는 MylCMS국(Malaysian Informatio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Service), △ 주파수 계획 및 관리를 담당하는 연구 기획국, △ 기술 규제를 담당하는 기술표준 네트워크국, △ 프로젝트 기획 및 관리를 담당하는 보편서비스국, △ 주파수 감시 및 우정사업 부문을 관장하는 라이선싱&경제규제국, △ 국제기술 협력 및 모바일 번호 이동 관리 업무 등을 지원하는 자원배분 관리국 등 10개 부서로 구성

### o 주요 내용 요약

- 최성준 위원장은 MCMC 조직 구성, 말레이시아의 방송 콘텐츠 규제, 인터넷 거버넌스 등을 질의하고 양 기관 MoU 체결 등 협의
- 할림 샤페이 위원장은 MCMC 조직 구성 등을 설명하고 방통위에 콘텐츠 교류와 디지털 TV 전환 관련 협력을 요청. 아울러 방통위에서 준비한 한-아세안 방송 쇼케이스 행사와 KL Converge 한국 부스에 대해 감사의 뜻 전달

## □ 세부 면담내용

### 【인사 말씀】

- (방통위) MCMC 위원장님의 연임을 축하드립니다. Showcase 행사는 의미 있는 행사이며 KL Converge 행사 관련해서는 뒤늦게 준비하였지만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잘 준비되었다 생각함
  - 저희가 준비한 행사에 아낌없는 지원으로 도와주신 MCMC측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MCMC) 위원장님과 방통위 대표단을 환영하며 연임을 축하해 주신 것 감사함
  - 개인적으로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한국이 이룬 경제 성장, 한국이 이룬 경제적 가치는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으며 '80년대 한국이 추진했던 정책으로 말레이시아는 많은 영감을 받았음
  - 앞으로 많은 정보 교류가 있었으면 함

### 【양 기관 소개】

- (방통위) 방통위는 방송통신 규제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임
  - 2013년 정부조직개편으로 산업진흥 정책관련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었고 방통위는 방송통신 규제 업무를 위주로 맡게 됨
  - 말레이시아에서는 방송통신 규제 및 정책에 대해서 MCMC와 KKMM이 구체적으로 업무를 어떻게 나누어 하시는지 궁금함
- (MCMC) MCMC와 KKMM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면 KKMM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집중하고 있고 저희 위원회는 주로 집행을 담당하고 있음. KKMM은 산하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영화와 관련된 기관이고 나머지 하나는 멀티미디어 관련 기관이며 관련 분야의 진흥을 담당하고 있음
  - MCMC는 "Malaysia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 Act"(1998)에 의거, 1998.11월 설립됨

## 【조직 구성】

- (MCMC) MCMC는 총리로부터 임명된 총 9명 중, 3명은 정부와 관련이 있는 인사이며 나머지는 정부와 관련이 없는 인사들임
- 현재 통신미디어법을 개정 중인데 이 법이 개정되면 위원장과 CEO로 나뉘게 되면서 위원장이 더 이상 자리를 수행하지 않게 되어 오랫동안 공석이 될 가능성이 있음
- (방통위) 위원들이 주로 방송이나 언론 분야의 전문 분야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며 저는 28년동안 사법부에서 법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위원장이 되었는데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지적재산권, 방송통신 관련 지식에 관심이 많아 다양한 학회 활동을 통해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있었기에 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많은 도움이 되었음. KCC 업무가 주로 규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법률가의 역할이 필요함

## 【방송 콘텐츠 규제의 어려움】

- (MCMC) 요즘은 SNS 등 뉴미디어 매체들이 생기면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파생되다 보니 규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많은 포털들이 윤리를 따르고 있지 않아 제대로 된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뉴스화 하는지 의문이고 국가 안전상 문제가 많아 현재 SNS 관련 법 개정 추진 중
  - 이와 관련, 한국에서는 SNS 논란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배우고 싶음
- (방통위) 방송 콘텐츠 규제 관련 이슈는 한국과 말레이시아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문제이며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1인 방송이라는 것까지 생겨나 지상파 방송과 유사한 형태를 띠며
  - 그러나 1인 방송사들에게 기존 방송사들이 지고 있던 책임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은 중요한 문제이며, 규제가 필요하기는 하나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저해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와 관련한 별도의 입법 계획은 없는 상황임

- 방송의 독립과 자율성, 공공성과 공적책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할 대안을 찾고 있음
- 한국의 경우, 온라인 포털이 높은 수준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반면 규제는 약함
  - 통신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가 온라인 포털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제재까지 집행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의견도 있음
  - 따라서 규제당국에게 양립된 가치들을 조화롭고 균형있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규제당국의 책무임

#### 【MoU 체결 제안】

- (방통위) 말레이시아는 방송통신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방통위와 MCMC 간의 활발한 교류는 양국의 방송통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함
  - 방송통신 분야 정보 교환을 위한 포럼 개최 등 양 기관의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하게 하려면 MoU 체결이 좋은 제기가 되리라 생각함
  - 특히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인터넷 거버넌스 영역은 방통위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양 기관이 보다 폭넓게 공조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아울러 한국은 방송의 디지털 전환 사업을 이미 완료하였기 때문에 현재 동일한 사업을 추진 중인 말레이시아 정부와 좋은 협력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임

- o (MCMC) 방통위의 MoU체결 제안에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
  -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18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방송의 디지털 TV 전환 및 채널 배정, IPTV, 디지털 TV, 콘텐츠 교류 협력 등 방통위와 협력할 사안이 매우 많다고 생각함

#### **【콘텐츠 교류 협력 관련】**

- o (방통위) 양 기관 간 MoU 안에 방송 콘텐츠 교류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겠음
- o (MCMC) 한국은 K-pop, 영화 등 문화 콘텐츠의 강국이며 특히 방송 분야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함

#### **【Showcase 개최】**

- o (MCMC) 한국측이 한-아세안 방송 쇼케이스를 준비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는 MCMC를 후원하고 지지해 주신 것이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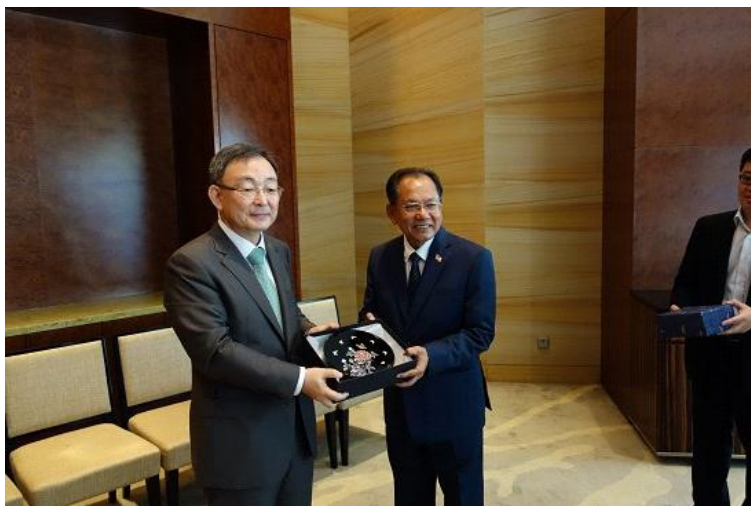
<붙임 - 면담 사진자료>



< 양국 방송통신 분야 정책 및 산업 정보 공유 >



< 양 기관 간 MoU 체결 등 협력 방안 논의 >



< 면담기념 선물교환 >

## 제5차 ITU 아·태 방송통신 규제자라운드테이블 참가

### < 2015 ITU 아·태 규제자 라운드테이블 개요 >

- 일시 / 장소 : '15. 8. 24.(월) ~ 25.(화), Grand Hyatt Hotel Grand Ballroom 2(쿠알라룸푸르)
- 주 제 : Facing the Telecommunication/ICT Regulatory Challenges in the Digital Economy
- 주 최 : ITU(국제전기통신연합), MCMC(말레이시아 방송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
- 참석대상 : 아태지역 ITU 회원국(19개국) 방송통신 규제기관장
- ITU 아태지역 회원국의 방송통신 규제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
  - 방송통신 규제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각국의 사례를 공유
  -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규제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 ※ 1차 호주, 2차 인도, 3차 한국, 4차 호주, 5차 말레이시아, 6차 파키스탄(예정)

### □ 참석 및 발제 세부내용

#### 【행사 개황】

- ITU 아·태 방송통신 규제기관 회의로서 올해가 제5회째이며 총 19개 국가에서 53명의 규제기관장이 참석, '14년엔 호주에서 개최 되었으며 '13년엔 한국에서 개최
  - 올해 제5회 아·태 규제자 라운드테이블의 대주제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방송통신·ICT 규제 도전과제'임
- 할림 샤피이 MCMC 위원장과 브라히마 사누 Director Development Bureau of ITU가 각각 환영사와 개회사를 했으며, 고위급 참석자들이 역동적이고 전략적인 토론을 통해 새로운 규제 이슈와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답과 협업의 잠재적인 기회를 모색
- 최성준 위원장은 '방송통신/ICT 생태계에서의 OTT'를 주제로 발제, 국제적 OTT 산업의 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국제적 실무협의체로서 'Asia-Pacific Regional Roundtable' 제안

## 【1일차 프로그램(8.24)】

### □ 14:00~15:30 (세션 1) : '균형점 찾기'라는 규제 도전과제

#### 〈 세션 개요 〉

- (의장) 할림 샤피이, MCMC 위원장
- 발제
  - 로니 마무르 비슈리, 인도네시아 전기통신규제위원회(BRTI) 위원
  - 레옹 캥 타이, 싱가포르 정보통신 개발당국(IDA) 대표
  - 줄라이카 이브라힘, 몰디브 방송통신청(CAM) 부국장
- (토론참여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몰디브, 호주, 대한민국, 파키스탄
- (세션 소개 및 주제) 기술·서비스·시장에서의 주요 트렌드와 발전, 끊임없이 변화하는 소비자 수요, 비즈니스 모델, 기존 규제 정책 사례와 새로운 융합시대에서의 규제 정책 사례 등을 살펴보고, 특히 아래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논의
  - ① 방송통신사업자의 진화하는 역할과 역량
  - ② 여러 분야와 관할권을 넘나드는 국경 없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서비스, 시장, 규제
  - ③ 소비자 보호와 교육
  - ④ 원칙과 유연성, 경제적 생산성과 사회·문화적 원칙 사이에서의 균형 찾기

- (주요 내용) 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이슈인 새로운 사업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의 이동이 규제에도 영향을 미침
  - 기술 발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과제에는 OTT를 통한 무료 서비스, 변화하는 소비자 수요, 변화하는 비즈니스 모델 등이 있으며 이러한 트렌드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존재
    - (1) 산업간 융합으로 인한 방송통신사업자 간의 경쟁과 역할의 진화
    - (2) 국경 없는 디지털 사회에서의 다양한 규제의 필요성
    - (3) 규제를 가하는데 있어 법규와 책임
    - (4) 경제 회복과 기회 사이에서 균형 찾기, 글로벌 ICT 산업에서의 포지셔닝
  - ICT가 금융, 교육, 건강, 농업 등 다른 분야와 융합됨에 따라 규제자들은 공동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을 고려해보기로 합의
  - 공동 규제를 허용하고 규정짓기 위해서 규제자와 정책 입안자가 자국의 방송통신 법·정책·규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다수의 규제자들이 발전 측면을 고려해 권한을 확대하고, 정책과 규제가 시대에 뒤처짐에 따라 문제가 발생
- 규제자들은 아래 영역에서도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음
  - (1) 경제적 생산성과 사회적/문화적 의무
  - (2) 비용과 지속가능성
  - (3)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
  - (4) 가격, 혁신, 투자
- 규제자들은 화재와 같이 예상치 못한 사태에도 견딜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호주와 같은 국가는 이를 ICT 규제자들의 권한을 벗어난 영역으로 봄
- 규제자들은 혁신을 장려해야 하며 과도한 규제보다는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면서 혁신과 투자를 위한 생태계를 형성하는데 집중해야 함

## □ 15:45~17:00 (세션 2) : 빅데이터라는 기회의 극대화과 우려 해소

### < 세션 개요 >

- (의장) 레웅 캥 타이, 싱가포르 정보통신개발당국(IDA) 대표
- 발제
  - 우누토아 아우엘루아-포노티, 사모아 규제국(OOTR) 위원
  - 압둘 말릭 나사리, 아프가니스탄 통신 규제청(ATRA) 이사
  - MCMC 위원
- (토론참여국) 사모아, 부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호주, 대한민국
- (세션 소개 및 주제) 본 세션에서는 빅데이터가 가져오는 혜택과 위험성, 빅데이터와 혁신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안전, 프라이버시, 이용자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기관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와 경험을 공유

- (세션 주요 내용) 매년 데이터 트래픽이 40퍼센트씩 증가하고 있고 IoT로 인해 더 빠르게 증가할 것이며 스마트 시티로 인해 규제자들은 새로운 시장 시나리오에 적응해야 함
  - 싱가포르는 브로드밴드 개선 목적으로 클라우드 소싱을 성공적으로 활용
  - 데이터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빅데이터 보호가 어려워짐
  - 이용자 중심의 접근법이 이용자 프라이버시 관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임. ICT 규제자들이 국가 차원의 포괄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
  - 재정능력과 인력이 부족하고 시장규모가 작은 개발도상국은 지역적 차원에서 협력해서 빅데이터 관련 과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시장 규모와 상관없이 각국이 직면한 문제는 유사
  - 국가계획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을 살펴보면, 가장 두드러진 트렌드는 관리와 계획에서 정부/규제자들이 정부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사업자와 같은 비정부기관의 자료도 활용하는데, 예를 들어 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한

데이터를 도시 계획, 교통량 관리, 지역사회의 요구사항 분석(예: 쇼핑몰을 어디에 세워야 할지) 등에 활용 가능

- 표준화 되지 않은 기술 플랫폼에 의존할 경우 제대로 연결된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가 아닌 서로 고립된 디지털 지역사회의 섬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규제자들은 시장에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하고 계획할 때 신중해야함

#### o (최성준 위원장 주요 발언)

- 한국에서는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기로 했음. 이를 통해서 빅데이터 산업이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빅데이터 산업은 사물에 대한 데이터와 개인정보로 나누어볼 수 있음. 사물에 관한 정보는 사물 소지자로부터 공유를 받지 않고 수집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로 인해서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음.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수집할 경우 비록 그 용도가 빅데이터를 위한 것이라도 개인정보침해의 문제로 나타나게 됨
- 대한민국을 비롯 여기 참석하신 대부분의 나라들, 더 나아가서 미국, 유럽 모두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수집하지 못하게 한다면 빅데이터 산업 발전에 큰 저해가 될 수 있음. 따라서 한국에서의 고민은 이와 같은 기본적인 법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이용하려면 그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그 동의를 받지 않으면서도 개인정보를 빅데이터에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됐음

- 작년에 한국에서는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개된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의 동의 없이도 Opt-in에서 Opt-out 방식으로 활용하는 그 개인 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기로 했음. 그 이후에 개인정보를 수집한 단체에서 반드시 그 개인이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음. 그리고 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부정하게 이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암호화 되도록 했음
-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 제기가 있음. 요사이 다양한 기술의 발전으로 비록 비식별화 했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재식별화 되는 것이 매우 용이하게 되었기 때문임
- KCC는 Opt-in에서 Opt-out 방식으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비식별화를 하고 수집한 이후에 암호화하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만 일부 시민단체나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기관은 언제든지 재식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가이드라인으로는 현행법에 위반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상태임. 다만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가이드라인에서는 비식별화된 정보가 재식별화 될 경우, 바로 다시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지만 과연 사업자들이 그것을 완벽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보여짐
- 현재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실시된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빅데이터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개인정보보호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런 자료들이 수집되면 다음 기회에 설명드릴 수 있을 것임

### < Opt-in & Opt-out >

- o Opt-in, Opt-out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Opt-in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에게서 동의를 받아야만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 제공, 이용할 수 있는 규제방식이며, Opt-out은 기업이 정보 주체의 별도의 동의 없이도 개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식임. 그러나 정보 주체가 개인 정보 제공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면 기업은 이 정보 주체를 개인정보 처리 대상에서 바로 제외해야만 한다는 제도임

### 【질의응답】

#### Q1. 한국에서의 Opt-in & Opt-out 시스템은 어떻게 활용되는지?

A1. 다만 공개된 개인정보의 경우, 그 정보가 일단 웹사이트상에 어떤 형태로든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수집해가면서 그 정보 주체에게 ‘당신의 정보가 이와 같이 수집되어 앞으로 빅데이터에 이용될 예정이니 만약에 당신의 정보가 이용되기를 원치 않으면 연락하라’ 는 식으로 운영하라는 취지임

만약에 일반적인 개인정보 모두에 대해서 이와 같이 빅데이터 활용을 의도한다면 아마도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사이에 충돌을 피할 수 없어서 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많음. 따라서 저희들이 만든 가이드라인은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것이 아닌 이미 공개되어 있는, 웹사이트 어느 구석엔가 공개되어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것만임.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중시하는 많은 단체에서는 또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있음



## 【2일차 프로그램(8.25)】

□ 09:00~10:30 (세션 3) : 주파수의 폭발적인 수요와 경제적 가치 운용

### 〈 세션 개요 〉

- (의장) 리차드 빈, 호주 방송통신미디어청(ACMA) 부청장
- 발제
  - 알리 아쉬가르 아미디안, 이란 방송통신규제청(CRA) 청장
  - 서 테인, 미얀마 방송통신정보기술부 우정통신부 청장
  - 키라 굴로-불, 파푸아뉴기니 국립 정보통신기술청(NICTA) 청장
- (토론참여국) 이란, 미얀마,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부탄, 파키스탄, 라오스, 사모아
- (세션 소개 및 주제) 본 세션에서는 주파수 대역 관리자들의 분명한 입장 규정이 필요한 주파수 대역 관리 관련 문제들 조명
  - 특히 주파수 대역 관련 계획, 미래 무선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대역 라이선스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주파수 대역 경제학, 디지털 경제에서 주파수 대역 관리 기관의 새로운 역할 등을 논의

- (세션 주요 내용) 각국의 주파수 관련 규제자들은 투명하면서 국제적, 지역적으로 조화로운 중장기적 주파수 관리 접근법을 택해야 함
  - 기존 대역의 재사용(특히 모바일 브로드밴드)은 동일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로운 주파수와 관련한 각국 주파수 규제자들의 국제적인 활동과 비슷한 기반을 가져야함
  - 효율적인 주파수 관리와 주파수 비축에 대응하기 위해 주파수 규제자들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 포기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아·태 지역 규제자들은 통일된 주파수 라이선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기 위해 노력 중
  - 국경을 넘나드는 주파수 간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양자적 차원에서 노력해야함

## □ 11:00~12:30 (세션 4) : 방송통신/ICT 생태계에서의 OTT

### 〈 세션 개요 〉

- (의장) 사이드 이스마일 샤, 파키스탄 통신청(PTA) 청장
- 발제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사데흐 아바시 샤코우, 이란 방송통신규제기관 부청장
  - 찡 소픽, 캄보디아 우정방송통신부 부국장
- (토론참여국) 대한민국, 이란, 캄보디아, 라오스,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 세션 주제
  - ① 다양한 OTT 서비스 형태, 기존 방송통신사와 OTT 간의 차이점,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
  - ② ICT 네트워크 운영자와 OTT가 직면한 도전과제와 기회가 무엇이고 이 과제를 해결하면서 기회를 극대화하는 방법
  - ③ OTT와 소셜미디어 기업이 데이터 처리를 더 투명하게 하고, 정보 공유 이전에 Opt-in system을 통해 사용자의 동의를 구하며 사용자에게 더 분명하게 정보 공개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 ④ 새로운 혁신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ICT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솔루션과 전략 찾기

- (세션 주요 내용) OTT가 라이선스를 보유한 사업자들에게 가져다주는 도전과제와 경쟁을 고려했을 때 OTT 관리/규제에는 ① OTT 금지, ② OTT 관리에 대한 인식, ③ CMOs - OTT 파트너십과 같이 세 가지 접근법이 있음

(최성준 위원장 세션 발제 진행)

### 【질의응답】

#### Q1. 한국에서의 OTT 현황과 한국 정부의 역할은?

A1.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가 구글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넓게 보면 OTT 사업자라 볼 수 있는 인터넷 포털, SNS, 클라우드 사업자들을 정부나 규제당국이 지원하는 정책은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함

다만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가면서 외국의 글로벌 OTT들과 경쟁해서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획득해나가고 있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함.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도 비즈니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법적, 경제적으로 기업 활동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유일한 것이 아닐까 생각함

굳이 하나를 덧붙이자면 대한민국의 경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 속도가 빨랐고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았기 때문에 OTT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사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함

## **Q2. OTT 서비스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A2. 인터넷 포털, 클라우드, SNS 관련 기업을 위해 특정한 법적조치를 하거나 국가가 경제적으로 후원하는 시스템은 없음

한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사업자인 네이버, 라인, 다음, 카카오톡도 자신들의 사업 능력을 타국에 비해 잘 구축된 국내의 우수한 네트워크망을 활용하여 각자에게 특화된 사업 능력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고 생각함

## **Q3. 한국에서의 OTT 서비스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은?**

A3. OTT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IPTV를 기반으로 모바일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OTT 서비스를 예로 들도록 하겠음

한국에서는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지만 IPTV보다 나은

모바일 IPTV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고 특히 젊은 층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함. 따라서 IPTV 가입자 증가와 더불어 모바일 IPTV 가입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모바일 IPTV는 기존의 시청각 서비스에 비해 가입비용이 저렴하기에 소비자들이 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업자로서는 하나의 콘텐츠를 구입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수익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대한민국의 경험에 의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통신사업자들이 빠른 속도의 인프라망을 신속하게 갖추는 것이라 생각함. 결국에는 OTT 사용자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이유는 정보 전달 및 각종 동영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기 때문임

대한민국에서는 인터넷망뿐만 아니라 이동통신망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긴 하지만 지금도 이동 통신 3사는 그 인터넷 속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나아가서 5G를 제일 앞서서 개발하려 노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망의 속도 개선, 전국에 인프라 구축을 위해 투자하는 것 등이 OTT 서비스를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 생각함

□ 14:00~15:30 (세션 5) : 사이버보안에 대한 포괄적 접근

〈 세션 개요 〉

- (의장) MCMC 위원
- 발제
  - 모하매드 이맘 나쉬루딘, 인도네시아 전기통신규제위원회(BRTI) 위원
  - 타비삭 마노담, 라오스 ICT 우정통신부 부국장
- 주제
  - ①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ICT 규제기관과 정책입안자의 역할에 대한 경험과 선례
  - ② 기관 간, 민·관 협력의 필요성
  - ③ 초국가적 위협과 외국 관할권 관련 문제에 대한 논의
  - 사이버보안과 사이버복지에 대한 국가적, 지역적 문화를 형성 위한 포괄적 접근법을 논의

□ 16:00~16:30 (세션 6) : 앞으로의 과제

〈 세션 개요 〉

- (의장) 할림 샤피이, MCMC 위원장
- 패 널
  - 알리 아쉬가르 아미디안, 이란 방송통신규제청(CRA) 청장
  - 사이드 이스마일 샤, 파키스탄 통신청(PTA) 청장
  - 리차드 빈, 호주 방송통신미디어청(ACMA) 부청장
  - 로니 마무르 비슈리, 인도네시아 전기통신규제위원회(BRTI) 위원
- 세션 소개 및 주제
  - 본 세션에서는 이전 세션에서의 정보·경험 공유를 통해 살펴보았던 주요 아이디어와 결과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해보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규제기관이 디지털 경제에서의 방송통신/ICT 규제 관련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원칙, 사례, 제안 등 논의


## ITU · MCMC 아 · 태 규제자 라운드테이블<sup>1)</sup> 프로그램

8/24(월)	세부 프로그램 내용
13:00~13:30	등 록
13:30~13:50	<b>&lt;개회식&gt;</b> 환영사 : ITU / 개회사 : MCMC
13:50~14:00	단체 사진촬영
14:00~15:30	<b>&lt;세션 1&gt; '균형점 찾기'라는 규제 도전과제</b> 세션 의장 : 할림 샤피이, MCMC 위원장  ○ 세션 발제 : - 로니 마무리 비슈리, 인도네시아 전기통신규제위원회(BRTI) 위원 - 레웅 캥 타이, 싱가포르 정보통신 개발당국(IDA) 대표 - 줄라이카 이브라힘, 몰디브 방송통신청(CAM) 부국장
15:30~15:45	Coffee Break
15:45~17:00	<b>&lt;세션 2&gt; 빅데이터에 대한 기회와 우려</b> 세션 의장 : 레웅 캥 타이, 싱가포르 정보통신개발당국(IDA) 대표  ○ 세션 발제 : - 우누토아 아우엘루아-포노티, Intermin Regulator, 사모아 규제국(OOTR) 위원 - 압둘 말릭 나사리, 아프가니스탄 통신 규제청(ATRA) 이사 - MCMC 위원


1) 이번 아 · 태 규제자 라운드테이블 참석 국가 : 호주, 방글라데시, 부탄, 부르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이란, 키리바티, 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사모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베트남 등 19개국

8/25(화)	세부 프로그램 내용
09:00~10:30	<p><b>&lt;세션 3&gt; 주파수의 폭발적인 수요와 경제적 가치 운용</b> 세션 의장 : 리차드 빈, 호주 방송통신미디어청 부청장</p>
	<p>○ 세션 발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리 아쉬가르 아미디안, 이란 방송통신규제청(CRA) 청장</li> <li>- 서 테인, 미얀마 방송통신정보기술부 우정통신과 총괄 국장</li> <li>- 키라 굴로-불, 파푸아뉴기니 국립 정보통신기술청(NICTA) 청장</li> </ul>
10:30~11:00	Coffee Break
11:00~12:30	<p><b>&lt;세션 4&gt; 방송통신/ICT 생태계에서의 OTT ※ 위원장님 발제 예정(10분)</b> 세션 의장 : 사이드 이스마일 샤, 파키스탄 통신청(PTA) 청장</p>
	<p>○ 세션 발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KCC) 위원장</b></li> <li>- 사데흐 아바시 샤코우, 이란 방송통신규제청 부청장</li> <li>- 쉐 소픽, 캄보디아 우정방송통신부 부국장</li> </ul>
12:30~14:00	오 찬
14:00~15:30	<p><b>&lt;세션 5&gt; 사이버보안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b> 세션 의장 : MCMC 위원</p>
	<p>○ 세션 발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하매드 이맘 나쉬루딘, 인도네시아 전기통신규제위원회(BRTI) 위원</li> <li>- 타비삭 마노담, 라오스 우정통신부 부국장</li> </ul>
15:30~16:00	Coffee Break/규제기관 간 정보교환
16:00~16:30	<p><b>&lt;세션 6&gt; 앞으로의 과제</b> 세션 의장 : 할림 샤피이, MCMC 위원장</p>
	<p>○ 패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리 아쉬가르 아미디안, 이란 방송통신규제청(CRA) 청장</li> <li>- 사이드 이스마일 샤, 파키스탄 통신청(PTA) 청장</li> <li>- 리차드 빈, 호주 방송통신미디어청(ACMA) 부청장</li> <li>- 로니 마무르 비슈리, 인도네시아 전기통신규제위원회(BRTI) 위원</li> </ul>
16:30~	폐회식


## 최성준 위원장 PPT 발제자료



# OTT in the Telecommunication/ICT Ecosystem




Sung-Joon Choi  
KCC Chairman  
Aug. 25, 2015



##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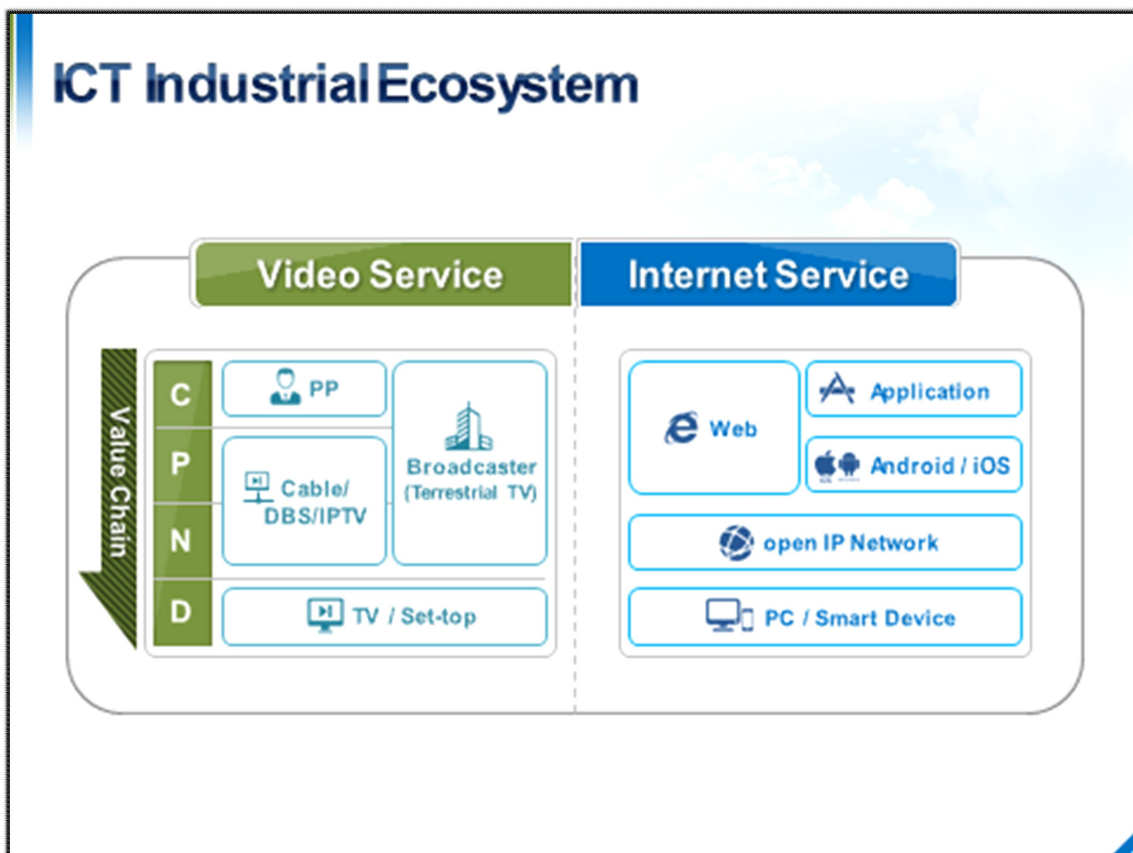
- 1 Changes in the ICT Ecosystem
- 2 OTT Issues
- 3 Government-level responses
- 4 Remaining Tasks
- 5 Asian-Pacific Coope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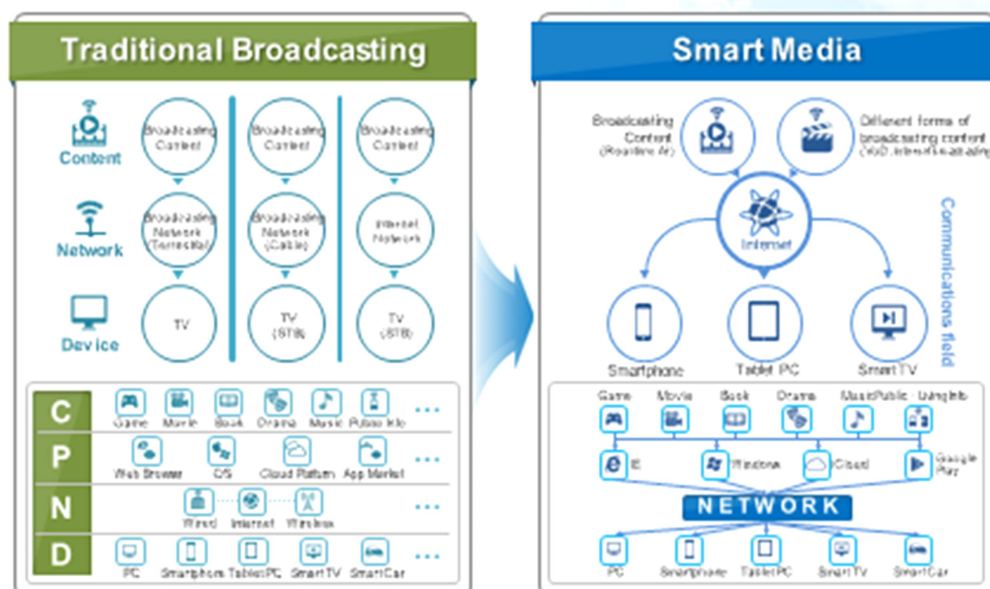


## Contents

- 1/ Changes in the ICT Ecosystem
- 2/ OTT Issues
- 3/ Government-level responses
- 4/ Remaining Tasks
- 5/ Asian-Pacific Cooperation



## Changes in the ICT Eco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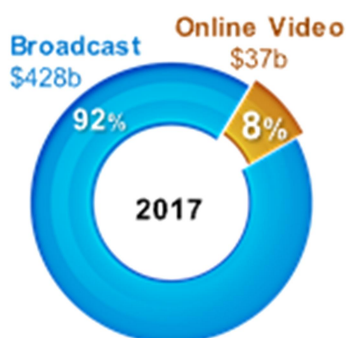


## OTT : Current status at home vs. abro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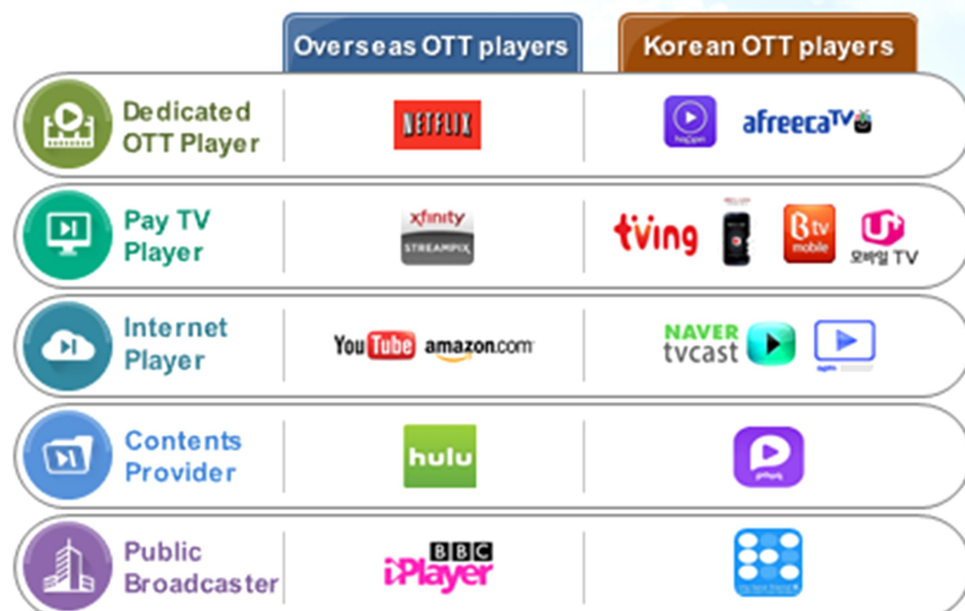
Broadcast market estimated at \$430b globally, by 2017

OTT will be 37b US\$ by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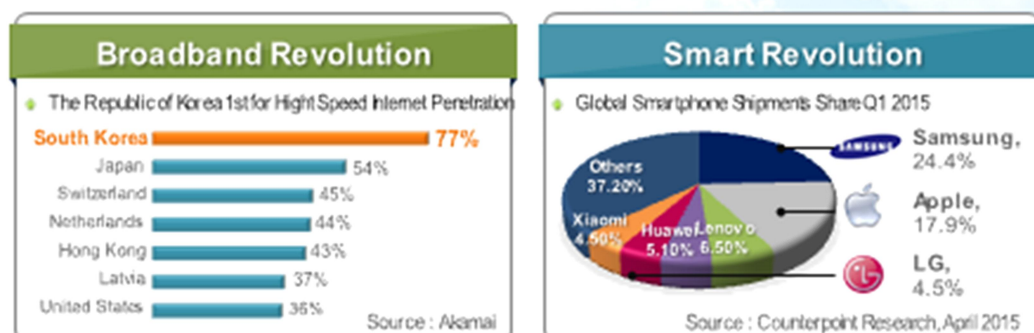
Korea OTT market



## Major OTT players




## The background of emerging OTT



## Changes in the users





# Contents

- 1/ Changes in the ICT Ecosystem
- 2/ OTT Issues
- 3/ Government-level responses
- 4/ Remaining Tasks
- 5/ Asian-Pacific Coope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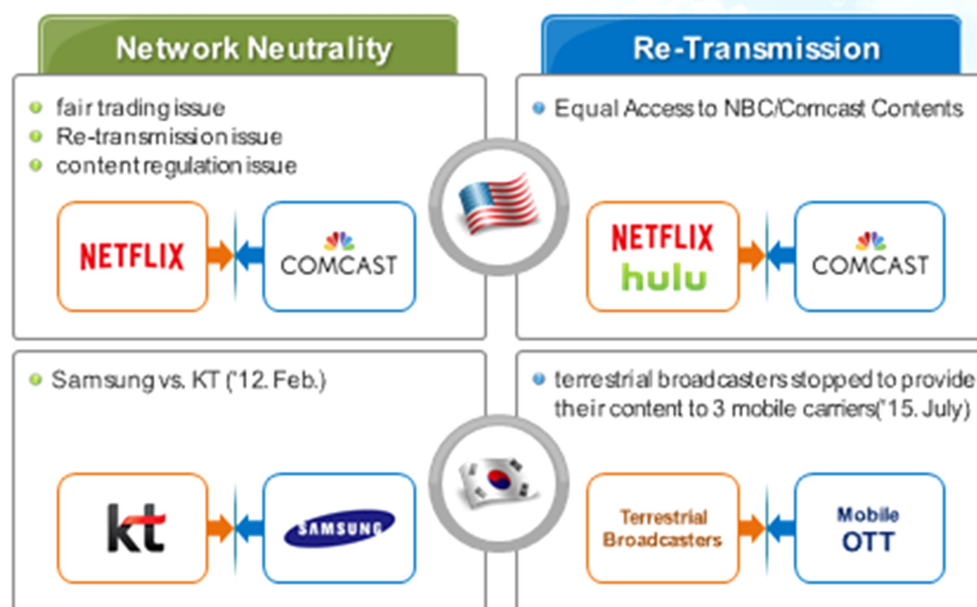
## Examples(Intra-layer issue)




Legacy player : Strict regulation

OTT : Relatively low regulation

## Examples(Inter-layer iss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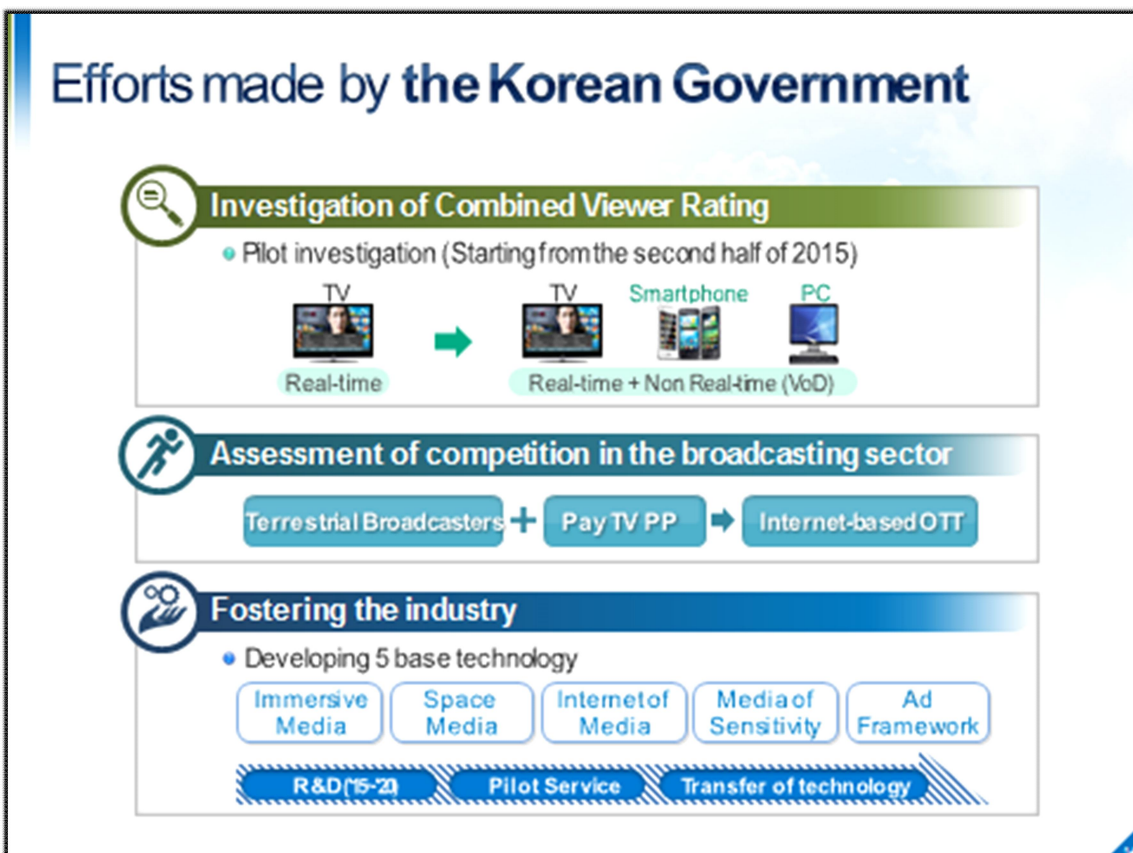






# Contents

1/	Changes in the ICT Ecosystem
2/	OTT Issues
3/	Government-level responses
4/	Remaining Tasks
5/	Asian-Pacific Cooperation



## Examples at overseas



- Free Market (Laissez-Faire)



- Audiovisual Media Directory Services Directive



- When enacting Broadcasting Act, regulation on video content on the Internet exclud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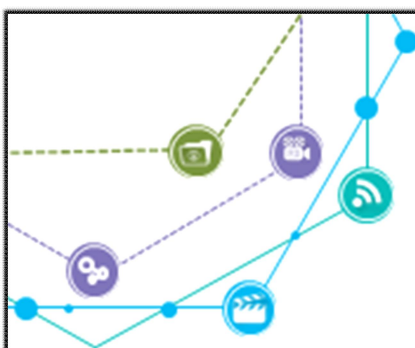


- (Ex-post regulation) The private sector sets the regulation and public organizations oversee the compliance and implementation

### Implications

Relatively Low Regu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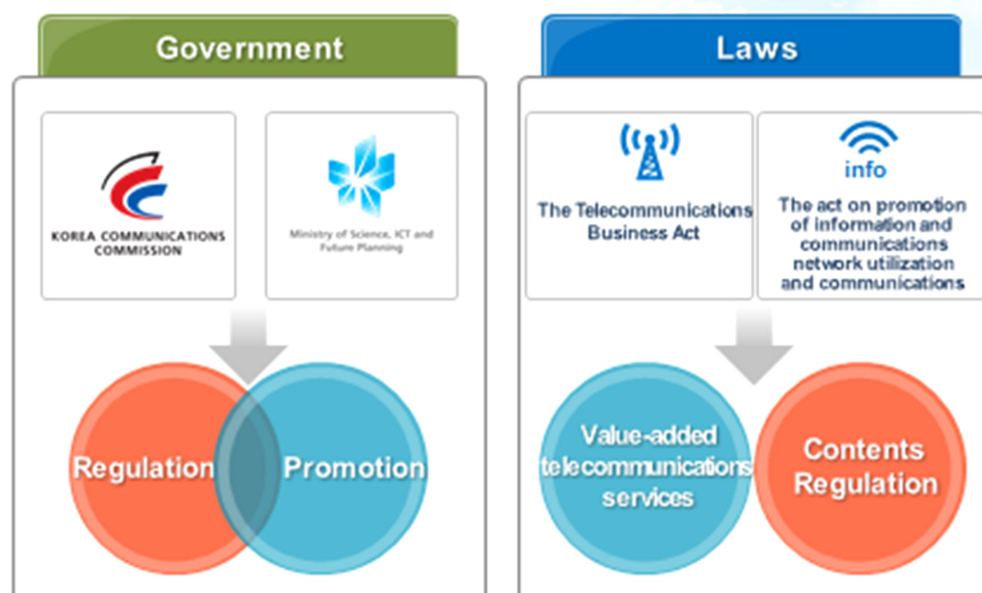
Horizontal Framework



##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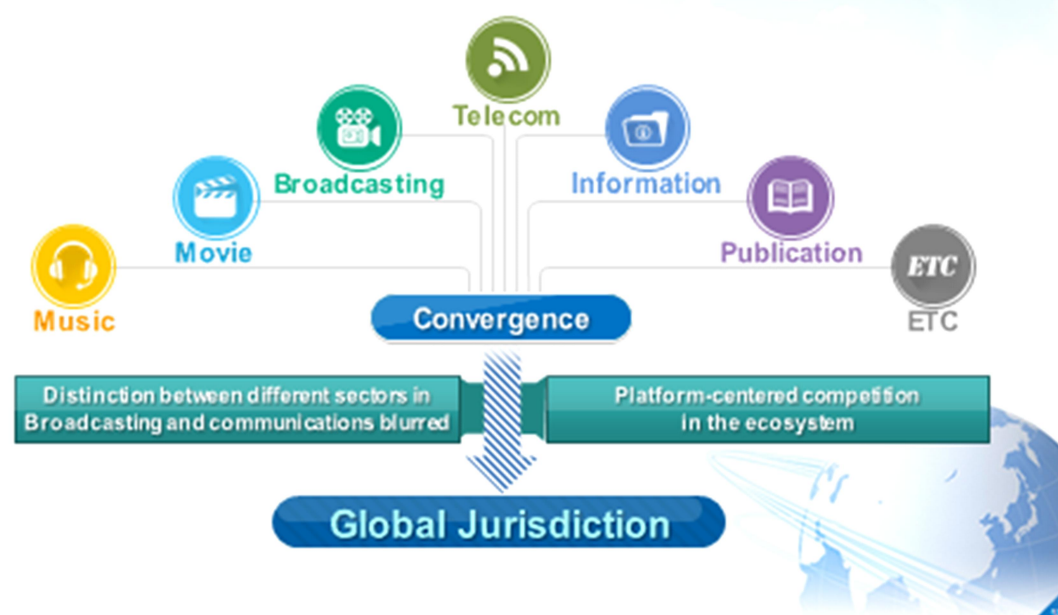
- 1/ Changes in the ICT Ecosystem
- 2/ OTT Issues
- 3/ Government-level responses
- 4/ Remaining Tasks**
- 5/ Asian-Pacific Cooperation

## Examples(Inter-layer issue)




## Changes in Framework

Fair Competition Issues : The Same Rule for the Same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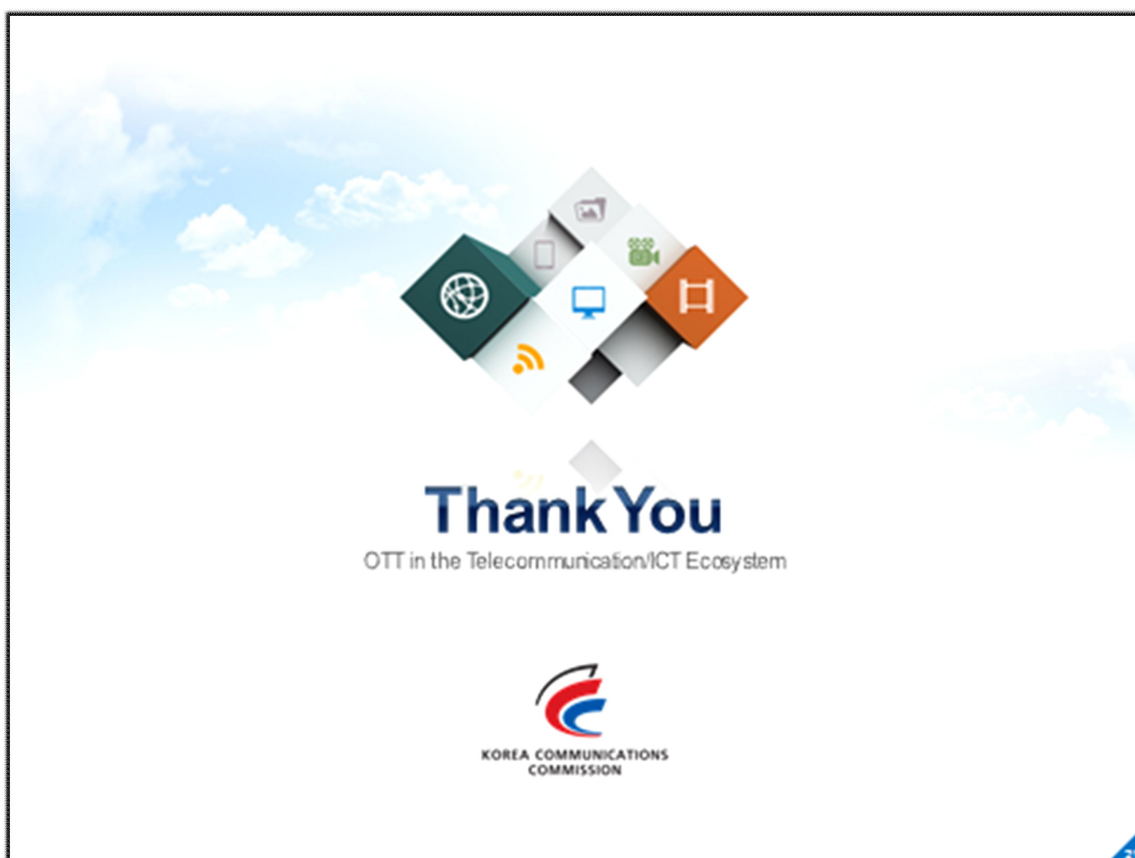




## Contents

1/	Changes in the ICT Ecosystem
2/	OTT Issues
3/	Government-level responses
4/	Remaining Tasks
5/	Asian-Pacific Cooperation





---

## 2015 ITU·MCMC 아태 규제자 라운드테이블

### 세션4 : 방송통신/ICT 생태계에서의 OTT

---

#### 슬라이드 1 :

안녕하세요. 세션 4 발제를 하게 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성준입니다. 이렇게 아·태 지역 19개국 규제기관장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아·태 규제자 라운드테이블에서 세션 발제를 통해 그 동안의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경험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RR 세션을 통해 각국의 많은 정보와 경험들이 나누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맡은 세션 4 주제인 “방송통신 ICT 생태계에서의 OTT” 라는 주제로 발제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 슬라이드 2 :

저의 프레젠테이션은 다섯 가지 주제를 다루려 합니다.

첫번째 주제에서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OTT 비디오 서비스 확산의 배경이 되는 ICT 생태계 변화를 짚어 보겠습니다.

두번째 주제는 규제기관의 관점에서 바라본 OTT 이슈에 대해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한국 정부차원의 대응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네번째는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주제는 아태지역 협력을 통한 해법 모색 필요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 슬라이드 3 :

먼저 ICT 생태계 내의 변화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 슬라이드 4 :

ICT 산업생태계란 콘텐츠를 최종 소비자인 시청자, 혹은 이용자들에게 제공  
하는 과정에서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layer에 존재하는 각각의  
(separated) 혹은 통합된(integrated) player들이 가치사슬이라 부르는 관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 슬라이드 5 :

ICT 산업 생태계는 진화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CPND 구성요소가 설비에  
기반한 매체별 구분을 특징으로 하는 수직적 분리 구조였으나(facility  
based media specific separation structure) 현재는 IP 네트워크의 통합  
(All-IP라 불리는)이 진전되면서 이런 수직적 구분이 흐릿해지고 있습  
니다. 그 결과 기존의 legacy 방송사업자는 물론, 구글과 같은 인터넷 기업,  
삼성과 같은 기기제조업체들은 물론 네트워크 사업자들도 모두 IP망을  
통해서 비디오를 제공하는 OTT 비디오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거나, 진입  
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 슬라이드 6 :

OTT는 원래 범용 인터넷(best-effort Internet)망을 통해 제공되는 Audiovisual Service를 광범위하게 일컫는 개념(Over The Top)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빠르게 성장해서 2017년까지 전 세계 비디오 시장의 약 8%에 달하는 370억 불 정도의 시장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17년 시장규모가 약 4억 불(400 million) 정도로 추정됩니다.

## 슬라이드 7 :

PC 뿐만 아니라 모바일과 TV를 통한 인터넷 기반 서비스 활용이 가능한 환경이 도래하면서 OTT 서비스들 중 OTT 비디오 서비스 활용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넷플릭스, 유튜브, 훌루 등 조금씩 성격이 다른 OTT 비디오 업체들이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한국에서도 여러 유형의 사업자들이 활발히 사업을 전개 중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케이블이나 IPTV 등 기존의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OTT가 이용빈도가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OTT 비디오 서비스의 확산은 한편으로는 기존의 방송영상산업(video industry라고 하면 됨)의 산업생태계를 변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 프레임워크의 변화를 요구 중입니다.

## 슬라이드 8 :

이처럼 해외에서만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OTT 비디오 서비스가 활발히 출현하고 있고 이용도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는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의 Broadband Revolution 입니다. 당시 한국은 초고속인터넷 보급 정책, 인터넷 PC 정책을 정부차원에서 활발히 추진했고, 그 결과 보시는 것처럼 브로드밴드 보급률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둘째는 2008년 이후~2010년 초반, 전세계 ICT 업계를 강타한 Smart Revolution 입니다. 2008년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한 이후, 모바일 강국이던 우리나라도 삼성, LG 등이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업체들과 대등하게 경쟁 중입니다.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83%('15년 3월 기준)으로 UAE(90.8%), 싱가포르(87.7%), 사우디아라비아(86.1%)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할 정도로 스마트폰의 이용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참고로 '14년 global 스마트폰 보급률은 24.5% 정도로 PC 보급률 (20%)를 추월했습니다.

끝으로 이런 HW 변화와 함께 일어난 이용자 변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ICT 산업계 변화와 함께 한국 이용자들 역시 주문형 이용, 모바일 이용, 참여형 이용을 통해 전통적인 비디오 소비 방식과는 다른 비디오 소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이 OTT 비디오 서비스의 활성화로 이어진 것으로 진단해볼 수 있겠습니다.

## 슬라이드 9 :

그럼 이제 이런 OTT 비디오 서비스의 확산에 따른 정책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슬라이드 10 :

OTT 비디오 서비스는 ICT 생태계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OTT비디오 서비스의 확산은 ICT 생태계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어,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도전(challenge)라고 할 만합니다.

이들 OTT 이슈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우선 주목할 만한 것은 시장의 수평화가 낳은, 다지점(multi-point)에서의 경쟁 심화와 관련된 이슈를 포괄하는 Intra-layer issue와, 가치사슬 간 player들의 수직적 연계에 따른 '반경쟁' 이슈로 대표되는 Inter-layer issue 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존 미디어처럼 한 관할국가 내부에서만 해당되는 이슈와 함께,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 속성 탓에 전례 없이 복잡한 국제적 이슈들도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이 OTT 관련 규제 이슈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 슬라이드 11 :

다음 슬라이드에서 OTT와 관련한 실제 정책 이슈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layer 내부의 이슈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규제형평성, 혹은 비대칭적 규제 관련 이슈라 할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현행 방송법(IPTV법을 포함)상 OTT 서비스를 '방송'으로 포섭할 수 없기에, OTT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 통신'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존 방송사업자들은 public utility 로 간주되어 높은 수준의 사회·경제·문화적 규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OTT는 인터넷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OTT의 빠른 확산은 이런 비대칭 규제의 유효성을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기구로서는 어떻게 하면 양 사업자들이 Balanced Regulation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즉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Level Playing Field를 제공할 것인지가 커다란 숙제입니다.

## 슬라이드 12 :

가치사슬상 다른 계층에 속하는 이들 간에도 뜨거운 정책이슈들이 있습니다. 망중립성 문제나, 재송신 문제가 이런 유형의 대표라 할 것입니다.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OTT 비디오 서비스가 확산될수록, Network 제공자의 부담이 커지다보니,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이와 관련한 분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쟁력 있는 비디오 콘텐츠를 소유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들의 콘텐츠를 OTT가 재전송하거나,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도 끊이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우 콘텐츠의 가격에 대한 견해 차이로, 지상파방송사들이 많은 가입자를 확보 중인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OTT에 자사의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는 일이 지난달에 일어나서, 규제기관으로서 중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 슬라이드 13 :

OTT의 확산에 따른 몇 가지 이슈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한국정부는 사업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현안이 생길 때마다 이슈별로 대응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변화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도 시작했습니다. 다음장에서부터는 우리 정부가 OTT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슬라이드 14 :

OTT 확산으로 인한 Eco-System 의 근본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OTT 확산이 방송 분야의 산업생태계에 미치고 있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기존 지상파TV의 시청률이 다양한 매체로 분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기존의 플랫폼들과 경쟁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일 겁니다. 이를 반영해서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콘텐츠의 정확한 시청현황을 파악해서 광고료 책정과 VOD 요금 산정에 기준으로 삼기 위해 통합시청점유율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OTT 부문을 반영하는 안을 연구 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emerging business 임을 감안해서 OTT 부문에 대해서는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 슬라이드 15 :

OTT의 확산이 한국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듯이, 규제기구의 대응도 한국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나라들도 나름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EU의 경우, 이른바 수평적 규제들의 원칙들(Principles)을 회원국들에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여러 나라 사례들을 보면 대체로 OTT에 대해서는 방송에 비해서 다소 낮은 규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콘텐츠와 전송단으로 구분해서 같은 layer에 속하는 사업자들에게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 슬라이드 16 :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숙제들이 남아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 슬라이드 17 :

앞에서 본 것처럼 한국도 OTT가 가져오는 변화에 대해서 여러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선 OTT 비디오 서비스에 대한 규제 시스템이 아직 정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관련 정부 부처와 위원회가 나누어져 있고, 소관 법령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한국 내의 문제이니 우리 정부가 국민들과 지혜를 나누면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지 못할 숙제도 여전히 있습니다.

## 슬라이드 18 :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OTT 확산은 먼저 산업 내 Eco-System을 변화시키고 있는 중이지요. 그간 분리되어 있던 여러 시청각 서비스들이 TV와 모바일기기의 구분없이 융합해서 제공되는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수직적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서비스가 the same ground에서 경쟁하는' 양상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이에 따라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즉 수평적 규제틀(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로의 변화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은 단지 규제기구를 통합하거나, 법령을 일원화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다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OTT의 확산은 미디어 분야의 관할 경계가 한 국가 내부 차원을 뛰어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OTT 확산은 미디어의 지역적 경계 확장으로 이어지는 중입니다. 한국의 다양한 콘텐츠가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나라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지금 이 시간에도 소비되고 있음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는 인터넷 기반의 규제는 필연적으로 Global Jurisdiction을 포함한 국제적인 공동 대응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슬라이드 19 :

그렇기 때문에 Global Coordination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 PT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 슬라이드 20 :

아·태 지역은 이제 명실상부한 글로벌 최대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ICT 분야에서도, OTT 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한국은 ICT 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글로벌 테스트베드 역할을 제공해 왔습니다. OTT 비디오 산업에서도 이미 그 역할을 수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OTT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ICT Ecosystem 이 제대로 Working 할 수 있도록 New Framework를 아·태 지역 차원에서라도 먼저 준비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귀국에서도 이미 겪고 있거나, 앞으로 겪게 될 이슈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회의가 오늘 살펴본 논의의 Global Coordination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덧붙여서 한국은 OTT 확산과 관련해서 단순히 정책적인 협력뿐만이 아니라, OTT 비디오 서비스의 co-production과 co-distribution까지 확대될 때 비로소 진정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OTT cooperation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2015 ITU-MCMC Asia-Pacific Regulator's Roundtable**

---

## **OTT in the Telecommunication/ICT Ecosystem**

---

### **Slide 1 :**

Good afternoon. I am Sung-joon Choi, the Chairma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I am very pleased to share my experience i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policies by giving presentation at the Asia-Pacific Regulators' Roundtable, which gathers regulators of 19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I hope to share diverse information and experience through this Roundtable. Now, I am going to begin my presentation on the topic of OTT in the ICT ecosystem.

### **Slide 2 :**

I am going to touch upon 5 topics during my presentation.

First topic is the changes in the ICT ecosystem, the background of the spread of the rising OTT video service.

Second is OTT issues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gulatory organization.

Third is the Korean government's responses.

Fourth is about the remaining tasks.

Lastly, I will give suggestions on solving issues through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 **Slide 3 :**

First, let's briefly look at the changes in the ICT ecosystem.

### **Slide 4 :**

The ICT ecosystem refers to the value chain formed by separated or integrated players in different layers such as content, platform, network and device in the process of providing content to the viewers or users, the final consumers.

### **Slide 5 :**

ICT industry ecosystem has evolved dramatically. In the past, the components of CPND used to be vertically separated with the facility based, media specific structure. Now, with the integration of IP network, this vertical distinction has been blurred. Consequently, the existing legacy broadcasters, Internet companies such as Google, device manufacturers such as Samsung, and network providers are all entering

or trying to enter the OTT video service market which provides video through IP network.

#### Slide 6 :

OTT originally used to be a broad concept, referring to audiovisual service provided through best-effort Internet network. As you can see here, OTT market grew at a very rapid pace and is expected to have a market size of 37 billion dollar by 2017, accounting for 8 percent of the global video market. The OTT market in Korea is expected to reach about 400 million dollars by 2017.

#### Slide 7 :

As Internet based-services can be used not only on PC but also on mobile devices and TVs, OTT video service out of various OTT services is on the rise at home and abroad. As you can see here, many OTT video providers with slightly different characteristics including Netflix, Youtube and Hulu are currently in service, and operators with different formats are in service in Korea as well. In particular, OTT services provided by existing pay TV operators such as cable TV or IPTV are widely used in Korea. The spread of OTT video service is changing the existing video industry ecosystem while requiring the regulation framework to change.

## Slide 8 :

As such, OTT video service is on the rise with increasing number of users in Korea as well as at overseas. There are three reasons to it.

First is the broadband revolution in the mid 1990s to early 2000s. During this period, the Korean government actively deployed high-speed Internet and implemented 'Internet PC Penetration policies.' As a result, the distribution of broadband reached the highest level in the world.

Second is the Smart revolution between 2008 and early 2010 which had a dramatic impact on the global ICT industry. Since Apple introduced iPhone in 2008, companies of Korea, a mobile powerhouse, including Samsung and LG have been competing with global companies on a level playing field by introducing smartphones in domestic and global market.

The smartphone penetration rate in Korea stands at 83 percent (as of March, 2015) and is the fourth highest in the world following UAE(90.8 percent), Singapore(87.7 percent) and Saudi Arabia(86.1 percent), showing that smartphone is very widely used in Korea. Also, I would like to add that the global smartphone penetration rate was 24.5 percent in 2014, surpassing the PC penetration rate(20 percent).

Lastly, there have been changes in users which came with HW changes.



It can be concluded that in addition to these two changes in the ICT industry, the changes in the behaviors of Korean consumers from the traditional usage to on-demand, mobile and participating usage led to the wide usage of OTT video service.

## **Slide 9 :**

Now, let's look at policy issues following the spread of OTT video service.

## **Slide 10 :**

OTT video service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changes in the ICT ecosystem. Consequently, the spread of OTT video service can be considered as a challenge to regulatory organizations, making brand-new policy issues in the overall ICT ecosystem.

These OTT issues can be divided into many different categories, but from the industrial perspective, there are Intra-layer issues, covering issues related to intensifying competition in multi-point following the levelling-off of the market, and Inter-layer issues, represented by 'anti-competition' issues following the vertical connection of players in the value chain. From the regulator's perspective, characteristic of OTT issue is that it not only includes issues confined to the country's jurisdiction found in the traditional media, but also includes unprecedentedly complex global issues coming from the characteristic of Internet-based services.

## Slide 11 :

Let's look at some of the examples of policy issues related to OTT on this slide. In terms of Intra-layer issues, the asymmetric regulation issue between OTT providers and legacy video providers can be considered as a prime example. In Korea, OTT service providers are not considered as broadcasters according to the current Broadcasting Act and is considered as 'value-added common carriers' according to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s a result, the existing broadcasters are considered as public utility and are burdened with responsibility for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regulation, while regulation on OTT, considered as Internet service, is lax. The rapid spread of OTT is currently challenging the effectiveness of asymmetric regulation.

For regulatory organizations, how to impose balanced regulation and provide level playing field for the both operators lie as a huge challenge.

## Slide 12 :

There are also hot policy issues for operators in a different class of the value chain. Issues related to the net neutrality and retransmission are good examples.

With the spread of the OTT video service, represented by Netflix, the burden on network providers are getting bigger as well. As a result,

conflicts related to this issue can be found in the U.S. as well as in Korea. Meanwhile, conflicts in the process of resending or reselling content of existing operators owning competitive video content by OTT service have continued.

Last month, terrestrial broadcasters in Korea stopped providing their content to the OTT service provided by mobile network providers with large number of subscribers due to different opinions on the price of content, and I had a hard time dealing with it as the head of a regulatory organization.

### **Slide 13 :**

We have looked at some of the issues coming from the spread of OTT. As you have seen, the Korean government is responding to each issue such as conflicts between operators whenever it arises, but is also preparing for the coming changes on a more fundamental level. From now on, I am going to briefly talk about the Korean government's responses to the spread of OTT.

### **Slide 14 :**

The Korean government is implementing various measures to respond to the fundamental changes in the eco-system coming from the spread of OTT. The biggest change the spread of OTT is creating in the

broadcasting industry eco-system is that the viewership of existing terrestrial TV is now distributed among various media. Also, OTT is now a new platform competing with other existing platforms. To respond to these changes, the Korean government is carrying out the following measures.

First of all, combined viewer rating is being collected to be used as a standard for setting ad rates and VOD fees by getting an accurate status of viewership. On the other hand, we are working on measures to include OTT in the assessment of broadcasting market competition status. However, we are still focused on fostering industry instead of regulating it as OTT is an emerging business.

#### Slide 15 :

As you can see here, many countries are working on their own issues related to the spread of OTT.

For example, the EU has proposed a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principles to its member states.

It can be seen from the cases of many countries that regulation on OTT is lax compared to other broadcasters while there are movements to impose same regulation on operators in the same layer by dividing operators into content and carriage.

#### Slide 16 :

Now, let's look at the remaining tasks.

## Slide 17 :

As I have mentioned earlier, Korea is actively preparing for the changes brought about by OTT but there is still a long way to go.

First of all, the regulation system on OTT video service has not been properly set yet. As you can see here, the task is distributed among many different ministries and committees and related laws vary as well.

However, as it is a matter confined to Korea, I believe we can overcome it by gathering the wisdom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its people.

However(Nonetheless), there are some matters that cannot be solved just through the efforts of the Korean government.

## Slide 18 :

For example, as I have mentioned earlier, the spread of OTT is changing the industry eco-system. Various audiovisual services, which used to be separate in the past, are now converged and provided through diverse devices including TV and mobile devices without distinction. The vertical distinction has been blurred and every service has to compete on the same ground.

Consequently, there has been a call for a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which imposes same regulation on same services. Integrating regulatory organizations or combining different laws are not enough for this. This is because the spread of OTT means that the jurisdiction of media sector is no longer confined to a single country.

The spread of OTT has led to the extension of regional border of media industry. The fact that various Korean content is being consumed in the countries where you have come from even at this moment stands to this point.

I believe global responses including global jurisdiction is indispensable in regulating the Internet.

#### **Slide 19 :**

That is why global coordination is needed. That is the main idea that I wanted to present in my presentation.

#### **Slide 20 :**

The Asia-Pacific region is rising as the largest economic block in the world. It is an important region in the ICT industry as well as in OTT.

Korea has served as a global testbed for many fields in the ICT industry. I believe Korea is already serving that role in OTT video industry as well.

For this reason, I hope to prepare a new framework on the level of Asia-Pacific region with you so that the new ICT ecosystem can work properly in the spread of OTT. Issues faced by Korea are also faced or will be faced by other countries as well.

I hope that today's occasion will serve as the stepping stone for the global coordination needed for issues covered today. Also, I would like to say that the true OTT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is fully accomplished when coordination in co-production and co-distribution of OTT video service is made in addition to policy coordination.

This is the end of my presentation. Thank you for listening.

< 불 임 3 - 행사 사진자료 >



< ITU·MCMC 2015 아·태 규제자 라운드테이블 기념촬영 >



< 최성준 위원장 발제 >





## 5<sup>th</sup> ASIA-PACIFIC REGULATORS' ROUNDTABLE

24 - 25 August, 2015  
Kuala Lumpur, Malaysia

### Outcomes Report

Under the central theme: "Facing the Telecommunication/ICT Regulatory Challenges in the Digital Economy", the 5<sup>th</sup> Asia-Pacific Regulators' Roundtable (ITU-MCMC Regulators Roundtable) was successfully held on 24 - 25 August 2015 in Kuala Lumpur, Malaysia. The Roundtable was co-organized by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and the Malaysia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 (MCMC) with support from the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Malaysia and the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Government of Australia. 53 representatives from Regulators of more than 19 countries of the Asia-Pacific region participated in the discussions.

Dr. Halim Shafie, Chairman, Malaysia Communication and Multimedia Commission (MCMC), delivered the welcome remarks followed by the opening remarks from Mr. Brahima Sanou, Director Development Bureau of ITU. The high level participants held dynamic and strategic discussions to seek possible solutions and explore opportunities of potential collaboration to address at emerging regulatory issues and challenges. (The Remarks and details of the event are available [http://www.itu.int/en/ITU-D/Regional-Presence/AsiaPacific/Pages/Events/2015/Aug-RR\\_ASP/home.aspx](http://www.itu.int/en/ITU-D/Regional-Presence/AsiaPacific/Pages/Events/2015/Aug-RR_ASP/home.aspx)).

The highlights and outcomes of each session are provided below.

### SESSION 1: The Regulatory Challenge of Getting the Balance Right

**Session Chair:** Datuk Seri Dr. Halim Shafie, Chairman, MCMC

#### Brief objectives of the Session:

The Session aimed to cover the key trends and developments in technology, service offerings and markets, consumer ever-changing demands, business models, traditional vs. new- converged-era regulatory and policy practices, while focusing on four major scenarios:

- a) Evolving roles and competencies of telcos
- b) Cross-sector, multiple-jurisdiction services, markets and regulation in a borderless digital economy
- c) Consumer protection and education
- d) Striking a regulatory balance between rules and flexibility and between economic productivity and social and cultural imperatives .

#### Session interventions:

Indonesia, Singapore, Maldives, Australia, Korea, Pakistan

#### Session Highlights:

- Key issues influencing the sector are: new players, new business models and a displacement of revenues – this has an impact on regulation.

Report: 5<sup>th</sup> Asia-Pacific Regulators' Roundtable



- *Current regulatory challenges coming from fast paced technological developments include amongst others, "free" service offerings by OTT; changing demand of consumers; changing business models. Against the background of those trends, there are a number of issues, namely: the evolving role and competition between telcos where there is cross-sectoral convergence and a need for multiple regulation in a borderless digital society; regulation that needs to be balanced between rules and responsibility and between economic recovery and opportunity; and the need to position the country in the international ICT industry.*
- *Regulators agreed to consider collaborative regulation which is seen as a new trend as ICT has crossed into other sectors, e.g. banking, education, health, agriculture, etc.*
- *There may be need for regulators and policy makers to undertake review of their respective national telecommunication laws/policies/regulations to clarify/allow collaborative regulation.*
- *A number of Regulators have expanded their mandates to cover development aspects.*
- *Often the challenge in regulating is the underlying policy and regulation which is not always up to date*
- *Regulators need to put in place the right balance between:*
  - *Economic productivity and social/cultural imperatives*
  - *Affordability and sustainability*
  - *Accessibility and quality of service*
  - *Price, innovation and investment*
- *Regulators should look forward towards having resilience of networks against untoward incidences like fire etc. Some countries like Australia see this as out of scope of ICT regulators.*
- *Regulators should aim to foster innovation – no need to overregulate but rather to focus on creating an ecosystem for innovation and investment while promoting security and privacy.*

## **Session 2: Maximizing Opportunities, Addressing Fears on Big Data**

**Session Chair:** Mr. Leong Keng Thai, Director General (Telecoms), 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 (IDA)

### **Brief objectives of the Session:**

This session involved exchange of views and experiences on the benefits as well as risks of big data and the role of regulators in promoting big data and other new innovative services while ensuring safety, privacy and protection of consumers.

### **Session interventions:**

Samoa, Bhutan, Malaysia, Indonesia, Pakistan, Australia, Korea,

### **Session Highlights:**

- *40% data traffic growth year on year and even more as we move to IoT and smart cities require regulators to adapt to new market scenarios.*



- *Crowd sourcing for improving BB experience has been successfully implemented by Singapore*
- *Big data protection is a challenge growing with the exponential increase of data traffic.*
- *User centric approach would help in a new approach to tackle issues related to user privacy. A comprehensive national data governance framework may be needed and adopted in the future by national ICT regulators.*
- *Developing countries having limited financial and human capacity and relatively small market need to work together on regional/sub-regional basis to address the challenges that come with Big Data. The issues however remain the same whether the market is small or big.*
- *On usage of Big-data for national planning, an emerging trend is that the Governments/regulators are now considering data from Government sources as well as from non-governmental sources e.g. network operators to make management and future planning issues. For example the data coming from telcos can help in city planning, traffic management, analyzing the community needs (e.g. where the new shopping mall should be set up).*
- *Regulators should also be careful while planning/introducing future digital services in the market as relying on unstandardized technology platforms may result in small islands of digitally advanced communities rather than fully connected sustainable smart cities.*

### SESSION 3: Managing the Exploding Demand for and Economic Value of Spectrum

Session Chair: Mr. Richard Bean, Deputy Chairman, Australian Communications & Media Authority (ACMA)

#### Brief objectives of the Session:

This session discussed the issues related to spectrum management on which the spectrum managers need to formulate their stance on at some point. In particular, the session included discussions on issues related to spectrum planning, new approaches to spectrum licensing for future wireless services, spectrum economics and the new roles of spectrum management authorities in the digital economy.

#### Session interventions:

Iran, Myanmar, Malaysia, Cambodia, Bhutan, Pakistan, Lao P.D.R, Samoa

#### Session Highlights:

- *National Spectrum Regulators need to act in a transparent and internationally and regionally harmonized manner for medium to long term national spectrum planning approach.*
- *Refarming of existing bands (especially in Mobile BroadBand bands) should be given a similar footing to international activities of a national spectrum regulator related to new spectrum identification for same services.*
- *Making financial targets for granting market access on key Mobile Broadband (MBB) spectrum bands in particular may have short term economic benefits to country but for long term benefits the targets should be development of national ICT infrastructure in-line with latest trends and provision of latest technology for enabling applications and services to the general public. Public education, stakeholder engagements and working with different Governments agencies/ministries (especially*



*the Finance and national tax collectors) is essential to make sure that decisions are taken in favour of long term benefits.*

- *For efficient spectrum management and to counter spectrum hoarding, an approach of "use it or loose it" should be considered by spectrum regulators*
- *Considering a more appropriate approach for facilitating emerging technologies and services, regulators in the region are working towards unified national Spectrum Licensing framework.*
- *Cross-border interference issue is one of the key issues on which regional administrations should work on in future work at regional/sub-regional/bilateral level.*

#### **SESSION 4: OTT in the Telecommunication/ICT Ecosystem**

**Session Chair:** Dr. Syed Ismail Shah, Chairman, Pakistan Telecom Authority

##### **Brief objectives of the Session:**

This session discussed

- a) Different types of OTT services and providers, the differences between traditional telecom service providers and OTT players and related regulatory frameworks,
- b)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aced by ICT network operators and OTTs and how the opportunities can be maximized while addressing the challenges,
- c) How to engage OTTs and social media providers in more transparent procedures for data processing, in getting the customers' consent through opt-in before sharing their data and providing users with the option to clearly choose the status of their communications, between private or public
- d) Possible regulatory solutions and strategies that will promote sustainability of the whole ICT ecosystem which calls for new innovative solutions.

##### **Session interventions:**

Korea, Iran, Cambodia, Lao P.D.R, Bangladesh, Sri-Lanka, Indonesia

##### **Session Highlights:**

- *Considering the challenges and the competition that OTT provide to licensed operators, there may be three approaches of managing/regulating OTT **a)** Ban OTT **b)** Awareness to manage OTTs **c)** CMOs (Cellular Mobile Operators)-OTT partnerships. The latter approach may be applicable especially for countries that have low ARPU (Average Revenue Per User).*
- *Some OTT challenges are international in nature with issues relating to jurisdiction, copyrights, unfair trade, censorship etc., and for such cases should also be international in nature as majority OTT providers of a country may be operating from outside the boundaries of the an Administrations.*
- *The CMOs also need to go up in the ladder of network architecture from the lower physical and/or service layer to application layer and use their infrastructure to maximize advantages in their favour.*
- *Another approach of looking at OTT is as a internet user, this becomes especially true in cases where the networks are based on data rather than voice. Consequently, if the business model of CMOs/telecomm infrastructure providers is data-oriented, the proliferation/usage of OTT may mean more revenues for CMOs.*



- *Lawful interception of the OTT services currently is a challenge faced by regulators across the region especially when global OTT platforms have seen usages that may go against the national legal frameworks.*
- *Competition amongst OTTs offering similar services may be used by regulators to localize the operations and/or manage the OTTs*

## SESSION 5: Towards a Holistic Approach on Cybersecurity

**Session Chair:** Ms. Nur Sulyna Lim Abdullah, Chief Officer - Corporate Strategy

### Brief objectives of the Session:

Discussions during the session involved following topics

1. Exchange information and views on
  - a. Country experiences and best practices on the roles of ICT regulators and policy makers in the arena of cybersecurity
  - b. Need for inter-agency, government-industry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 c. Dealing with cross border threats and foreign jurisdictions
2. Possible recommendations on a holistic approach to promote a national and regional culture of cybersecurity/cyberwellness.

### Session interventions:

Indonesia, Lao P.D.R, Pakistan, Bangladesh, Singapore, Australia, Nepal

### Session Highlights:

- *Based on recent experiences, speed and diversity of cyber attacks is increasing; however the response time by Governments and Administrations needs more working while recognizing the fact that cyber criminals are borderless but administrations have laws and limitations of national boundaries. Hence an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s needed to reduce this advantageous position of cyber criminals.*
- *As technologies are evolving fast, the regulators need to review national legal frameworks regularly to address issues related to cybersecurity. As connectivity increases the vulnerability also increases.*
- *Apart from the traditional approaches in countering effects of cyber attacks, positive/alternative content development is one strategy regulators may consider as a response strategy.*
- *As the network usage has seen a shift from fixed to mobile, there exists a high probability of cybersecurity attack originating from a mobile platform making response job even more difficult.*
- *Many developing countries do understand that they have relatively low risks from and instances of cybersecurity attacks affecting national services and networks but on the other hand, they raise concerns that their national infrastructure may and has been used to host/launch the cyber attacks.*
- *Security awareness amongst general public is more difficult than technically countering cyber-attacks. To address this, a holistic approach to ICT proliferation should be adopted including amongst others a consideration that all national ICT projects address the challenges of cyber awareness.*



- *Role of regulators on cybersecurity is a grey area. In some countries this role of national regulators may only go upto cybersafety (including child online protection, cyber bullying etc.).*
- *Out of the box thinking, technological innovativeness, safety before remedy etc. may provide a way forward in address challenges related to cyber security*

## SESSION 6: Way Forward and Closing

**Session Chair:** Ms. Nur Sulyna Lim Abdullah, Chief Officer - Corporate Strategy

**Session Objective:**

Summarizing the outcomes of all the sessions of the Roundtable

**Panelists:**

- Dr. Syed Ismail Shah, Chairman, Pakistan Telecom Authority (PTA)
- Mr. Richard Bean, Deputy Chairman,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ACMA)
- Dr. Sadegh Abbasi Shahkooch, Deputy President Technical and Licensing affairs, 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 (CRA), Iran
- Dr. Rony Mamur Bishry, Commissioner, Indonesia Telecommunication Regulation Body (BRTI)

**Session Highlights:**

Technology and innovations have always moved faster than regulations. The exponential pace of change transforming the industry now threatens to overwhelm current regulatory policies, either stifling innovation and growth in a tangle of outdated regulations, or exposing consumers and operators alike to an uncontrolled gold rush beyond any ethical, competitive, quality, security or privacy controls. It is crucial for regulators to stay closer to the curve of technology and industry development, if not ahead of it, addressing changes and potential impact in a much timelier, more forward-thinking manner.

Perhaps no other industry calls upon its regulators to balance economic productivity against social and cultural imperatives as much as the ICT sector. Effective and relevant regulations in ICT sector which has cross sectorial impact is central to ensuring the unprecedented growth of economies, industries, societies and human development in the digital economy.

It is important tha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ITU support countries that need support in building institutional capacity and carry out the necessary advocacy and support. Regulators in the Roundtable thanked MCMC and ITU for organizing this year's Roundtable and highlighted the need for ITU to continue providing a similar platform for regulators to hold strategic discussions, sharing of information, real experiences and practices debate on possible solutions and opportunities for potential collaboration to address emerging regulatory issues and challenges. Responding to this, Chairman of Pakistan Telecom Authority (PTA) offered to host the Regulators' Roundtable in 2016.

XXXXXXX

---

# 2015 한-아세안 방송 콘텐츠 쇼케이스 주최

---

---

◆ 기 간 : 2015. 8. 24.(월) ~ 8. 25.(화)

◆ 장 소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Hyatt 호텔

※ 말레이시아 정부가 당초 쇼케이스 일정(24~25)을 연장 요청하여 실제로는 29일까지 진행함

---

# 목 차

## I . 쇼케이스 개요

- 1. 배경 및 목적 ..... 69
- 2. 행사 개요 ..... 70

## II . 행사 결과

- 1. 행사장 평면도 ..... 72
- 2. 회의장 내 영상 시연 ..... 73
- 3. 쇼케이스 전시관 ..... 74
- 4. 별도 전시관 ..... 76

## III . 참고자료

- 1. 프로그램 제출현황 (국내) ..... 77
- 2. 프로그램 제출현황 (아세안) ..... 81
- 3. 쇼케이스 프로그램 편성 현황 ..... 84
- 4. 홍보물 제작 현황 ..... 87

[첨부] 프로그램 안내책자 전체본



## 1.

## 배경 및 목적

## □ 배 경

- 박근혜 정부의 방송한류 확산 정책기조 시행 및 아시아 국가와 연대하여 아시아 방송콘텐츠의 가치를 세계에 공유하고 교류·확산을 위해 노력

⇒ 한-아세안을 넘어 아·태 방송콘텐츠 쇼케이스를 제안

## [참고] 대통령 말씀 ('15. 1. 15.)

- ▶ 대표적 한류상품인 방송 콘텐츠의 지평 확대를 위해 자원, 인재, 유통 채널 확보 등 필요한 정책들을 잘 마련해야 함.
- ▶ 콘텐츠는 그 자체가 훌륭한 수출상품이면서, 패션·식품 등이 동반진출할 수 있는 국가브랜드 제고 상품임. 새로운 경제영토를 개척하는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했으면 함

## □ 목 적

- 방송콘텐츠 교류 범위 확대를 통한 방송한류 확산 기반 구축
  - ※ 한·아세안 → 아시아·태평양으로 지역 확대
  - 제5차 ITU 아·태 규제자라운드테이블과 연계하여 쇼케이스 실시
- 아시아·태평양 38개국 방송통신 규제기관장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 2.

## 행사 개요

### □ 개 요

- 일 시 : 8.24.(월) ~ 8.25.(화), 1박 2일
- 장 소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Hyatt Hotel  
※ Grand ballroom 2 로비 및 별도 전시관 운영(Grand Residence 102)
- 참석자 : 제5차 ITU 아·태 규제자라운드테이블 참석자 (38개국 방송통신 규제기관장)

### □ 방송 쇼케이스 내용

#### ① 쇼케이스 영상

- 한-아세안 10개국의 대표적인 방송콘텐츠 수집(7.13.~8.5.)  
※ 총 10개국, 19개 방송사, 87편의 방송 콘텐츠 수집
- 수집한 전체 방송콘텐츠를 2가지 버전으로 편집  
※ i) 15분 분량 5개로 편집하여 쇼케이스 전시관에서 시연(①~⑤)  
ii) 전체 75분 분량으로 편집하여 DVD 제작 및 별도 전시관에서 시연

#### ② 쇼케이스 운영

- (회의장 내 영상 시연) 쇼케이스 영상을 규제자라운드테이블 회의장 안과 로비에서 시연하고 각국 규제기관장들에게 DVD 배포
- (쇼케이스 전시관) 라운드테이블 회의장 앞 로비에 쇼케이스 전시관을 설치(TV\*, 안내테이블 및 홍보 배너)하여 쇼케이스 영상 상영 및 상시 관람 장소로 운영 \* 삼성 UHD Curved 4대 (65" x 4)

- (별도 전시관) 별도 전시관을 마련하여 각국의 VIP 대상으로 편안하게 관람이 가능하도록 운영

8/23(일)	라운드테이블 프로그램	회의장내 영상시연	쇼케이스 전시관	별도전시관
09:00~	-	-	장비 설치 및 리허설	-
8/24(월)				
08:00~13:00	-	리허설	행사 준비	전시관 준비
13:00~13:30	등 록	-	①② 상영	상시 상영
13:30~13:40	환영사(MCMC)	-	상시 상영	
13:40~13:50	개회사(ITU)			
13:55~15:20	<세션 1>*			
15:30~15:45	Coffee Break	-	③ 상영	
15:45~17:00	<세션 2>	-	상시 상영	
8/25(화)				
09:00~10:30	<세션 3>	-	상시 상영	-
10:30~11:00	Coffee Break**	④⑤ 상영	④⑤ 상영	
11:00~12:30	<세션 4> 위원장님 발제	-	상시 상영	
12:30~14:00	오 찬	-	철 수	-
14:00~15:30	<세션 5>	-	-	-
15:30~16:30	Coffee Break	-	-	-
16:30~17:00	<폐회식>	-	-	-

\*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규제기관장들에게 쇼케이스 행사설명과 아·태지역 쇼케이스로 확대할 것을 제안(위원장님)

\*\* Coffee Break 시 회의장 안과 로비에서 영상 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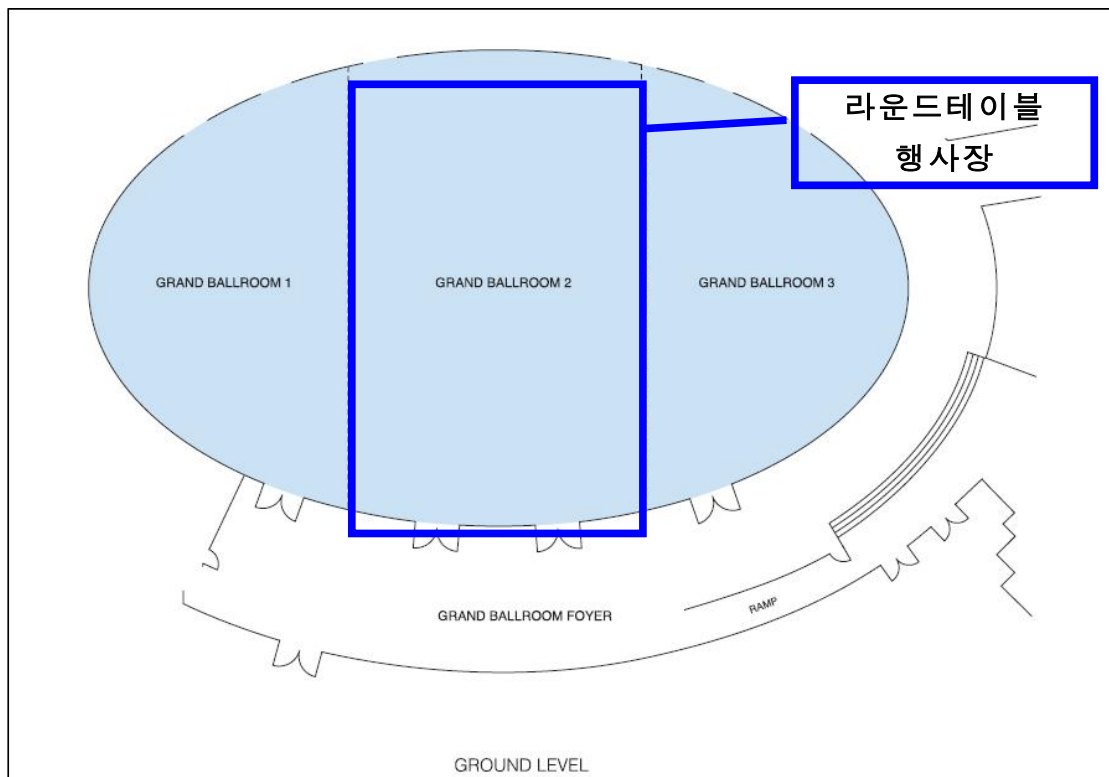
## II

## 행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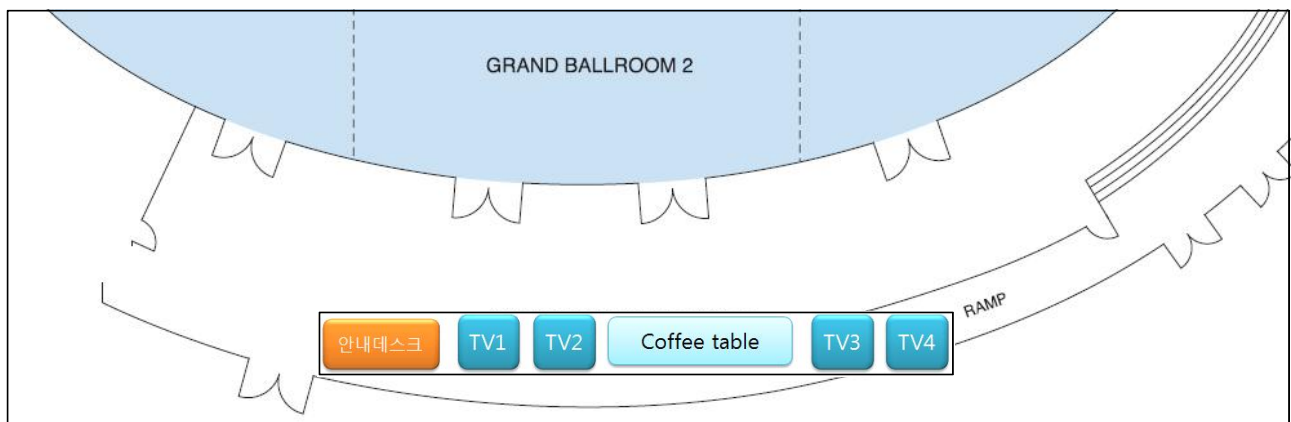
### 1.

### 행사장 평면도

#### □ 라운드테이블 행사장



#### □ 쇼케이스 행사장 위치 및 배치도



## 2. 회의장 내 영상시연

회의장 내 대형 Projector



회의장 테이블 앞 TV





### 3. 쇼케이스 전시관

안내 데스크



안내 데스크 구성



전시관 구성(65" UHD Curved TV 4대)



쇼케이스 시연 및 관람





#### 4.

#### 별도 전시관

별도 전시관 구성



MCMC 위원장 및 정부 관계자 방문





### Ⅲ

## 참고 자료

### 1.

### 프로그램 제출현황 (국내)

#### □ 총괄표

연번	방송사	장 르							
		예 능		드라마		다 큐		교 양	
		편수	시간(초)	편수	시간(초)	편수	시간(초)	편수	시간(초)
1	KBS	-	-	3	212	1	60	-	-
2	MBC	4	441	13	426	-	-	-	-
3	SBS	2	123	3	103	-	-	-	-
4	EBS	-	-	1	71	2	196	1	65
5	채널A	5	270	3	127	4	186	-	-
6	JTBC	2	51	2	147	-	-	-	-
7	MBN	5	25	-	-	-	-	4	22
8	TV 조선	1	63	2	129	-	-	-	-
9	CJ E&M	3	382	-	-	-	-	1	153
계	9개 방송사	22	1355	27	1215	7	442	6	240

※ 종합편성 채널은 ABC 순

## 1. KBS

연번	프로그램명	장 르	시 간(초)
1	파랑새의 집	드라마	통합파일 (272)
2	힐러	드라마	
3	착하지 않은 여자들	드라마	
4	요리人類	다큐	
	4개 작품		272

## 2. MBC

연번	프로그램명	장 르	시 간(초)
1	밤을 걷는 선비	드라마	통합파일 (867)
2	화정	드라마	
3	맨드롱또뜻	드라마	
4	여자를 울려	드라마	
5	여왕의 꽃	드라마	
6	앵그리맘	드라마	
7	딱 너같은 딸	드라마	
8	위대한 조강지처	드라마	
9	킬미힐미	드라마	
10	전설의 마녀	드라마	
11	장밋빛 연인들	드라마	
12	왔다 장보리	드라마	
13	투웬스	드라마	
14	복면가왕	예능	
15	마이리틀텔레비전	예능	
16	진짜사나이	예능	
17	무한도전	예능	
	17개 작품		867

### 3. SBS

연번	프로그램명	장 르	시 간(초)
1	너희들은 포위됐다	드라마	37
2	별에서 온 그대	드라마	37
3	유혹	드라마	29
4	런닝맨	예능	65
5	정글의 법칙	예능	58
	5개 작품		226

### 4. EBS

연번	프로그램명	장 르	시 간(초)
1	천불천탑의 신비, 미얀마	다큐	통합파일 (340)
2	빛을 삼킨 뱀	다큐	
3	숲 속 수사대 명탐정 피트	교양	
4	플루토 비밀 결사대	드라마	
	4개 작품		340

### 5. 채널A

연번	프로그램명	장 르	시 간(초)
1	갈데까지 가보자	다큐	30
2	곰배령	드라마	47
3	관찰카메라 24시간	다큐	38
4	니깸놀	예능	73
5	분노왕	예능	46
6	싸인	다큐	43
7	웰컴 투 돈월드	예능	49
8	웰컴 투 시월드	예능	47
9	이제 만나러 갑니다	예능	55
10	탈북	다큐	75
11	판다양과 고슴도치	드라마	50
12	해피앤드	드라마	30
	12개 작품		583

## 6. JTBC

연번	프로그램명	장 르	시 간(초)
1	순정에 반하다	드라마	103
2	하녀들	드라마	44
3	비정상회담	예능	27
4	냉장고를 부탁해	예능	24
	<b>4개 작품</b>		198

## 7. MBN

연번	프로그램명	장르	시 간(초)
1	동치미	예능	통합파일 (47)
2	아궁이	예능	
3	알토란	예능	
4	엄지의 제왕	예능	
5	천기누설	예능	
6	나는 자연인이다	교양	
7	기막힌이야기 실제상황	교양	
8	현장르포 특종세상	교양	
9	휴먼다큐 사노라면	교양	
	<b>9개 총괄 작품</b>		47

## 8. TV조선

연번	프로그램명	장 르	시 간(초)
1	매직홀	예능	63
2	자운수 대통	드라마	60
3	최고의 결혼	드라마	69
	<b>3개 작품</b>		192

## 9. CJ E&M

연번	프로그램명	장 르	시 간(초)
1	너의 목소리가 보여	교양	153
2	갯잇뷰티	예능	127
3	한식대첩	예능	120
4	삼시세끼	예능	135
	<b>4개 작품</b>		535

## 2. 프로그램 제출현황 (아세안)

### □ 총괄표

연번	국 가	방송사	프로그램 수(편)	시 간(초)
1	캄보디아	(TVK) NATIONAL TELEVISION OF CAMBODIA	1	213
2	인도네시아	Metro TV Indonesia	1	205
3	라오스	(LNTV) Television Nationale Lao	1	913
4	말레이시아	(RTM) Radio Television Malaysia	11	196
5	미얀마	(MRTV) Myanma Radio and Television	1	480
6	필리핀	(PTV) People's Television Network	1	204
7	싱가폴	(MDA) Media Development Authority	5	429
		Media corp	1	329
8	태국	PPTV	1	67
9	베트남	(VTV) Vietnam Television	2	379
계	9개국	10개 방송사	25	3,625

### 1. 캄보디아

연번	프로그램명	방송사	시 간(초)
1	People of TVK	(TVK) NATIONAL TELEVISION OF CAMBODIA	213

## 2. 인도네시아

연번	프로그램명	방송사	시 간(초)
1	360	Metro TV Indonesia	205

## 3. 라오스

연번	프로그램명	방송사	시 간(초)
1	Lao Land Lao People	(TNL) Television Nationale Lao	913

## 4. 말레이시아

연번	프로그램명	방송사	시 간(초)
1	I got it	(RTM) Radio Television Malaysia	40
	Penang 2 <sup>nd</sup> Bridge		19
	KVMRT		14
	Lantai Cilik(Final) First Season		16
	SYAHADAH		27
	13 DAYS SEMPORNA		14
	DRIFT KING		11
	FRUITIRAMA		9
	HEAVEN WITHOUT LOVE		12
	WINTER SNOW OF NAMINARA		13
	AMARKALA DEEPAVALI		16
	11개 작품		196

## 5. 미얀마

연번	프로그램명	방송사	시 간(초)
1	방송사 홍보영상	(MRTV) Myanma Radio and Television	480

## 6. 필리핀

연번	프로그램명	방송사	시 간(초)
1	PTV News Program	(PTV) People's Television Network	204

## 7. 싱가포르

연번	프로그램명	방송사	시 간(초)
1	Against The Tide	(MDA) Media Development Authority	83
	Family Wanders		55
	Raffles Revealed		117
	Days of Disaster		112
	Kung Fu Girls		58
2	Transformation of Media Corp	Media corp	329
	6개 작품		756

※ MDA 제출영상 1개 內 5개 프로그램이 있음, 그중 1-3, 1-4가 영어 처리됨

## 8. 태국

연번	프로그램명	방송사	시 간(초)
1	Season ASEAN	(NBT) National Broadcasting Services of Thailand	67

## 9. 베트남

연번	프로그램명	방송사	시 간(초)
1	Vietnam Discovery	(VTV) Vietnam Television	281
	Fine Cuisine		98

### 3. 쇼케이스 프로그램 편성 현황

#### 1. DVD - I

상영시각 : 8.24.(월) 13:00 ~ 13:15

연번	프로그램명	국가	방송사	시 간(초)
1	-	인도네시아	Metro TV	163
2	요리 인류	대한민국	KBS	59
3	밤을 걷는 선비	대한민국	MBC	30
4	화정	대한민국	MBC	30
5	맨도롱또똥	대한민국	MBC	31
6	여자를 울려	대한민국	MBC	24
7	여왕의 꽃	대한민국	MBC	35
8	앵그리맘	대한민국	MBC	34
9	-	캄보디아	TVK	138
10	니깎놀	대한민국	채널 A	64
11	분노왕	대한민국	채널 A	37
12	웰컴 투 돈 월드	대한민국	채널 A	40
13	매직홀	대한민국	TV조선	54
14	자운수대통	대한민국	TV조선	55
15	최고의 결혼	대한민국	TV조선	69
계	15개 작품			962

#### 2. DVD - II

상영시각 : 8.24.(월) 13:15 ~ 13:30

연번	프로그램명	국가	방송사	시 간(초)
1	-	말레이시아	RTM	193
2	너의 목소리가 보여	대한민국	CJ E&M	135
3	천불천탑의 신비, 미얀마	대한민국	EBS	82
4	빛을 삼킨 뱀	대한민국	EBS	99
5	-	라오스	TNL	188
6	너희들은 포위됐다	대한민국	SBS	22
7	별에서 온 그대	대한민국	SBS	31
8	유혹	대한민국	SBS	24
9	진짜사나이	대한민국	MBC	60
10	무한도전	대한민국	MBC	35
계	10개 작품			911

#### 3. DVD - III

상영시각 : 8.24.(월) 15:30 ~ 15:45

연번	프로그램명	국가	방송사	시 간(초)
1	-	필리핀	PTV	165
2	순정에 반하다	대한민국	JTBC	79
3	하녀들	대한민국	JTBC	38
4	비정상회담	대한민국	JTBC	16



5	파랑새의 집	대한민국	KBS	64
6	힐러	대한민국	KBS	64
7	착하지 않은 여자들	대한민국	KBS	71
8	-	미얀마	MRTV	119
9	복면가왕	대한민국	MBC	54
10	마이리틀텔레비전	대한민국	MBC	80
11	갈때까지 가보자	대한민국	채널A	21
12	관찰 카메라 24시간	대한민국	채널A	29
13	싸인	대한민국	채널A	34
14	탈북	대한민국	채널A	59
계	14개 작품			919

#### 4. DVD - IV

상영시각 : 8.25.(월) 10:30 ~ 10:45

연번	프로그램명	국가	방송사	시 간(초)
1	-	태국	NBT	34
2	딱 너같은 딸	대한민국	MBC	33
3	위대한 조강지처	대한민국	MBC	30
4	킬미힐미	대한민국	MBC	35
5	전설의 마녀	대한민국	MBC	21
6	곰배령	대한민국	채널A	38
7	판다양과 고슴도치	대한민국	채널A	43
8	해피앤드	대한민국	채널A	22
9	-	싱가폴	MDA	284
10	런닝맨	대한민국	SBS	57
11	정글의 법칙	대한민국	SBS	52
12	한식대첩	대한민국	CJE&M	101
13	삼시세끼	대한민국	CJE&M	113
계	13개 작품			898

#### 5. DVD - V

상영시각 : 8.25.(월) 10:45 ~ 11:00

연번	프로그램명	국가	방송사	시 간(초)
1	-	싱가폴	Media corp	163
2	숲 속 수사대 명탐정 피트	대한민국	EBS	56
3	플루토 비밀 결사대	대한민국	EBS	66
4	장밋빛 연인들	대한민국	MBC	33
5	왔다 장보리	대한민국	MBC	30
6	투웬스	대한민국	MBC	32
7	-	베트남	VTV	238
8	웰컴 투 시월드	대한민국	채널A	39
9	이제 만나러 갑니다	대한민국	채널A	47
10	MBN예능모음	대한민국	MBN	24
11	MBN교양모음	대한민국	MBN	24
12	갯잇뷰티	대한민국	CJE&M	96
계	12개 작품			882

## □ 영상 편집기준

- o 국가를 알 수 있도록 표시 필요(ex. 왼쪽 상단 국기 표시)
  - o 편집 버전
    - (컨퍼런스장 시연용) A type : 15분 x 5개(① ~ ⑥)
    - (DVD 제작용) B type : ① ~ ⑥ 통합 버전(90분)
  - o 세부 편집 기준(A type)
    - 해외 2개국 + 국내 지상파 2편 + 국내 종편 2편(편당 2~3분)
  - o 편집 장르 순서 : 음악 → 다큐 → 드라마 → 예능 → 시사 등 기타
- ※ 해외물의 경우 적합한 장르가 없으면 장르 순서에 상관없이 앞쪽으로 배치하고 편집 순서는 콘텐츠의 분량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전체적으로 soft한 콘텐츠와 hard한 콘텐츠가 번갈아 나오도록 배치

구 분	편집 순서					
①	인니	K4	M1~6	캄보디아	C8~10	T1~3
②	말련	CJ1	E1~2	라오스	S1~3	M16~17
③	필리핀	J1~3	K1~3	미얀마	M14~15	C1~4
④	태국	M7~10	C5~7	싱가폴	S4~5	CJ3~4
⑤	싱가폴1	E3~4	M11~13	베트남	C11~12	MB1~2, CJ2

## 4. 홍보물 제작 현황

### □ 프로그램 안내책자 (500부)



### □ DVD 제작 현황 (300부)



## □ 플래카드 · 배너 설치 현황

### < 홍보물 디자인 >



### < 걸 개 >



### < X-배너 >



### < 현수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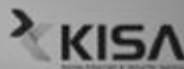


[첨부] 프로그램 안내책자 전체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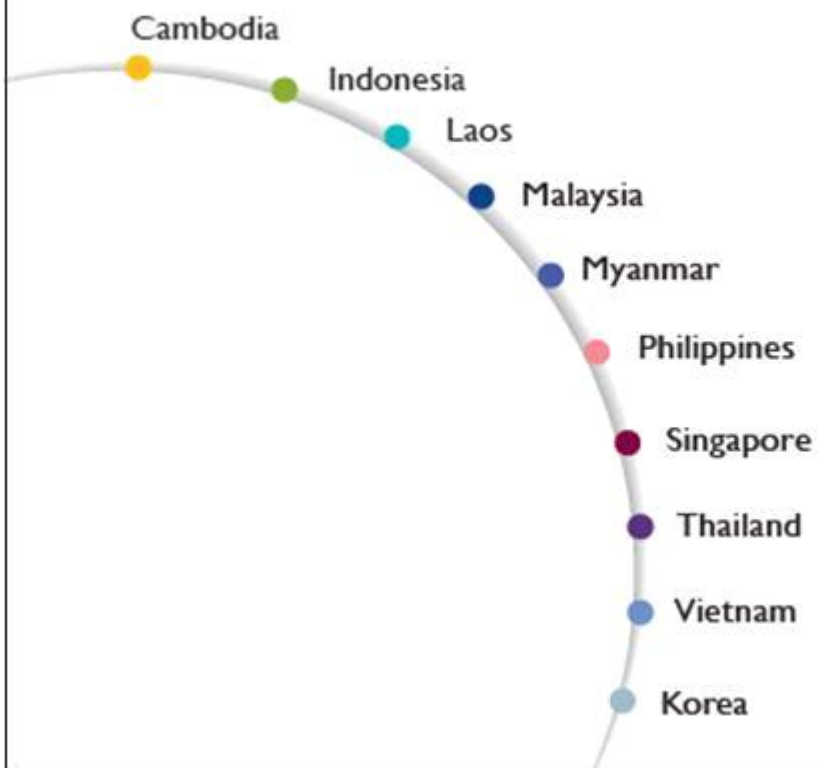


Republic of  
**ASEAN-KOREA**  
**BROADCASTING**

# Content Show Case 2015



Republic of  
**ASEAN-KOREA**  
**BROADCASTING**



ASEAN-REPUBLIC OF KOREA BROADCASTING CONTENT SHOWCASE

# 01 | ASEAN



Cambodia  
Indonesia  
Laos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Vietnam





## Cambodia

### BROADCASTING STATION



TVK

### GENRE

Documentary

### PROGRAM

People of TVK

### SYNOPSIS

TVK is called The National Television of Cambodia. TVK constitutes as the only government in the country, which provide direction on the promotion of education and professional media across the country and to the world.

TVK has many applications services such as TV Forums, Roundtable Discussions related social, Policy, Advocacy, Environment, Economic, Trade, Culture, etc.

TVK is the only one state television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and the first in the country. TVK created in 1966, originally advertised as exhibit white – black. After 20 years later, TVK has developed both the readability of the staff reporters and technology, and broadcast almost throughout the country and clearly to 126 countries in the world.

In addition to produce and broadcast in station, TVK has many other missions to serve to attract viewers, such as live streaming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events.

About 200 people are working for TVK. Speaking from experience of staffs and officers, TVK are experienced through courses and technical expertise in the field of audiovisual media abroad.

TVK's reporters and presenters have general knowledge and experience commentary full of professionalism.

TVK is split into 5 departments:

1. Local and International News Department
2. Program Production Department
3. Technical Division
4. Oversea Broadcasting Department



Within a five-year plan from 2011 to 2016, TVK is changing and developing to TVK The NATION – WIDE Project which all the broadcasting in provinces has to be broadcasted from the central station (TVK Phnom Penh Center) within the regional programs that produced by sub-regional station. TVK is looking for FUND to implement the PROJECT. In development strategy plan TVK will construct new sub-regional station in 6 provinces was: Siem Reap, Koh Kong, Odor Meanchey, Kratie Province, Svay Rieng, Kampong Thom Province

Contact with TVK  
www.tvk.gov.kh  
Email: wadhkhmer@gmail.com  
atitya\_kh@yahoo.com





## Indonesia

### BROADCASTING STATION

METRO TV Metro TV

### GENRE

Documentary

### PROGRAM

360

### SYNOPSIS

360 is the leading weekly documentary program in Metro TV, Indonesia. It has been aired since February 2012, and received 2 awards from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One of the awards is the ABU prizes 2014. Moreover, this program is featuring 3 stories in 60 minutes. That's why it got its name.

In 360, each producer is responsible for one story, as the Reporter and the Host as well. The story itself may vary from humanity issues, social issues, environmental issues, health issues, etc. However the main goal of all issues is to raise awareness, expand viewer's horizon, and make a contribution to the society. For Instance, as featured in the trailer, we helped an Indonesian-blood woman from France to find her biological Mother in Indonesia. Without enough legal documentation as she was adopted "illegally" since she was an infant, we still managed to unite her with her biological mom and family.

Furthermore, as also featured in the trailer, we make stories about inspiring or even controversial profiles. From the awardee of CNN Hero award, to the notorious cannibal in Indonesia.

Trailer details:

First story : an Indonesian-blood woman from France seeking her biological Mother.

Second story : interview with Indonesian notorious cannibal.

Third story : environmental analysts predicted that Jakarta will be drowned in 2050.





Fourth story : one of the biggest volcanic mountain in Indonesia after its massive eruption.

Fifth story : CNN Hero awardee from Indonesia.

Each story begin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Producer/Reporter/Host who made the story. The trailer is ended with a thank you note for all Indonesians who made all the stories possible.



#### STATION INFO.

Metro TV is Indonesia's first 24-hour news channel, based in West Jakarta. The station was established on 25 November 2000 and now has over 53 transmission sites all over the country. It is owned by Surya Paloh who also owns the Media Indonesia daily. These two, along with other newspapers distributed in different parts of Indonesia, are part of the Media Group.

It is the only TV station to offer Mandarin news and no sinetron (soap opera) programs in Indonesia, although recently the station has also begun to broadcast entertainment and multicultural programs such as the tech show "e-Lifestyle," the satirical news and current affairs show "Republik Mimpi" (The Dream Republic), musical programming such as Musik + and Idenesia, and other special or regional programming.



## Laos

### BROADCASTING STATION



TNL

### PROGRAM

Lao Land Lao People

### SYNOPSIS

This program talk about **EVENTS & FESTIVALS IN LAOS**

Laos cerebrates many annual festivals called “Boun” in Lao Language which are particularly enjoyable and beautiful, signifying traditional aspects of Lao lifestyle. Most festivals are connected with religion and the yearly rice farming cycle. The timing of the festivals is calculates according to the Buddhist lunar calendar, thus changed every year. Please check the latest information before visiting these events.

**Pii May Lao or Lao New Year**

The Lao people celebrate their New Year, Pii May (pronounced Pii-My) or Kut Songkaan according to the ancient Hindu calendar, which falls around April 13, 14, or 15 in the Gregorian calendar. The celebration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important and biggest traditional festival in the country. The festival coincides with the end of the dry season and the start of the monsoon season. It is seen as a day of rebirth and purification.

According to a Lao legend, the Pii May celebration started after Thao Kabinlaphrom lost his life in a bet to a man named Thammaban Khuman. Thao Kabinlaphrom was not able to solve a three-part riddle. Per his request, his seven daughters (representing each day of the week) took great care not to let his severed head touch the ground or there would be great destruction throughout the world. The head was kept at Mt. Sumeru until Pii May of each year when each daughter would take turns cleansing it. Today, this story is reenacted during the Lao New Year celebration. The community chooses one female to represent Nang Sangkhan one of the seven sisters, to lead a procession or parade while showcasing a replica of Thao Kabinlaphrom on a ceremonial tray called Khan.

Pii May Lao is a three-day event. The first day is called Sangkhan Luang ( ສັງຂັນລູ່ງ ) or the last day of the old year. This is the day when people clean their houses in preparation for the New Year. On this day, people earn merit and blessings by building mounds of sand, usually on the river banks and temple grounds, which are then





decorated with small triangular flags, flowers, money and candles. This day falls on Sunday April 13th in 2014.

The second day is called Sangkhan Nao ( ສັງຂານນາວ ), which is the day between the old and the New Year (This day is considered neither to be part of the old year or the New Year). Sangkhan Nao is also known as the day of rest, which means all work is forbidden. Only fun activities should take place such as visiting relatives and friends, taking a day trip or the customary throwing of water on friends and passersby. At night time, there is usually a Lamvong ( ລາມວົງ ) or circle dancing party and everyone dresses their best to partake in the celebration. Plenty of food and drinks are available well into the night. This year, Sangkhan Nao is only one day long and falls on Monday, April 14th.

The third day of the Lao New Year is called Sangkhan Kheun Pii May ( ສັງຂານຂຽນປີໝໍ້ ). It is the start of the New Year and is the most joyous day of the festival. People go to the temple and make offerings to gain merit. Young people prepare scented water with flowers and visit their grandparents, parents, and elders. They rinse the elders' hands with the water and ask for their blessings and forgiveness for any wrong-doings in the past year. At home they engage in a special family ceremony called the Suukhwan ( ສຸກຊົນ ) or Baci ( ບາຈີ ) to welcome the New Year in which participants then take turns tying the blessed white strings around each other's wrists to wish them good luck and prosperity for the New Year. For 2014, the Lao New Year day falls on Tuesday, April 15th.

#### ROCKET FESTIVAL

The festival is a call for rain and a celebration of fertility. In the afternoon, people gather in the fields on the outskirts of villages and towns to launch self-made firework rockets. Different communities compete for the best decorated and the highest travelling rocket. Men disguised as women perform vaudeville acts using wooden phalli in order to anger the gods. As revenge, the gods are expected to send thunderstorms.

#### Asalahaboucha Day and Boun Khao Phansa Festival (Buddhist Lent)

The beginning of the Buddhist Lent. During the next three-month period, monks spend most of their time in prayer, meditation and restricted from spending nights in other temples other than their own.

#### That Luang Festival and Trade Fair in Vientiane Capital

This religious festival is held in and around That Luang Stupa, the national symbol of Laos. It is a three-day religious festival celebrated at full moon in November. It begins with a pre-dawn gathering of thousands of pilgrims from Laos and Thailand at That Luang who listen to prayers and sermons chanted by hundreds of monks all representing Lao wats.





## Malaysia

### BROADCASTING STATION



### STATION INFO.

Radio Televisyen Malaysia is a Malaysian public broadcaster. It has 36 radio and three television stations in Malaysia, based in Kuala Lumpur. RTM is the first broadcaster in Malaysia. RTM started broadcasting radio on 1 April 1946, and television on 28 December 1963. The first two radio stations are Radio Malaya (in Malay) and The Blue Network (in English). The transmitters were located first in Singapore and later in Kuala Lumpur (opened in 1950).

With the independence of Malaya on 31 August 1957 Radio Malaya was split into two separate stations; the original studios in Singapore was taken over by a new station called Radio Singapura and Radio Malaya moved to Kuala Lumpur going on air from the new location on 1 January 1959. It would be later renamed Radio Malaysia on 16 September 1963 with the transmissions beginning with its trademark words Inilah Radio Malaysia (This is Radio Malaysia) on the day the Malaysia of today was born. Television services under the name Malaysia Televisyen or Malaysia Television (Malaysia TV) started on 28 December 1963 in time for the national New Year celebrations in Kuala Lumpur and regional telecasts in the Klang Valley in Selangor state, with its first studios being located in Jalan Ampang. The then 10-month-old Television Singapura (launched on 16 February 1963) became part of Malaysia Televisyen as its state station for Singapore viewers, a role served until 1965, when Singapore became independent.

Radio and TV operations merged in 1968 as the new Angkasapuri headquarters was inaugurated. Thus Radio Malaysia and Televisyen Malaysia's identities merged to become Radio Televisyen Malaysia (Radio Television Malaysia, RTM) in





1969. A second TV station opened also in the same year as its rebranding, and in 1971 Radio Malaysia became the first radio station to broadcast 24 hours a day, nationwide, thus becoming Rangkaian Nasional (National Network) in the process.



RTM has begun broadcasting in color since 1978 in Peninsular Malaysia and 1980 in Sabah and Sarawak.



Between 1972 and 1999, RTM shared time with TV Pendidikan, the national education channel, in the daytime. TV1 introduced daytime transmissions in 1994 thus resulting to TV Pendidikan ceased broadcasting on TV1, while TV2 introduced daytime transmissions in 2000. TV1 has broadcasted overnight many times since the early 1990s, but daily 24-hour transmissions did not come until 2003, which were later cancelled. Permanent 24-hour broadcasting was introduced in 2006 on TV2, and 2012 on TV1.



Angkasapuri Complex shows' rapid development has begun in broadcasting for both radio and television. The list of



National radio stations in RTM are Radio Klasik, National FM, Traxx FM, Ai FM, Minnal FM and Asyik FM. There are 2 main television channels in RTM such as TV1 and TV2 while one television channel, TVi which broadcast in Astro. Now, RTM is providing a wide range of public reach parallel with the technology advancement such as MyKlik, 1News, RTM News Portal and Electronic Programme Guide to enhance an effective services to the consumers.





## Myanmar

### BROADCASTING STATION

MRTV

### GENRE

Promotional Video

### SYNOPSIS

The program is aimed to show how Myanmar is transforming towards truly democratic nation.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hanges have already taken place in Myanmar. Foreign investment is flowing in banking, trading, mining and agricultural sectors. The Govt led the changes and achieved some successes.



### STATION INFO.

Myanmar Radio and Television (Burmese: မြန်မာ့ရေဒီယိုနှင့် ရုပ်မြင်သံကြား, abbreviated MRTV), formerly the Burma Broadcasting Service (BBS), is the parent of state-run Myanmar Radio National Service, and a television channel. The television channels are broadcast from its broadcast center in Kamayut, Yangon. The radio service is now broadcast primarily from Naypyidaw.

Radio service in Myanmar first came on air in 1936 during the British colonial era. Regular programming by Bama Athan began in February 1946 when the British established Burma Broadcasting Service (BBS), carrying Burmese language national and foreign news and musical entertainment, knowledge reply and school lessons and English language news and music programming. After independence in 1948, it was named Myanma Athan (Burmese: မြန်မာ့အသံ; also meaning Voice of Burma, but



with the more formal term "Myanmar"). The service was renamed Myanmar Radio by the military government which came to power in 1988. The junta also renamed the radio service's parent, BBS as Myanmar Radio and Television (MRTV) in 1997.

Until the launch of Yangon City FM in 2001, BBS/Myanmar Radio was the only radio station in the country. For years, its main broadcast center is at 426 Pyay Road in Kamayut in Yangon. Since late 2007, the main broadcast station has moved to Naypyidaw. Yangon Station now mostly relays Naypyidaw Station's programming.

Television service in Myanmar was first introduced in 1979 as a test trial in Yangon. MRTV was first launched on 3 June 1980, and regular television service was first formally launched in 1981. In 2005, MRTV had 195 television relay stations throughout the country.

In October 2013, MRTV started broadcasting on digital terrestrial with DVB-T2, same as Thailand. 14 channels are on MRTV multiplex, such as MRTV, MRTV Entertainment, MRTV-4, Channel7, Readers Channel, Farmer Channel, Hluttaw Channel, MITV, MNTV. MRTV plans the news interface, to the modern style of starting sequences and will have well-decorated news room. The broadcasting hours also increased to 18 hours (previously 10 hours).



## Philippines

### BROADCASTING STATION



### STATION INFO.

#### BRIEF PROFILE OF THE PEOPLE'S TELEVISION NETWORK, INC.

The People's Television Network (PTV Network) is the Philippine government television network. Established in 1974 as GTV-4, it was the TV broadcast arm of the government's National Media Production Center. In 1980, GTV-4 evolved into the Maharlika Broadcasting System. It was renamed People's Television 4 in 1986 following the People Power Revolution. It became a government-owned and controlled corporation with the name People's Television Network, Inc. (PTNI) by virtue of Republic Act 7306 signed by President Corazon C. Aquino on April 17, 1992. On March 18, 2013, President Benigno Simeon C. Aquino signed Republic Act 10390, an Act Revitalizing the People's Television Network, Inc, amending the PTV Charter to allow PTV's generation of funds from advertising and airtime sales which shall be utilized solely for its operations and capital expenditure.

As the government television network, PTV serves as the States' primary medium for effective communic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It serves as a vehicle for massive education and information dissemination of the programs and advocacies of the various departments of government.

#### BRIEF DESCRIPTION OF PTV NEWS PROGRAMS:

##### PROGRAM

NEWSLIFE

##### SYNOPSIS

The only English late-night newscast of PTV packed with the day's top stories, both local and foreign with Mr. Robert Tan, Ms. Cathy Untalan and



Ms. Isabella Montano as anchors.

**TIMESLOT :** 9:15PM – 10:30PM

**DAYS :** Mondays to Fridays

**LANGUAGE :** English



**PROGRAM**

**NEWS@6**

**SYNOPSIS**

News updates and developing stories on primetime weeknights. Anchored by Ms. Ria Fernandez, Mr. Ralph Obina and seasoned newscaster, Ms. Kathy San Gabriel.

**TIMESLOT:** 6:00PM – 7:00PM

**DAYS :** Mondays to Saturdays

**LANGUAGE :** Filipino



**PROGRAM**

**NEWS@1**

**SYNOPSIS**

PTV's flagship afternoon news program that ushers in a balanced mix of national and global news plus information on business, sports, traffic, law and culture. Anchored by Mr. Kirby Cristobal and the first Muslim anchor on national newscast, Ms. Princess Habibah Sarip.

**TIMESLOT:** 1:00PM – 2:30PM

**DAYS :** Mondays to Saturdays

**LANGUAGE :** Filipino





## Singapore

### BROADCASTING STATION

mda MDA

### PROGRAM

Raffles revealed

### SYNOPSIS

Raffles Revealed is a landmark series packed with adventure, intrigue, conflict and tragedy. Exploring the untold story of Sir Stamford Raffles, founder of modern Singapore, presenter Dr Julian Davison follows his footsteps around the world. Examining Raffles' greatest achievements and darkest deeds, we uncover this extraordinary life. Hero or villain? Dr Julian reveals all.



### PROGRAM

Days of Disaster

### SYNOPSIS

Days of Disaster is a five part landmark series that charts momentous events that shaped modern Singapore. A plane hijacking, industrial catastrophe, massive fire and crippling water crisis are all brought vividly to life with high quality drama reconstruction, CGI and exclusive eyewitness accounts – many told for the very first time.



## BROADCASTING STATION

*MEDIACORP* Media corp

### STATION INFO.

MediaCorp is a Singapore-based media company with the most complete range of platforms, spanning television, radio, newspapers, magazines, digital and out-of-home media.

From its humble beginnings in 1936 as then Singapore's first radio broadcast station, the latter has evolved into the MediaCorp of today. It has become a leading broadcaster in Asia with media offerings spanning multimedia platforms which include television, print, interactive media, out-of-home media, movie productions as well as other businesses. Today, MediaCorp has over 50 products and brands in four languages (English, Mandarin, Malay and Tamil), reaching out to virtually all adults in Singapore every week.

MediaCorp's delivery of quality content has gained international recognition through its multitude of international accolades, including its wins at the Asian Television Awards and Taiwan's Golden Horse Awards. With the liberalisation of the media industry, it continues to enhance its position as a market leader poised to further engage audiences.

Beyond Singapore, MediaCorp is an active regional player through co-productions in TV dramas and movies, magazines publishing, as well as Channel NewsAsia International, one of the first Asian-owned English news channels.

Our strategic collaborations in the region include Kapanlagi Network, an Indonesian digital native company with the largest lifestyle, news and entertainment media. MediaCorp has majority share in Cubinet Interactive, a Malaysian digital games publisher, and owns a stake in Reebonz, one of the region's fastest growing luxury online retailers as well as Vietnam television's International Media Corporation.

Winner of numerous international awards and accolades including Asian Television Awards' Terrestrial Broadcaster of the Year, MediaCorp's mission is to engage, entertain and enrich audiences by harnessing the power of creativity.

At MediaCorp, we believe in creating value for our stakeholders through purposeful collaboration, open and trusting relationships, and striving for excellence in everything we 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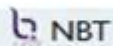






## Thailand

### BROADCASTING STATION



### STATION INFO.

NBT is a television station in Thailand owned and operated by the National Broadcasting Services of Thailand (NBT), a division of the Thai Government. NBTTV is now broadcasting for 24 hours a day effective April 2008.

The broadcasting of TVT11 began on 11 July 1988 when TV9 (currently known as Modernine TV) split into two channels. It is aimed at viewers in the countryside. Some elements such as sex and violence are censored as NBT is one of the government departments.

NBTTV is also available over the TrueVisions direct broadcast satellite platform on channel 5. (Preent Broadcasting on Channel 14)

On 1 April 2008, this channel began to broadcast in 24 hours daily, offering more programmes for viewers who stay up late to watch television.

On 1 April 2008, TVT11 television stations were once again restructured by Dr.Mun Pattanothai the then Information Minister. TV11 got a new name: NBTTV.

Educational Television programmes were aired through this channel from 1988 to 1999, alternate with TV9 in the afternoon until 1994 where it



airs in the morning. Daytime programming on TV9 started in 1 March 1994 has caused ETV to be broadcast only on TV11.

NBTTV and the radio stations under National Broadcasting Services of Thailand broadcasts from their headquarters in Din Daeng, Bangkok.

NBTTV currently broadcasts under (Very High Frequency) band III, although some parts of Thailand it transmits the signal in UHF where it is normally tuned to band 2. In the Bangkok Metropolitan Area the VHF channel for TV11 is 11, with a weaker transmission on channel 10 in certain parts of the Bangkok Metropolitan Area. It is also available over the NBTi test DVB-T transmission over 658 MHz, SID 2. As of 1 January 2007, it is also available over a test DMB-T/H transmission on Band III.

NBT World is the network's 24/7 English language television service aimed for Thai, ASEAN and Asian communities broadcast Internationally via cable and satellite.



#### (Recent Issue)

NBTC(National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announced that by the end of this year, 2015, residences in Ubon Ratchathani, Koh Samui and some areas in Chiang Mai should change their television antennas to digital receivers to watch free TV channels because the process of switching off the analog system is about to begin. As NBTC set to start analog switch-off, NBT will stop airing its NBT channel (formerly known as Channel 11) in 2017. Though Thai PBS, TV5 and NBT channel plan to stop their analog services completely by 2018, two market leaders, Channel 7 and Channel, will continue their analog transmissions until their broadcasting concession contracts end.





## Vietnam

### BROADCASTING STATION



### SYNOPSIS

In this video, we feature 2 programs including Vietnam Discovery and Fine Cuisine. The first segment is about Phu Quoc island, a Vietnamese island off the coast of Cambodia in the Gulf of Thailand, known for its white-sand beaches and resorts, most of which are along the palm-lined southwest coast. The second segment is picture of the life circle of a silkworm. The third segment is Fine Cuisine program which features green young rice, a specialty of Hanoi in the fall.



### STATION INFO.

Founded in 1970, VTV is a government agency and has a broadcasting network covering all over Vietnam and provides services via satellites in most of the areas in the world. 6 nationwide free-to-air channels, 5 regional free-to-air channels and hundreds of pay TV channels are offered and nearly 4,000 employees are working for VTV.



VTV is maintaining and developing relationships with nearly 30 television stations and over 10 international TV organizations

Multilateral cooperation :

During 40 years of development, VTV has established and is expanding formal partnerships with broadcasters, media conglomerates in all continents of the world. In Asia, VTV maintains close multifaceted cooperation with NHK, TBS, NIKKEI, JICA (Japan), KBS, Arirang TV, CJ (Korea), CCTV (China), MediaCorp (Singapore), Thai PBS, MCOT (Thailand), DDI (India),

TRT (Turkey), etc.

With strong growth momentum and great attempt of more than 4000 employees, VTV is determined to build a dynamic VTV, to open with the region and the world and to have a firm position in the world.

1. Expanding the network, increasing the influence

According to the network expansion strategies, VTV plans to open more representative offices in highly-concerned areas like Asia, Europe, America, Middle East, etc.

VTV also builds domestic production centers in the North West, Central Highlands, the North East and the Central of Vietnam.

2. Restructuring the organization by specializing the teams and the contents

The center for sports programs and center for weather forecast and disaster warning was launched in 2013. After that, the center for economic information and some other centers will soon go into operation.

By 2020, VTV is expected to rise the number of free-to-air channels into 9 (24-hour broadcast). In detail, VTV7 will a training channel, VTV8 will be a cultural channel and VTV-World will be a national diplomatic channel in English, French, Russian, Chinese, Laos , South Korean and Germany, etc.

3. Adopting modern technologies in producing and broadcasting

The entire process from pre-production, post-production to broadcasting and storage is planned to be digitized by 2015. By 2020, the channels will be in HDTV standard.

In addition, VTV will also extend diplomatic broadcasting via DTH, cable and IPTV and cooperate to produce Vietnamese broadcast in foreign countries.



ASEAN-REPUBLIC OF KOREA BROADCASTING CONTENT SHOWCASE

02 |

## **KOREA** **Terrestrial TV** **Broadcasting**



KBS  
MBC  
SBS  
EBS



BROADCASTING STATION

KBS  KBS

PROGRAM

HOUSE OF BLUEBIRD

SYNOPSIS

“House of Bluebird” is a family series that illustrates the stories of diverse families and the growth of the youth amid their continuous efforts to overcome the current social situation of “unemployment, retirement, conflicts between the haves and the have-nots.”

The series is a cheerful and beautiful family drama that awakens the preciousness of our nearby family just as the title “Bluebird” symbolizes, through the stories of maternal love that goes beyond blood ties, and the stories of parents and children struggling in the reality of the ‘Sampo’ generation (the generation that gives up three things : courtship, marriage, and childbirth).



PROGRAM

HEALER

SYNOPSIS

<Healer> is a TV series featuring the younger generation who think words like ‘politics’ and ‘social justice’ are just meaning less to them, grow through the hardships their parents’ generation left them and the conflicts between truth and belief.

The series describes a story of three young people. A mysterious messenger who steals the secrets of others at night, an online newspaper reporter who works hard not to be a ‘yellow journalist’, and a popular news reporter who agonizes over the truth of a past incident. When these three people meet, a passionate romance starts and the truths from the past and present reveal themselves to the world.



**PROGRAM****UNKIND LADIES****SYNOPSIS**

"Unkind Ladies" features four women of three generations living in the same family trying to live through their lives with the people around them. Ma-ri grows up to be a good instructor of this generation where there is no true mentor. Hyun-sook, who has been a troublemaker, realizes the love and support of her family. Soon-ok regards herself as unlucky, but later on finds how happy she has been. How can you hold up when your life gets tough? You will figure it out by holding up day by day, just like these unkind ladies in the series.

A trouble maker of Kim's family Hyun-sook loses all the money that her mother Soon-ok gave her to open a restaurant. To cover up the loss, Hyun-sook decides to visit a gambling place thinking that this is the only way to solve the problem at once. At first, it seems that the goddess of fortune has smiled on her. But soon the police suddenly break in to the place. Running away in a hurry, she thinks of what has made her life come to this situation, and reminds of her past. As soon as the tension is gone, she blacks out and falls to the ground. When she recovers her senses, there is a woman who seems to be her mother's age. After a few remarks, Hyun-sook notices who this woman is and gets so flustered.

**PROGRAM****FOOD ODYSSEY****SYNOPSIS**

Food Odyssey is a new style of documentary about "Food", a mutual interest of 6 billion world citizens. From the Sahara to the North Pole, the program travels all over the world to reveal the unlimited human creativity and the secret of civilization contained in food. Directed by Lee Wook-jung, a chef from Le Cordon Bleu and the winner of Peabody Awards for the film Noodle Road, Food Odyssey will meet your intellectual needs and also satisfy your five senses at the same time. Finding amazing world of cooking, let's start adventures to the living cultural sites of human food!







**BROADCASTING STATION**

**MBC** MBC Drama Introduction

**PROGRAM**

The Scholar Who Walks the Night

**SYNOPSIS**

In Joseon Dynasty, immaculately dressed in scholarly robes, the young nobleman Kim Sung-ryeol lives as a vampire to keep his promise to his friends. When Sung-ryeol still was a human, he found out about the vampire Gwi who sits above the King deciding the next royal line and has resurrected as a vampire trying to fight against Gwi. And now, he is living as a guardian vampire fighting against the evil vampire without losing his human nature.



**PROGRAM**

Warm and Cozy

**SYNOPSIS**

A man and a woman hit by setbacks and spurned by lovers meet one another on Jeju Island.

The woman needs time to nurse her wounds after her career and relationship implodes.

The man is still smarting from a bad relationship that has closed his heart.

When together, they become themselves again, warm and friendly.

Neither too hot nor cold.

This TV miniseries is about two people recovering from their life troubles to bring warmth back into their lives. Gun-



woo is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the Great Gatsby who was hopelessly in love with Daisy and sacrificed everything.

But then Gun-woo faces an obstacle in pursuing his love interest.

It's time for him to make a stand.

He will save his Daisy from all of her troubles.

As he finds himself inextricably linked with a blunt and coarse woman who has no idea what true love is, he finds that he has a soft spot for her.

Warm and mild...



## PROGRAM

Don't Make Her Cry

## SYNOPSIS

One difference that separates humans from animals is that people have emotions.

So describing the emotions of different characters in a TV drama is an important part of the storytelling process.

What is it like for a person to love another person?

What is it like for a person to forgive another?

This TV drama is made with the premise of influencing people to become gentler and stronger human beings.



BROADCASTING STATION

 **SBS** SBS

PROGRAM

**RUNNING MAN**

SYNOPSIS

What are the most famous landmarks in Korea? Top celebrities show themselves visiting landmarks, and they must escape from there before dawn, carrying out missions all over place. With popular celebrities' continuous running and fierce battle, hidden part of landmarks in Korea reveals itself.



PROGRAM

**Law of the Jungle**

SYNOPSIS

Survival game is being played among the top stars of Korea in destinations far from civilization! Complete the survival mission in the nature in the participants' own way and carry out the life mission with the native tribe demonstrating the law of survival in the wildness.



PROGRAM

**Temptation**

SYNOPSIS

This drama has gained great attention because of the pair up between Sang-woo Kwon and Ji-woo Choi who are reunited after their hit together on SBS's "Stairway to Heaven" eleven years ago. "Temptation" is a story about a





desperate man who takes up a proposal that cannot be reversed. The characters seek the meaning of true love through complicated relationships surrounding one man and three women.



#### PROGRAM

My Love from the Star

#### SYNOPSIS

The idea of this drama came from wild imagination. We live in sad times during which we don't know who lives next door, a time when lonely deaths no longer make news. Who knows, but maybe my own neighbor is an adorable alien from outer space? And is it so outrageous to think that a sweet miracle-like romance is right around the corner...with that alien?



#### PROGRAM

You're All Surrounded

#### SYNOPSIS

People who believe in the goodness of our world; People who believe that law and principle reigns above injustice and immorality : This drama is about such people. Four young police detectives who get assigned to serious crime unit spend the best days of their lives together. The drama is about inexperienced love, wounded hearts, healing and friendship.



K O R E A  
Terrestrial TV Broadcasting



BROADCASTING STATION

EBS  EBS

PROGRAM

Myanmar, Ancient Mysteries Revealed

SYNOPSIS

The hidden pearl of Asia revealed for the first time ever, the largest archaeological site in the world!

Myanmar is still an unknown land to most of us. In decades of political turmoil, its rich traditions and history as the world's largest Buddhist nations have been hidden to the rest of the world. It is the "land of pagodas", home to about 5 million Buddhist pagodas nationwide, making it the world's largest archaeological site and the pride of Asia.

Marco Polo himself marveled at the beauty of Myanmar, referring to it as the land of gold.

Bagan is one of the world's three largest historical sites of Buddhism along with Angkor in Cambodia and Borobudur in Indonesia of the 13<sup>th</sup> century Buddhist Renaissance. This program lays out the glories of ancient Myanmar culture and architecture and the 1,000-year-long Bagan dynasty for the first time in full HD3D video.



PROGRAM

Snakes - Secrets of Nature's Deadliest Creatures

SYNOPSIS

This documentary is about snakes, which are not only feared by people but also found to be intriguing to some. For centuries, snakes have evolved as sinister animals in the human psyche. However, in this show, snakes demonstrate their ingenious adaptation to life on earth.

"Snakes - Secrets of Nature's Deadliest Creatures" is shot in various locations throughout the world from the forests of Canada to the jungles of Indonesia.



Through breathtaking close-ups of these deadly creatures as well as amazing slow motion photography which captures them in action, we tell the story of these often feared and rarely appreciated animals.

This program will shatter many common beliefs that humans hold about snakes. Snakes are quite beautiful and magnificent animals that deserve to be regarded in a less negative light.

#### PROGRAM

PEET – the Forest Detective

#### SYNOPSIS

The great nature embraces the mysterious secrets. How much do we know about the animals and their ecosystem? An insect on thornbush, trembling leaves, slippery sand trap – unpredictable things happen in our everyday lives.

The remarkable activities of 'The Forest Detectives' - passionate PEET, cursory BABA and clumsy MOLLY - make on-the-spot survey on animals, plants and insects, collect evidences and investigate. They are sometimes entrapped and are trailed by horrid animals, but 'The Forest Detectives' never give up. <PEET - the Forest Detective> is a docu-animation with vivid real scenes and 3D characters of fun and easy learning for children!



#### PROGRAM

Pluto Secret Detectives

#### SYNOPSIS

'Pluto Secret Detectives' is a children's version of "Sherlock Holmes" where the children solve various crimes and problems that occur in their village and school against the backdrop of the refreshingly cool ocean. It is a procedural drama that covers crimes involving children that have recently come to the fore as serious social issues like child kidnapping,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cyber crime and more.





ASEAN-REPUBLIC OF KOREA BROADCASTING CONTENT SHOWCASE

03

**KOREA**  
**General-Programming**  
**cable channels &**  
**Program Provider**



CHANNEL A  
JTBC  
MBN  
TV CHOSUN  
CJ E&M

## K O R E A

General-Programming cable channels



### BROADCASTING STATION



CHANNEL A

### PROGRAM

Gom Bae Ryung

### SYNOPSIS

'Gom Bae Ryung,' a small town in Korea, is also known as "Heaven's Garden." Jung Jae-in, the main character, marries with a man with two daughters regardless of her father's opposition. Although Jae-In became a mother of two daughters, her beauty and pure characteristic never goes away.

After marriage, however, Jae-In's happiness doesn't last long as her husband gets swindled. As her husband gets imprisoned, she fights for her husband's debts.

Heaven's Garden draws a life of people living in Gom Bae Ryung town. Conflicts between town people and new comers make the drama even more dramatic.



### PROGRAM

24 Hours Observation Camera

### SYNOPSIS

It's a new version of documentary-style program which discovers what is curious to many people. For 24 hours, 8 cameramen work on same issue, but from different angles, then record very thoroughly on what's around certain facts. As 8 cameras record from different viewpoints, the program covers and delivers various knowledge. It not only brings knowledge to TV viewers, but also enhances acknowledgement and value of certain places or facts.



**COMPANY NAME**

JTBC

**PROGRAM**

Chef &amp; My Fridge

**SYNOPSIS**

Cooking with ingredients hidden in a celebrity's fridge and in just 15 minutes. Famous chefs have cooking battles one on one to capture the celebrities' taste. Weekly celebrity guests' fridges are brought to the studio. The fridge contents offer a glimpse into the everyday lives of the celebrities and serve as the starting point of amusing changes and discussions. Celebrity chefs and chef-like celebrities are given just 15 minutes to create a dish that captures the guests' taste but with just the ingredients in the guest's fridges. After tasting the competing dishes, the guests pick the winner. The competition among the chefs grows fiercer with each passing episode.

**PROGRAM**

Beating Again

**SYNOPSIS**

Min-ho is a cold-blooded corporate raider who takes no prisoners. He is an investment banker for Gold Investment, the world's largest financial service firm outwardly. As a sociopath, he wears down people with his tenacity and takes advantage of people with his delusions of grandeur. However, Min-ho has his own story that explains why he became an evil, his uncle's betrayal. His father was overthrown by his uncle and it made his family hit the bottom of their lives. As Min-ho vows to get revenge, he meets Soon-jung, a daughter of his father's former secretary who betrayed his father. One day, Min-ho gets a heart attack and is taken to the hospital. At the same time a young detective at the hospital too. The detective is Dong-wook, Soon-jung's fiancé. Min-ho miraculously survives his heart attack after getting a heart transplant but he also undergoes a profound change in his personality. He talks differently and warms up to people. He gradually learns the meaning of happiness when he finds a woman whom he wants to cherish and protect.



BROADCASTING STATION

**MBN** MBN

STATION INFO.

MBN entertainment programs have redefined the Korean TV entertainment industry!

Produced a popular rating in entertainment programs such as <Golden egg>, <Dongchimi> and <Furnace>. Those programs have received higher viewing rating compared to similar programs on the public channels.



<The Lord of Thumb> and <The Profound Secret> have created a number of most searched key words and became the popular health television programs.

MBN Education program will enrich and heal your souls!

Our programs such as <I am from the nature> and <As we live> have provided an amazing healing experience to viewers who lead hectic lifestyles.

<Real report, International breaking news> and <Amazing story, Real situation> have boldly and honestly criticized issues that needed to be tackled.





**BROADCASTING STATION**

TV CHOSUN TV CHOSUN

**PROGRAM**

Love and Marriage

**SYNOPSIS**

A leading anchor and a role model for many, Ki Young is pregnant with Tae Yeon's child. Tae Yeon is a free-spirited food columnist. However, Ki Young is against the expected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a Korean marriage system and wishes to become a single mom instead of tying the knot with Tae Yeon. Meanwhile, Eun Cha is seeking for a comeback after he's been off-screen due to a sex scandal. The company is convincing Ki Young to step down as the main anchor after her single mom announcement, and Eun Cha is planning to take over. But he is surprisingly attracted to Ki Young who is fighting for her rights as a single mom.

**PROGRAM**

Lucky Guy

**SYNOPSIS**

Jee Woon Soo has a 7-year-old car that is barely running and this is all he's got. One day he buys a lottery ticket on a whim after he catches a glimpse of his colleague, Cha's daily random lottery text message. And what are the odds! He won 12 million dollars! But now he is in the biggest dilemma of his life. Should he share this news with his family who won't leave his money alone? Meanwhile, Cha is trying to prove that he is the owner of the prize and is chasing after Woon Soo. 'Lucky Guy' is an entertaining family drama around Jee Woon Soo and following the transformation of his life when he becomes the owner of the huge pot of money.







**BROADCASTING STATION**

CJ E&M

**PROGRAM**

Three meals a day

**SYNOPSIS**

Two men get out of the city to prepare a healthy and decent meal all day.

An anonymous guest, whom the two men have to cook for, appears and spends the night with the hosts.

The two men have to make meals out of things that they have in the house. For example, Milk a goat to make cheese, Grind coffee beans to brew coffee, Light a fire to cook rice.

Ingredients like meat can be offered by the staff. However, the hosts have to pay it back by providing labor for the community.



**PROGRAM**

Dish of the Nation

**SYNOPSIS**

Chefs from different areas compete with local pride!

They compete with their special native dishes using local reserves and ingredients.

Experience exhilarating cook-off with unknown but great local foods!

Three amazing judges visit different areas to find the best local chefs and invite them to 'Dish of the Nation'.

Team-Work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in 'Dish of the Nation'.

Chefs from different areas represent their localities and compete with local pride.



Republic of  
**ASEAN-KOREA**  
**BROADCASTING**

*Content*  
*Show Case*  
2015

**Malaysia 8. 24. ~ 8. 29. 2015**



## 중국 일정

---

◆ 기 간 : 2015. 8. 26(수) ~ 8. 27(목)

◆ 방문기관 :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인터넷정보판공실  
신문출판광전총국

---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방문

□ 일시 /장소 : '15.8.26(수) 13:30~14:30,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내 접견실(베이징)

□ 면담자 : 루 웨이(魯炜, Lu Wei) 주임(장관급) 등

### 〈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개요 〉

- **설 립** : 인터넷 정책 및 규제 전담 업무를 전담하는 부처로 '11.5월 국무원 신문판공실 내에 설치, '14.8.26에 조직을 개편하였으나 새로운 기구는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 내용의 관리감독 법률집행권을 추가
- **역할 및 기능**
  - 인터넷과 관련된 정책과 법률 제정, 중점 뉴스사이트의 기획 및 인터넷 홍보, 인터넷 정보, 뉴스, 콘텐츠(인터넷 게임, 동영상, 인터넷 출판물 등도 포함)의 관리감독 업무 담당
  - 관련 부서의 인터넷 업무 관리감독 및 불법 사이트 처리권한 보유, 중앙과 지방의 인터넷정보 관리 강화를 위한 편의제공 등 인터넷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인터넷과 관련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

### ○ 주요 내용 요약

- 최성준 위원장과 루 웨이 주임은 한국과 중국 간의 인터넷 윤리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협력 현황 등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 정부기관 간 정책 공조의 필요성과 의의를 확인
- 향후 양 기관 간 MoU 체결, 개인정보 유출 방지, 건전한 인터넷 문화 확립, 온라인 콘텐츠의 적법한 유통 등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

□ 세부 면담내용

### 【양 기관 간 MoU체결 등 협력 강화】

- (방통위) '한-중 인터넷협력센터'등을 통해 양국 인터넷 분야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인터넷판공실측의 많은 지원에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양 기관 간 MoU가 체결되길 바램

- (인터넷판공실) 양 기관 간 인터넷 윤리 분야 등에 관한 MoU체결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빠른 시일 내에 실무적 협의를 거쳐 체결 되길 바람
- 해킹, 개인정보보호 등은 양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해결과제임
- 인터넷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특히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 기조이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대응이 필요함
- 아울러, 양국이 적극 협력하여 인터넷 분야의 각종 역기능을 방지해 나갈 것을 제의함

#### 【인터넷 분야 협력의 의의】

- (방통위) 양 기관 간에 인터넷 관련 포럼 개최, 네티즌 간 친목 강화, 개인정보보호 분야 협력, 선플운동 지원 등 많은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
- (인터넷판공실) 인터넷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의 친선과 우호 증진을 위한 효과적 방안이 될 것임
- 양국이 서로에 대한 신의를 키워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인터넷 안보, 디지털 통신 등 분야에서 적극적 협력이 가능할 것임



## 【양국의 건전한 인터넷 문화 구축】

- (방통위) 올바른 인터넷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근거 없는 비방 및 악플을 삭제조치하는 중. 편리하고 유용한 인터넷이지만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 국민의 인식 개선 등을 위한 협력이 필요
- (인터넷판공실) 건전한 인터넷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온라인 상에서 상호 국가를 비방하는 내용이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며 선플달기 캠페인이 이에 적합한 활동이라고 생각함
  - 아울러, 이 외에도 실용적이며 양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활동이 이루어지길 기대함

## 【방통위-인터넷판공실 간 협력 형태】

- (방통위) MoU체결 외에도 양 기관 간에 정례적인 교류가 있길 희망함
- (인터넷판공실) 인터넷정보판공실은 기존에 미래창조과학부 (구 방통위때 시작)와 ‘한-중 인터넷 원탁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방통위와는 또 다른 형태의 협력이 가능할 것임
  - 특히 초청기관측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로 상호 대표단의 정기적 방문을 장려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함

### 〈 한-중 인터넷 원탁회의 개요 〉

- 일정/장소 : ‘15.12월(예정) / 중국 베이징
- 근 거 :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외교채널을 통해 양국 인터넷 협의체를 제안, 양국 간 협의를 통해 구성  
- 중국은 미국(07년), 영국(08년), BRICs(12.9) 등과 인터넷 협의체를 운영
- 수석대표 : 한국 미래부 장관 -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주임
- 성 격 : 양국 간 인터넷분야 협력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양국 정부·기관·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포럼 형태
- 의 제 : 인터넷 정보/인적 교류, 인터넷 범죄 퇴치, 인터넷 인프라 및 개인 정보보호, 인터넷 정책,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 인터넷 기업 간 협력 등
- 개최현황 : ‘12년부터 2회 개최 (1차 : ‘12년 북경, 2차 : ‘13년 서울)

### 【양국 네티즌 간 우호적 관계 조성】

- (방통위) 인터넷 상의 근거 없는 비방으로 양국의 우호관계에 장애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임
- (인터넷판공실) 양국 네티즌 간 관계가 좋아야 양국의 우호가 보다 증진될 수 있음
  - 물론 양국은 법제도 및 체제 상에 차이가 있어 동일한 형태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양국의 네티즌들이 서로에 대해 비방하지 않는 성숙한 윤리의식이 필요하다고 봄
  -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타인에 대한 비방은 특히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길 바람

### 【개인정보 유출 방지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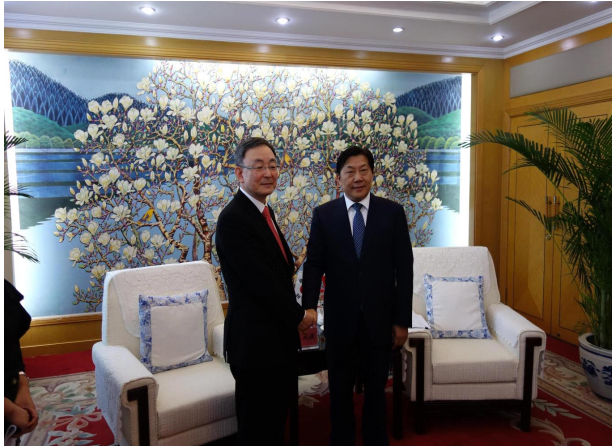
- (방통위) 해커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 및 기관이 최대한 효과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

- (인터넷판공실) 중국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서버의 일부가 위치하고 이를 통해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한국측의 요청 내용에 따라 본 기관에서 적극 대응조치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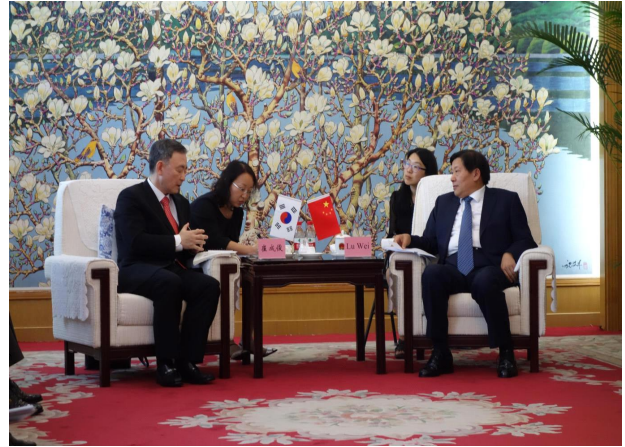
#### **【온라인 상 콘텐츠 불법 유통 대응】**

- (방통위) 한-중 FTA상에도 양국 내 저작권 보호에 관한 내용이 있는 만큼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를 위한 중국 정부 차원의 관심을 요청함
- (인터넷판공실) 본 기관에서는 중국의 일부 사이트에서 콘텐츠의 불법유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이 사실상 어려움
  - 이 문제 역시 개인정보 문제와 동일하게 한국의 협조요청이 있다면 적발 즉시 적법하게 처리하겠음
  -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법으로 규정된 중국 정부의 중요한 핵심 책무이며, 비록 해당 업무의 소관이 여러 기관으로 분할되어 있지만, 그것에 관계없이 인터넷 관련 분야라면 본 기관에서 조치가 가능함
  - 아울러 방통위의 요청대로 향후 각 사이트 내에 유통되는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실효적 지침을 적극 검토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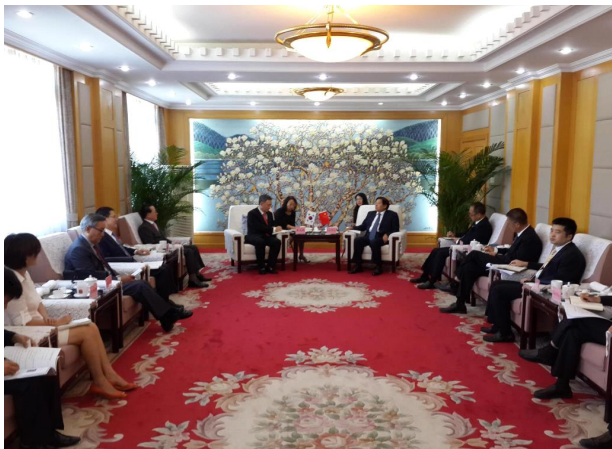
< 불임 - 면담 사진자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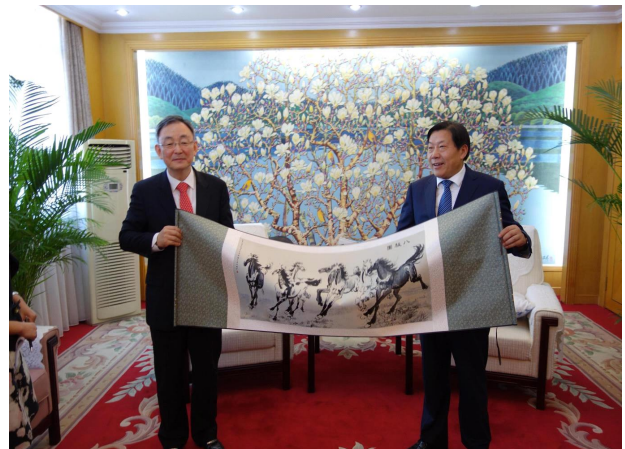
< 인터넷 판공실측 환영인사 >



< 양 기관 간 협력 방안 논의 >



< 개인정보보호 및 인터넷 윤리 분야 협력 논의 >



< 면담기념 선물교환 >



< 면담기념 선물교환 >

##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방문

□ 일시 /장소 : '15.8.26(수) 14:30~15:30, CCTV 내 접견실(베이징)

□ 면담자 : 웨이 디춘(魏地春, Wei Dichun) 부사장 등

### 〈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개요 〉

- CCTV는 중국 국영 방송국으로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 매체
  - CCTV의 전신은 Peking Television(北京电视台)이며 1958년 9월 2일 정식방송을 시작하여, 1978년 5월 현재 명칭인 CCTV(中国中央电视台)로 사명을 변경
- CCTV는 무료 공중파 채널 22개와 19개의 유료 디지털 방송 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전역에 방송 서비스를 제공 중
  - 2008년 디지털 지상파 방송 및 HD방송을 개시, 2012년 1월 1일부터 3DTV 시범 방송을 개시
  - 뉴미디어 사업자 CNTV를 설립하고 Web TV, IPTV, 모바일 TV, 차량용 TV 등의 사업에도 진출

### 0 주요 내용 요약

- 최성준 위원장과 웨이 디춘 부사장은 양국 간 방송 분야 콘텐츠 및 인력, 기술 협력 현황 등 정보를 공유하고, 방송 업계 간 공동제작 등 협력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과 의의를 확인
- 향후 CCTV와 한국 방송업계, KOBACO간 협력사업과 정기적 교류 채널 마련을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

□ 세부 면담내용

### 【한국 방송업계와의 협력 상황】

- (방통위) 근래 한-중 양국의 방송 분야에서 어느 때보다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CCTV측의 협력 상황 및 향후계획은?
- (CCTV) CCTV도 한국의 KBS, MBC, SBS, EBS 등과 뉴스 제작, 포맷 공동개발 등에서 꾸준히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음



- 대표적인 예로 CCTV와 KBS가 서울과 베이징에서 교차로 개최하는 협력회의가 있음
- 아울러 CCTV와 KBS가 '99년부터 교차로 제작하는 '한-중 가요제'는 '16년에 17회차 행사가 개최될 것이며, 특히 이번에는 9개 팀이 국적에 관계없이 참가하여 서로 경연하는 방식으로 구성할 예정임
- o (CCTV) 올해 5월 13일에 KBS 조대현 사장이 CCTV를 방문\*하여 상호 뉴스 교환, 역량 혁신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한 바 있음
  - \* KBS 조대현 사장, '15. 5. 13 베이징에서 CCTV 니에 첸시 사장 면담
- CCTV과학채널은 KBS와 다큐멘터리 '임진왜란'을 공동제작한 바 있으며, 현재는 제작이 완료되어 내년 중 방영할 예정임
- MBC와는 다큐멘터리 '기후의 반란'을 공동제작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촬영이 내년 중에 종료될 예정임
- 통상 이와 같은 공동제작 프로젝트는 양측이 절반씩 투자하고 이에 비례하여 소유권을 나눠갖는 방식임
- o (CCTV) CCTV와 한국 방송업계 간 관계는 어느 때보다 돈독하며 방송 분야 교류를 통해 양 국민들 간의 이해와 우호가 보다 증진되리라 기대함
- 이번 면담을 통해 방통위가 양국의 방송 협력활동을 적극 지원해주시길 바람

#### 【CCTV-KOBACO 간 협력】

- o (방통위) CCTV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간 광고제작 분야에서의 협력이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결과물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 바람

- (CCTV) CCTV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간 협력은 현재 원활하게 진행 중이며 방송 분야 국영기관 간에는 우수한 공익 광고 제작이 상호가 협력하기에 매우 적합한 분야라고 생각함
- 특히 공익광고의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효(孝)는 중국 문화의 핵심이며, 한국의 콘텐츠 중에서도 이를 소재로 한 작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사회가 급변할수록 효와 같은 전통요소의 유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디어를 통한 관련 내용의 전파가 효과적일 것임

#### 【양국 간 공동제작의 필요성】

- (방통위) CCTV와 한국 방송업계가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 공동제작물을 만든다면 세계 각지로 뻗어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함
- (CCTV) 양국은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까운 사이이며, 상호의 장점을 결합하여 제작된 공동제작 프로그램들이 전세계로 뻗어나가길 희망함

#### 【한국 내 중국 방송 콘텐츠 소비】

- (CCTV) 한류 방송 콘텐츠와 한국의 연예인들이 중국에서 인기가 많고, 이를 접한 후에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갖고 한국을 여행하는 중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음
- 한국에도 중국의 프로그램들이 보다 많이 방영되어 더욱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을 찾길 희망함

## 【양국 내 콘텐츠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 (방통위) 한국 콘텐츠가 중국에서 불법 유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양국 방송사 간 공동 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을 형성하는 것이 유효하리라 생각
- (CCTV) 현재 중국 정부는 콘텐츠 저작권의 보호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진행 중임
  - CCTV 역시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온라인 상에서 무단도용 당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당한 사례가 많음
  - 콘텐츠의 적법한 유통을 위해 양국이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 보다 많은 교류를 하길 기대함
  - MBC와 공동제작할 예정인 중국판 ‘무한도전’의 표절건에 대해서는 CCTV와 MBC가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임

## 【정기적인 방송 교류의 필요성】

- (방통위) 양국 방송 교류의 본격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위급만이 아닌 실무선에서의 협력 채널 마련도 필요할 것임
- (CCTV) 양국 방송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협력채널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통위의 적극적인 지원 의향에 감사드립니다
  - 아울러 구체적인 교류형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의견대로 고위급만이 아닌 실무급에서의 원활한 의견협의로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붙임 - 면담 사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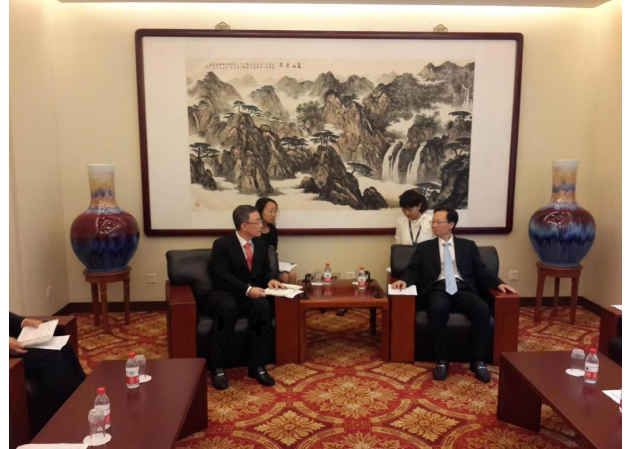
< CCTV 신사옥 견학-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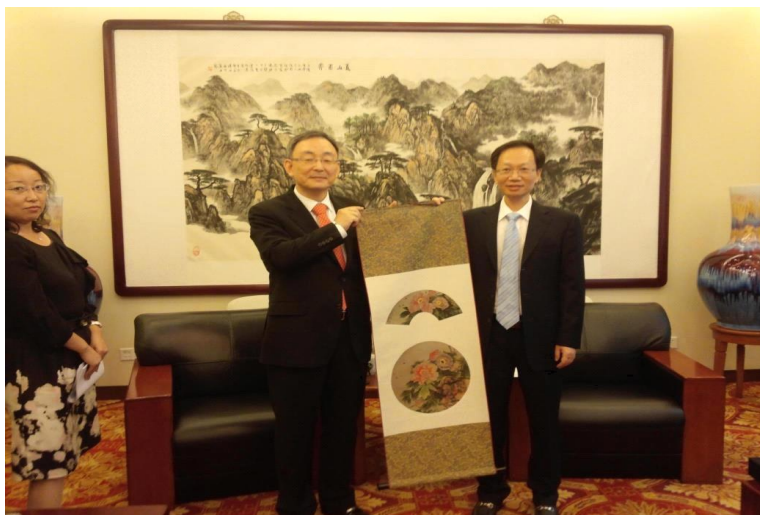
< CCTV 신사옥 견학-2 >



< CCTV 신사옥 견학-3 >



< 양국 방송교류 활성화 논의 >



< 면담기념 선물교환 >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방문

□ 일시 /장소 : '15.8.27(목) 08:45~09:30, 신문출판광전총국 내 접견실(베이징)

□ 면담자 : 차이 푸차오(蔡赴朝, Cai Fuchao) 광전총국장 등

###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개요 >

□ 방송 분야 정책 및 규제 수립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State Administration of Press, Publication, Radio, Film and Television, SAPPRFT)

- 1986년 설립된 광전부(Department of Radio and Television)를 모태로 하며, 1998년 3월에 광전부와 문화부(Council Ministry of Culture) 영화국(Film Council)을 통합하여 설립되었다가 2013년 8월 조직개편(국가광전총국과 국가신문출판총서 통합) 및 명칭 변경을 단행
- 국무원(State Council) 직속 산하기관으로 언론·출판·방송·영화 선전 방침과 정책 제정, 여론과 창작 유도, 언론·출판·방송·영화 사업자, 서비스, 출판물과 방송영화 콘텐츠 및 품질 관리 감독, 시장 관리 감독, 전국 언론사 기자증 관리, 저작권 관리,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규제 등의 업무를 수행
- CNR, CRI, CCTV 등 주요 3개 국영 방송국의 사업관리 및 발전전략 수립, 전송망 구축 등의 업무를 지원 및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

### 0 주요 내용 요약

- 위원장님과 차이 푸차오 총국장은 양국 간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 및 판권 수출입 등 교류협력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방송 분야 정책 부처 및 사업자 간 협력의 필요성과 의의를 확인
- 향후 한·중 FTA후속 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등 방송 교류 전반을 협의하기 위한 연구반을 구성하고, 사업자 간 기술 및 인력 교류, 방송 콘텐츠 저작권 보호 등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

□ 세부 면담내용

#### 【한-중 콘텐츠 분야 협력 강화】

- (방통위) 근래에 정식서명한 한-중 FTA상에도 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 체결 및 방송 분야 교류 증진에 관한 내용이 있는 만큼 양국 방송 교류를 활성화하기에 어느 때보다 좋은 시기임



- (광전총국) 한-중 영화공동제작협정, 광전총국-미래창조과학부 간 양해각서 등 최근 양국 간 문화 콘텐츠 분야의 협력이 증진되고 있음. 이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도 가능하리라 생각함
- 양국 정부와 국민들은 좋은 이웃으로서 정서적인 면이나 윤리관 등 많은 부분에서 공통된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양측이 보다 대등한 관계로 발전한다면 향후 더욱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방송 분야 협력 활성화에 대한 기대】

- (방통위) 양국의 방송 업계가 본격적으로 손을 잡아 아시아를 넘어 세계시장을 개척할 수 있길 희망함
- (광전총국) 오래 전부터 양국 사이에서 드라마 등 프로그램 공동제작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미래에도 양국 간 방송 분야 협력은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 기대함
- 한국인들도 중국 문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삼국지와 같은 역사적 고전이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본인도 근래에 영화 ‘명량’을 관람한 바 있으며, 애국정신을 찬양한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함
- 이와 같이 건실한 미래의 건설을 담고 있는 콘텐츠들을 더욱 많은 중국 젊은이들이 접하길 바랍

### 【양국 방송사업자 간 교류 지원】

- (방통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국 방송사업자 간 교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양 기관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광전총국) 양 기관이 적극적 정책협력을 통해 양국 사업자들이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함
- 광전총국도 양국의 방송업계 간 교류를 적극 권장하며 현재 중국에 수입 중인 한국 드라마의 수입량이 상당한 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향후에도 광전총국은 한국 방송 콘텐츠의 수입을 적극 장려할 용의가 있으며, 방통위측에서도 중국의 방송 콘텐츠들이 한국에서 활발하게 방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 외에도 신문, 출판 등 문화 콘텐츠 분야 전반에서 양국의 교류 협력 관계가 보다 돈독해지길 희망함

#### 【중국 내 온라인 방송 규제 완화】

- (방통위) 근래 광전총국이 도입한 수입 온라인 방송 콘텐츠 규제들과 관련하여 수입계획 신고횟수 및 한국 방송 콘텐츠 쿼터 확대, 심의기간 단축 등을 고려해 주시길 바람
- (광전총국) 중국의 수입 온라인 방송 콘텐츠 관련 규제인 ‘외국영화 및 TV드라마의 인터넷 방송 관리 규정’은 중국 국내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제정된 것임
- 마찬가지로 한국도 현실의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좋은 법규정들을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현재 중국 내 한국 방송 콘텐츠들은 TV 등의 전통적 미디어와 뉴미디어를 가리지 않고 중국의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
- 광전총국은 세계 모든 국가에 동등한 규제를 적용할 것이며 한국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음

- (광전총국) 물론 한국 정부측의 입장을 이해하며, 양국의 방송 콘텐츠가 동등한 수준으로 교류된다면 더욱 발전된 형태의 교류가 가능하리라 생각함
- 구체적으로는 방통위가 한국의 인기 방송사 및 사이트 상에서 중국의 방송 콘텐츠가 보다 많이 방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람. 중국 정부는 여전히 한국측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자 함

### 【방송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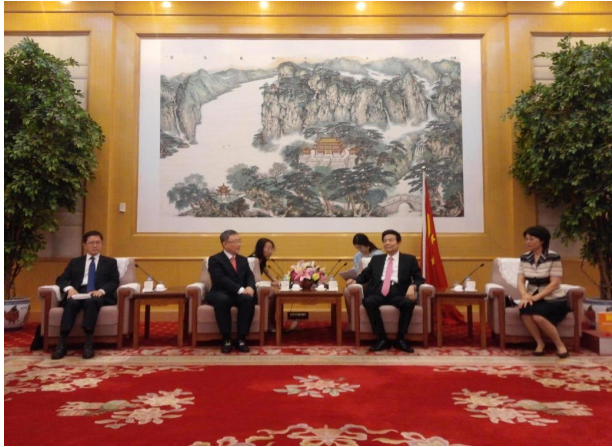
- (방통위)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중 방송 교류를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기관, 방송사, 연구기관 등으로 이루어진 연구반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광전총국) 제안하신 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 등 양국 방송 교류를 위한 연구반 구성 및 실무 협의채널 구축에 대하여 적극 동의하는 바이며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 【방송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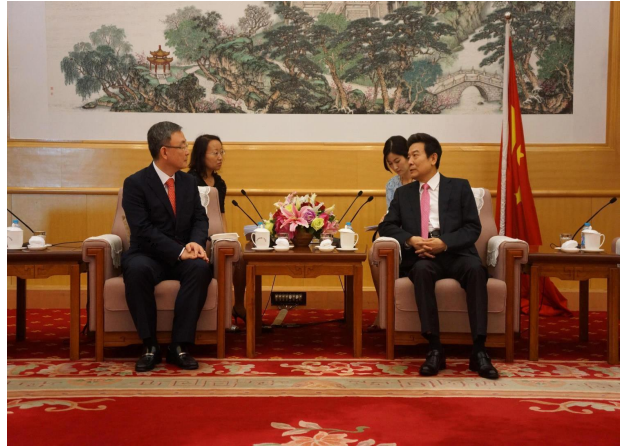
- (방통위) 국가판권국장을 겸임하고 계신데 한국 방송 콘텐츠가 중국의 온·오프라인 상에서 적법하게 유통되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광전총국) 본인은 저작권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판권국장(장관급)을 겸임하고 있으며 방송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엄격히 단속하는 등 중국 내 지적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고 있음

-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을 보다 엄격히 추진하여 콘텐츠가 적법하게 유통되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것임
- 마찬가지로 방통위에서도 한국 내 사이트에서 중국의 방송 콘텐츠가 적법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단속해 주시길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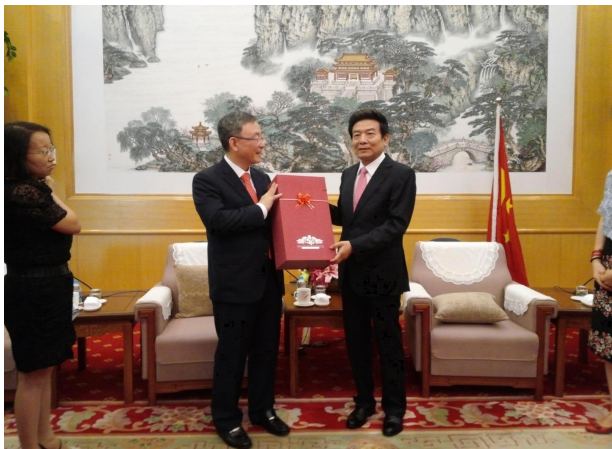
< 불임 - 면담 사진자료 >



< 양국 방송분야 교류협력 방안 논의 >



< 양 기관 간 협력방안 논의 >



< 면담기념 선물교환 >



< 면담 후 기념사진 >



< 면담기념 단체사진 >



## 몽골 일정

- 
- ◆ 기 간 : 2015. 8. 27(목) ~ 8. 29(토)
  - ◆ 방문기관 : 몽골 방송통신규제위원회(CRC)  
몽골 공영방송(MNB)  
블룸버그 TV 몽골
-

## 몽골 방송통신규제위원회(CRC) 방문 및 방통위-CRC MoU 체결

□ 일시 /장소 : '15.8.28(금) 10:00~10:30, CRC 접견실(울란바토르)

□ 면담자 : 발간슈렌 바슈크(Balgansuren Batsukh) CRC 위원장 등

### < 몽골 방송통신규제위원회 개요 >

- 몽골의 방송통신분야 독립규제기관으로 라디오 주파수, 통신요금, 우편 분야 규제 업무 담당 (2001년 설립) ※CRC : Communications Regulatory Commission
- (설립목적) 방송통신분야 감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방송통신 인프라, 기술, 라이선스 및 서비스 등 정보통신 기술 및 방송분야 전반에 걸친 규제 실시
- (위원회 구성) 7명의 위원을 총리가 임명하며 임기는 6년
- 주요 업무
  - ICT 및 방송 네트워크 서비스 분야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 ICT, 방송 및 우편 서비스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제 활성화
  - 통신 및 ICT 서비스 확대 및 적절한 가격 유지

### 0 주요 내용 요약

- 양측은 이번 MoU 체결이 지금까지의 양국 협력이 맺은 결실이며 향후 더욱 활발한 협력에 대한 기대를 표명함. 아울러 방송통신 인재 양성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함
- 최성준 위원장은 CRC와 ITPTA\*의 업무관할 및 기능 등을 질의하였으며,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경제적인 협력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협력에 기대를 표명함

\* ITPTA(Information Technology Post and Telecommunication Authority)

- 발간슈렌 위원장은 망고도화 사업 등 현재 몽골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해 소개하고 4G, LTE 등 기술에 있어서 앞서 있는 한국에 협력을 요청함

( 면담 전 CRC 소개 PT 진행 )

□ 세부 면담내용

### 【인사 말씀】

- (방통위, CRC) 양국 수교 25주년이 된 올해에 이렇게 양국의 방송통신 규제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함

## 【양 기관 MoU 체결의 의의】

- (방통위) 한국과 몽골은 환경, 문화, 역사적인 면에서 비슷한 면이 많으므로 향후 협력이 보다 수월할 것이라 기대됨
- 한국이 그 동안에 앞서서 경험하고, 겪으면서 어려움을 느꼈던 것을 극복하고 지금에 이르렀기 때문에 현재 몽골이 겪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앞서서 겪었던 것과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기에 앞으로 서로 협력을 해서 경험을 나눠드리고 극복했던 방법을 알려드려서 몽골 방송통신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함

### 〈 KCC-CRC MoU 체결 주요 내용 〉

- 가. 전문가 대화를 통한 정책의견 교환 등 방송통신 정책·기술 분야 협력
- 나. 전문가, 공무원의 교류 및 파견
- 다. 교육 프로그램과 정보 교환 등 인력 개발 협력
- 라. 방송통신 분야 세미나/워크숍 공동 개최
- 마. 연구 방문과 양국에서 열리는 방송, ICT 컨퍼런스나 행사 참여 등 교류와 방문 지원
- 바. 방송 콘텐츠 규제 및 콘텐츠 모니터링과 관련한 연구 방문 등 교류와 방문 지원
- 사. 양국 방송통신 사업자 협의체 구성 등 민간 협력 지원
- 아. 양 체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합의하는 기타 협력활동

## 【방송통신 인력 양성 협력】

- (방통위) 이번 MoU를 통해서 몽골 방송통신에 관심 있는 인재들을 한국 방통위를 통해 방송사, 경우에 따라서는 방송통신 관련 기업들, 잘 협의해서 그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충분한 교육을 받아서 그 지식들을 몽골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음
- (CRC) 인재를 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매년마다 인재 양성하기 위해서 기회가 되는대로 해외 교육 보내는데 특히 규제하는 기관과 협력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임. KCC측에서 경험과 지식을 나눠주시겠다고 하신 것에 기쁘게 생각함

## 【CRC와 ITPTA\*의 업무관할 및 기능】

- (CRC) ITPTA\*는 원래 '50년도에 인프라를 담당하는 Ministry of Infrastructure 라는 부처에 통신부문을 관장하는 소조직으로 있었음
- '04년도에 ITPTA로 정식 명칭으로 출범. 당시에는 Infrastructure부에서 모든 통신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었음. 2004년도에 기관 설립 시, 방송통신 관련 정책 기능이 ITPTA 로 이관됨
- CRC는 통신위원회로 처음 설립되었고 '02년도에 독립 기관으로 출범하여 현재는 방송통신 분야 관련 모든 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ITPTA(Information Technology Post and Telecommunication Authority)

## 【이용자 보호 관련 이슈】

- (방통위) 최근 산업 발전에 따른 이용자 보호가 이슈인데, CRC측에서 이용자 보호 관련 대응은 어떻게 하시는지?
- (CRC) 이용자 보호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공정경쟁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공정경쟁증진위원회라는 정부 조직이 별도로 설치되어 분쟁이 있을 때마다 조정하는 업무를 함
- 이와 관련하여 CRC는 관장하고 있는 사업자들에 한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규제를 하고 있음
- 통신법 개정안 등 방송통신 법률 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상황임
- 서비스에 있어 정부기관 최초로 전자프로세스를 도입하려 함. 올해가 가기 전에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음

## 【인터넷 서비스 보편화】

- (CRC) 몽골 정부는 망고도화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관련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 【4G, LTE 분야 협력】

- (CRC) 현재 몽골 정부의 각 부처와 방송사가 협력하여 4G, LTE 도입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관련 기술면에서 앞서있는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기를 희망함

## 【향후 협력에 대한 기대】

- (방통위) 대한민국도 몇 년 전부터 전자정부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 (정부 3.0)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그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법원에서도 전자 소송을 민사 부문에서는 70~80%까지 하고 있으며 방송통신 분야뿐만이 아닌 다른 여러 분야에서 한국과 몽골 사이에 협의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많이 있었으면 함
  - 이번에 만남과 MoU를 통해 한국과 몽골의 협력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경제적인 협력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협력이 더욱 활발히 이뤄지기를 희망함
- (CRC) 좋은 말씀 감사함. 저희도 이번 MoU 체결로 기대가 큼. 새로운 협력 관계로 한 단계 나아가는 것이라 기대하고 한국이 세계적으로 호응과 관심을 얻고 있는데, 한국의 미디어 분야 발전상을 몽골이 그대로 도입하길 바램. 이에 대해서도 양 기관이 서로 교류하고 교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램



< 불임 - 면담 및 MoU체결 사진자료 >



< CRC 조직구성 및 주요업무 소개 >



< 양국 방송통신 협력 방안 논의 >



< 방통위 · CRC MoU체결-1 >



< 방통위 · CRC MoU체결-2 >



< 면담기념 전체 기념사진 >

## 몽골공영방송(MNB) 방문

- 일시 /장소 : '15.8.28(금) 11:00~11:30, MNB 접견실(울란바토르)
- 면담자 : 오윤다리(OYUNDARI) 사장 등

### < 몽골 국영방송(MNB) 개요 >

- 1967년 9월 27일에 몽골 국영방송이 설립되었고, 동시에 몽골의 첫 TV 방송을 시작하였으며 처음에는 방송 시간이 화, 목, 토, 일요일에 오후 6시~ 오후 10시 까지였고, 모든 프로그램이 생방송이었으나, 1971년 12월 몽골 TV 스튜디오가 설립 되면서 방송 시간 확대와 함께 사전 녹화 영상 등을 방영
- 방송편성은 뉴스 27%, 정보·교양 18%, 오락 24%, 드라마 18%로 구성되며, 방송 시간은 아침 7시에서 자정까지로 17시간 정도
- 두 개의 TV 채널(MNB, MN2)과 3개의 전국(국내) 라디오 채널(MYOH P-1, MYOH P-2, P3)과 1개의 국제 라디오 채널(Voice of Mongolia)을 운영

### 0 주요 내용 요약

- 최성준 위원장은 MNB 조직 및 현황, 몽골의 방송 디지털 전환 사업 등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오윤다리 사장은 MNB의 주요업무, 디지털 전환 사업의 중요성 등을 설명

### ( 면담 전 MNB 소개 PT 진행 )

### □ 세부 면담내용

#### 【디지털 전환 관련 이슈 논의】

- (MNB) 몽골은 최근 방송의 디지털 전환 사업이 진행 중이며 먼저 해당 사업을 완료한 한국을 중요한 참고모델로 여기고 있음
-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혼란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방송사와 국민들 모두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 필요함

<붙임 - 면담 사진자료>



< MNB 본사 전경 >



< 양국 방송 분야 협력 방안 논의-1 >



< 양국 방송 분야 협력 방안 논의-2 >



< 최성준 위원장 MNB 인터뷰 >

## 블룸버그TV 몽골 인터뷰

- 일시 /장소 : '15.8.28.(금) 14:00~15:00, Bloomberg TV Mongolia 본사(울란바토르)
- 출연프로그램 : Talk to Bloomberg
- 인터뷰어 : Dolgion Erka 블룸버그 TV 몽골 사장 겸 CEO
- 방영시간 : '15. 8. 29.(토) 13:00

### < 블룸버그TV 몽골 개요 >

- 2011년 무역·개발 몽골 은행(The Trade & Development Bank of Mongolia, TDB)과의 협력으로 블룸버그 TV 몽골이 탄생했으며, 2012년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 몽골에 진출한 최초의 국제적 방송뉴스 조직임
- 블룸버그 TV 몽골은 24시간 글로벌 비즈니스 소식뿐만 아니라 전 세계 270 만 이상의 가정에서 접속할 수 있는 경제 뉴스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현지 몽골어로는 물론 영어로도 제공하며 울란바토르에 본사를 두고 있음.

### ( 실제 인터뷰 내용 )

- 블룸버그 사장 :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 규정이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 최성준 위원장 : 약간, 보기에 따라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국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규제가 그렇게 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아마도 과거에 좀 강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다양한 방면에서 규제를 많이 완화했기 때문에 지금은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함
- 블룸버그 사장 :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콘텐츠는 무엇이며 좋은 콘텐츠라는 평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최성준 위원장 : 좋은 콘텐츠라는 것은 개인의 취향이나 콘텐츠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사람이 그것을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에 따라 갈리지만 무엇보다도 국민 대부분이 그것을 보고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라 생각함. 그러다보니 시청자들이 그 콘텐츠를 얼마만큼 사랑해 주시느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다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방송 제작자들이 너무 시청자들의 반응에만 치우쳐서 너무 상업화에 흐른다든지 선정적으로 흐른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 블룸버그 사장 : 가만히 보면 5년 내지, 6년 동안 한국 콘텐츠로 인해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지만 정부 측에서 의도적으로 좋은 콘텐츠 개발하는데 후원하시고 있는지?
- 최성준 위원장 : 각 방송사나 제작사들이 콘텐츠를 만듦에 있어서 사실 정부가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별로 많지 않음. 우선 정부가 제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각 방송사나 제작사들이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풍부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방송사나 제작사들의 창의적인 능력에 맡겨 놓고 있음
- 블룸버그 사장 : 최근에 여러 면에서 있어서 콘텐츠뿐만 아니라 통신 분야에 있어서 너무 빠른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음. 변화의 흐름이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눈부시게 빠른 것인지? 어느 정도라고 위원장님께서서는 평가하고 계시는지?



- 최성준 위원장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요새는 방송과 통신기술의 융합, 또 그밖에 온라인이나 또는 모바일 상에서 기술의 융합이 매우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은 어찌 보면 6개월마다 다른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음. 그래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 기술의 발달 속도는 저희들이 수년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최근에 와서는 빠른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점차 대응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함
- 블룸버그 사장 : 말씀하셨듯이, 통신과 미디어 부문의 벽이 허물어지고 융합이 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융합된 환경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이런 현상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런 현상에 반대하고 계신지? 변화가 너무 많이 이뤄지고 있고 변화 현상이 너무 빠르는데 하지만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동시에 다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뒤쫓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기관 입장에서는 너무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대응하기도 힘들고 거기에 딱 맞는 규제 정책을 바로 바로 만들어 내기가 힘들어서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기술의 발달, 융합, 모바일의 발달 등은 결국에는 그것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많은 편리함을 주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달은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함. 그런 의미에서는 당연히 비록 규제기관이 힘이 들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할 예정임



- 블룸버그 사장 : 특히 몽골의 경우, 정반대 경우가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하지만 그런 이면에 소비자 보호 이슈가 상충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어떻게 규제 하시는지?
- 최성준 위원장 : 당연히 이용자 보호는 KCC가 담당하는 업무 중에 중요한 한 부분임. 요 최근에 방송과 통신의 융합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새로운 형식이 나왔을 때 이것이 방송법에 의해 규제되어야 하는지 통신법에 의해 규제되어야 하는지가 애매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됨. 그런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이용자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는 우려가 생겨서 한국에서는 얼마 전에 방송과 통신의 이용자를 종합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단일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임
- 블룸버그 사장 : 디지털 환경에 있어서 미국이 강국인데, 요즘에는 대한민국이 이미 미국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규제를 잘해서 그런 것인지, 창의성을 잘 뒷받침하고 후원을 했기 때문에 눈부신 발전을 한 것이라 보시는지?
- 최성준 위원장 : 한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 기술에 있어서 인터넷망, 이동통신망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을 가지고 있음. 그와 같이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창의성에 기초하여 세계로 나가려는 한국 사람들의 도전 정신이 큰 역할 했고, 또한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거의 자원이 없는 나라임. 그렇기에 새로운 세계를 열고 나가려는 열망이 상당히 컸음.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도 인터넷망, 이동통신망 확대에 있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었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갔음.

한국에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둘러서 빨리 이뤄내려는 ‘빨리 빨리’라는 문화가 있음. 한국 인구 생활, 거주 방식이 아파트형으로 밀집되어 있어 그런 면에서 인터넷 망, 이동통신망이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처음에 인터넷 망을 설치했을 때 망 사용하는 용량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가, 즉, 아무리 망을 많이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가격을 받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 망을 활발히 이용해주셔서 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 생각함

- 블룸버그 사장 :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한국인의 ‘빨리 빨리’ 문화에 대해 궁금한데, ‘빨리 빨리’ 문화가 통신 분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 최성준 위원장 : 꼭 ‘빨리 빨리’ 문화는 통신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한국인의 정서가 좀 성격이 급한 편임. 예를 들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을 때도 음식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재촉하는 것이고, 관공서에 가서 민원 업무 처리할 때도 신속히 해달라고 재촉하는 등 한국인의 정서가 느긋하게 일이 이뤄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빨리 처리하려는 성향이 있음. 마지막으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모바일 폰을 사용할 때에도 만일 속도가 느리게 되면 한국 사람들은 이동통신 회사에게 강한 불만을 제기하게 됨. 따라서 이동통신회사들은 한국 사람들의 성향을 맞춰 주기 위해서 좀 더 수준 높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그런 노력의 결과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생각함
- 블룸버그 사장 : 위원장님께서 몽골에 처음 오셨는데 (몽골에 대해) 칭찬해줘야 하는 부분, 개선했으면 하고 느낀 점이 있으신지?

- 최성준 위원장 : 우선 좀 아쉽게도, 제가 어제 저녁 늦게 몽골에 도착해서 지금 아직 24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몽골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함을 양해바람. 그런데 우선 제가 느끼기에 좋은 점이라 생각 되는 것은 자연 환경적인 영향, 탕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업무처리 함에 있어서 한국과는 달리 여유롭게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일 처리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음. 다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반대로 일 처리가 너무 늦고 그런 것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쳤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눈부시게 발전하는 경쟁사회에서 그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음
- 블룸버그 사장 : 몽골에는 많은 방송국, 방송 업체들이 있음. 만약 한국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위원장님께서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업체 수가 많으면 경쟁을 촉진시키는데 좋은 면도 있는데 공정경쟁을 증진하고 촉진하는데 위원장님이라면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 것인지?
- 최성준 위원장 :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짧아서 말씀드리겠음. 한국의 경우에도 최근에 방송사들이 좀 늘어나면서 일부에서 방송사가 좀 많다는 얘기를 하기도 함. 그렇지만 방송사를 운영한다는 것이 상당히 많은 자본과 인력이 투입되어 이뤄지는 일이기 때문에 방송사가 단순히 수가 너무 많아서 과당 경쟁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방송사를 문 닫게 할 수는 없음.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많은 방송사를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능력이 되지 않거나 일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방송을 할 경우 그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재허가나 재승인을 내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음. 그래서 방송사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방송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는데 그 허가 기간이 종료됐을 때 만약에 재허가를 안 해주게 되면 그 방송사의 시설과 인력이 국가 경제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음.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기존 시설과 인력을 다른 방송사와 서로 합해서 다른 방송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공정경쟁이란 제가 보기에 어느 사업 분야에 있어서 개개의 사업자들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다른 사업자들 사이에 균형 있는 발전이 이뤄지는 것 그것 하나와 이용자들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함. 그런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일단은 자유시장 경쟁체제에서 서로 충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규제기관으로서 그런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가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바로 개입을 해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라 생각함.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는 이용자들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그 서비스에 접근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공정경쟁 환경이 아닌가 생각함

- 블룸버그 사장 : 인터뷰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이러한 세계 흐름 속에서 앞으로 5년 간 한국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지?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 최성준 위원장 : 우선 방송과 통신 분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방송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송사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하게 존재하는 방송사들에게 적절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지 판단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동일 서비스에는 동일한 규제가 이뤄지도록 방송에 관한 여러 법령들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해서 규율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음

그리고 한국에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 있음. 방송 관련으로는 한국은 2012년에 HD 디지털 전환을 완료했고 2018년에는 그보다 한걸음 앞선 UHD 방송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음

통신에 있어서는, 한국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4G, LTE 기술이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음.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을 계기로 5G로 넘어가기 위한 기술표준, 장비 등에 관한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음. 통신의 한 부분으로서 ‘평창 동계 올림픽’ 을 통역이 없는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음. 무슨 말씀이냐면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자동 번역, 자동 통역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이것만 가지고 다니면 서로 언어가 다른 사람들끼리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도 하고 있음

- 블룸버그 사장 : 저희 초청에 응해주시고 인터뷰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초청해주셔서 감사함

**Q1. 한국 방송통신의 기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질의 콘텐츠”란 어떤 콘텐츠라고 생각하나?**

A1. ‘양질의 콘텐츠’의 기준은 개인적인 취향이나 기호, 콘텐츠의 장르에 따라 달라지고 호불호(好不好)가 갈리지만, 누구나 공감하는 ‘양질의 콘텐츠’에 대한 기본적인 눈높이는 있다고 봄.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는 ‘좋거나’, ‘나쁘거나’의 시각보다는 시청자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느냐’, ‘외면당하느냐’의 문제에 늘 직면하는 것 같음

양질의 콘텐츠란, 무엇보다 ‘창의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봄.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창의성이 뛰어난 민족이라는 얘기를 들어왔는데, 창의성은 독창성과 예술적 감흥이나 혼, 끈질긴 근성 등 다양한 창작의 요소들이 농익어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함

이와 더불어 방송통신 신기술의 발전은 이런 창의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큰 동력이 되었음. 방송 콘텐츠의 변천사만 보더라도 기술의 발전 속도와 콘텐츠의 품질과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 예를 들어 라디오에서 흑백TV로, 흑백TV에서 컬러TV로, 아날로그TV에서 디지털TV로, 또 더 나아가 UHDTV 등 기술의 진보에 따라 영상미와 콘텐츠 품질은 눈부시게 발전했음

**Q2. 해외 시장에서 주요 미디어 타깃은 누구인가? 한국 콘텐츠를 어느 나라에서 가장 선호하나?**

A2. 주요 타깃과 한국 콘텐츠 선호국가는 거의 일치한다고 보는데,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이 아무래도 문화적 동질성과 공감대 형성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 보임. 그러나 요즘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이나 중남미 쪽에서도 한국의 콘텐츠에 열광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한류 콘텐츠, 특히 드라마, 예능 콘텐츠는 흥미로운 소재와 탄탄한 구성으로 TV와 온라인 뉴미디어 등 매체를 넘나들며 세계 곳곳의 시청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으며, 특히 요즘에는 전 세계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콘텐츠의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더 크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작년에 방송된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가 중국에서 열풍을 일으키면서 작품 내에 등장한 치킨과 맥주의 소비가 급증하고, 여자 주인공이 입었던 코트가 온라인에서 품절될 정도로 큰 파급 효과가 나타났음

**Q3. 현재 우리는 미디어 간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음. 글로벌 시대의 미디어 환경의 주된 변화는 무엇이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3. 글로벌 시대와 디지털 시대를 특징짓는 가장 큰 변화의 양상은 ‘경계가 허물어지고 각 분야가 서로 융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앵커께서 전제하셨듯이 미디어 간의 구분도 없어지고 있고 각각의 미디어들이 주로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들로 ‘수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이 미디어의 변화의 중심에는 ‘기술의 진보’를 꼽을 수 있는데, 방송 섹터에서는 디지털화로, 통신 섹터에서는 망 고도화와 광대역화 등으로 특징 지워짐

이러한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과연 규제당국의 정책방향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 전통적 미디어 기반의 규제정책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지, 더 나아가 규제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지,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대목임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규제 목적이나 수위 등이 조금씩 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며, 사업자나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면 사업자가 울고, 그 반대의 경우엔 사업자들이 타격을 입고, 마치 해가 나길 바라는 소금장수와 비가 오길 바라는 우산장수의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이랄까? 그래서 규제정책은 다양한 고려요소들이 많고,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고려하고 예측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그럼에도 규제정책은, 사업자들에게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신규 진입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정책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봄. 이용자 측면에서는 가난하든 부유하든 차별받지 않고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누구나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것,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 등 이용자 후생에 근거한 정책방향은 환경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임

**Q4.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음. 한국에게서 몽골이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인구 밀집도가 낮고 항상 이동하면서 사는 유목민의 삶의 양태를 가진 나라에서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도전 과제들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A4. 한국이 세계 최고의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궁금해 하고 있음.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무엇보다 창의성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로의 도전정신이 제일 컸다고 봄. 자원이 빈약한 한국으로서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나가야 하는 게 당면과제였음. 네트워크 확산 및 고도화 작업을 정부 주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것도 큰 요인이었음. 특이한 것은 한국 특유의 소위 ‘빨리빨리’ 문화와, 밀집도가 높은 ‘아파트’ 주거형태 등 사회문화적 요인도 크게 작동한 것으로 보임

한국은 최초에 유선망을 먼저 확산시킨 후에 고도화 작업을 통해 무선망으로 발전해 왔음. 몽골의 경우는 인구 밀집도가 낮고, 유목민의 생활양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몽골의 지리적, 사회문화적 특성에 걸맞는 네트워크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봄. 비용이나 확산 속도 등을 감안해 볼 때 유선망과 무선망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해 보임

한국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양태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경제성장의 기회와 정보 공유, 교육기회 확대 등이 가능해질 것임. 한국이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국민들의 근면성과 교육의 힘이 밑거름이 되었고, 인터넷 확산에 따라 정보가 공유되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함

몽골이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선진국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놓는 일이라 생각하며, 몽골의 도전에 한국의 경험이 전수되기를 희망함

**Q5. 방송 관련 기준과 규칙이 잘 지켜지는지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규제)과 방송사들이 창의적인 시도를 하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진흥)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고 있는지?**

A5.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정부는 규제와 진흥 사이에서 늘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음. 규제와 진흥은 동전의 앞뒷면이라 생각함. 규제를 완화하면 진흥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한국의 방송통신 분야 정부부처는 규제정책을 담당하는 방송통신

위원회와 진흥정책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역할이 나뉘어져 있으나, 두 부처가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일들이 많음

규제와 진흥이 독자적으로는 효과를 보기 힘들고 두 역할이 융합되었을 때 진정한 정책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자들에게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신규 진입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Q6. 몽골은 TV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에 있음. 현재 방송 시장의 전환기를 맞은 몽골의 현재 상황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디지털 전환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갔는지? 한국의 사례 소개 부탁드립니다**

A6. 한국은 고화질, 다채널 방송 등 고품격의 방송 서비스를 표방하며 '00년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08년 제정된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2년 12월 말 디지털 전환을 완료했음

급작스러운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과,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가장 큰 과제였고, 관련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많은 진통을 겪기도 했음. 그러나, 국민들께서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 추세에 한국도 발맞추어 나가야 하는 시대적 요구와,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도와주셔서 전환 일정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음

아날로그 방송 종료일시를 지역별 10 단계로 나누어 진행했고,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언론, 공익광고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에 힘썼음. 아무리 홍보를 해도 여건이 되지 않아서, 또는 잘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목표 아래 정부는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컨버터 지원 등을 지속해왔음

국민을 비롯해 방송사, 제조사, 유관기관, 지자체 등 모든 주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했던 일이기에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면 범국가적 대사를 정말 잘 치러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전환 직후에도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채널 재배치 작업을 지속적으로 했고, 이제 한국은 디지털 전환에 이어 차세대 신규 서비스인 UHD TV 전환을 위해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 Q7. 앞으로 CRC와 KCC의 협력 방향에 대해 한 말씀

A7. 이미 MOU에서 논의되었듯이 CRC측의 가장 큰 관심사인 인재 양성을 위해 저희 방통위가 최대한 협조할 예정입니다. CRC가 요청한대로 방통위에 교육이 필요한 인력을 파견하면 성심성의껏 방송통신 관련 교육을 해주기로 했고, 아직은 협의가 필요하지만 삼성, LG 등 세계 초일류 기업 연계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볼 생각입니다. 양 기관의 활발한 교류 협력이 기대됩니다.

#### Q8. 몽골은 한국의 방송이 진출하기에 매력적인 시장인가?

A8. 몽골과 한국은 수교 25주년('90.3.26)을 맞았습니다. 방통위와 CRC와는 '13년, '14년 연속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 오다가 이번에 MOU까지 맺어 결실을 맺게 되었고, 앞으로 방송분야의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몽골의 방송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더 알아가야 하겠지만, 디지털 전환과 인터넷 확산, 망 고도화 등 우리 한국이 몇 년 전에 겪었던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 방송통신 시장의 변화를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마 몽골의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몽골과 한국은 문화적으로나

정서적·역사적으로 많은 공감대가 많아 서로를 알아가고 교류한다면 큰 시너지가 있을 것임.

몽골은, 한국이 진출할 시장으로서가 아니라 한국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글로벌 동반자로서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함

**Q9. 요즘 시대에는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전 세계의 뉴스와 음악을 접할 수 있음.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제정책 관련 위원장님 견해?**

A9.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지원해 나가는 일이 바로 규제기관의 역할임. 요즘에는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의 대표적인 OTT(Over The Top) VOD 서비스로 뉴스는 물론 음악,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가 유통되고 있는데,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도전이 되는 과제 중 하나임. 한국의 경우 현행법 상 OTT 서비스를 방송법 상 '방송'으로 볼 수 없기에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방송 콘텐츠를 실어 나른다는 점에서 방송사업자와의 규제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번에 제가 말레이시아 아·태 규제자라운드테이블에서 '방송통신/ICT 생태계에서의 OTT' 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면서 한국의 사례를 소개했는데, 각국별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거나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면서 콘텐츠 유통 문제와 공정경쟁 문제가 세계 공통의 관심사인 것을 확인했음. 몽골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관련 논의가 급부상할 것임



< 참고 자료 - 블룸버그 CEO의 감사서한(원본) >

**Bloomberg**  
TV MONGOLIA

Blue Sky tower, 4th floor, No.403, Peace Avenue 17,  
1st khumbutoo, Namtsumba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Tel: (976) 70112020. Fax: (976) 70102024

Date 2015 09 16 Ref A-15/254

Sung-Joon Choi  
Chairman of the Korean Communications Commission  
South Korea

September 16, 2015

Dear Mr. Choi

On behalf of the Bloomberg TV Mongolia,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in coming as guest to our talk show "Talk to Bloomberg". It was tremendous honor to be able to interview the chairma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s and hear about your most interesting perspective. Our interview has been well received on Bloomberg TV Mongolia television, where high-level decision makers and policy-formulators watch with high ratings. It became one of the most watched programs in the broadcast week on Bloomberg television.

I would like to extend my invitation to you to visit Mongolia again as Bloomberg guest. We're also looking to establish more direct cooperation of partnership with Korean broadcasters, content providers and visit Korea to get first-hand experience with them as a part of the exchanges between Bloomberg TV operation in Mongolia and KCC.

Again, it was my pleasure to meet you and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Thank you,

  
Dolgion Erdenebaatar

CEO of Bloomberg TV Mongolia

<참고 자료 - 블룸버그 CEO의 감사서한(번역)>

2015년 9월 16일

최성준 위원장님께,

“Talk to Bloomberg” 인터뷰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블룸버그 TV 몽골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면서 위원장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무한한 영광이었습니다. 많은 정부 고위관료들과 정책입안자들이 블룸버그 TV 몽골을 시청하는데, 위원장님의 인터뷰에 대한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블룸버그 TV에서 굉장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블룸버그 TV 몽골에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는 한국 방송사 및 콘텐츠 제작사들과 좀 더 직접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블룸버그 TV 몽골과 KCC간의 협력을 통해 한국을 방문하여 직접 경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Dolgion Erka

사장, Bloomberg TV Mongolia

몽골

< 붙임 - 블룸버그 TV 몽골 인터뷰 사진 자료 >



< 블룸버그TV 몽골 인터뷰 - 방송화면 캡처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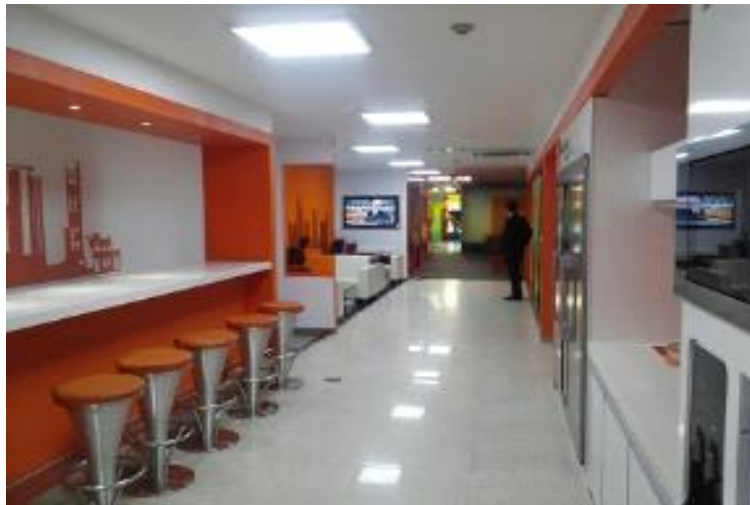
< 블룸버그TV 몽골 인터뷰 - 방송화면 캡처 2 >



< 블룸버그TV 몽골 인터뷰 - 방송화면 캡처 3 >



<블룸버그TV 몽골 전경-1>



<블룸버그TV 몽골 전경-2>



<인터뷰 기념 선물교환>

### Ⅲ. 보도 자료

#### 말레이시아 현지 배포 보도자료(8.26, 수)



2015. 8. 26.(수)



## 보 도 자 료

2015년 8월 26일(수)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문의 : 홍보협력담당관 국제협력팀 박명진 팀장 (☎2110-1331)

홍보협력담당관 국제협력팀 신은정 주무관 (☎2110-1333) (ejshin@kcc.go.kr)

홍보협력담당관 국제협력팀 박민규 주무관 (☎2110-1334) (mkpark@kcc.go.kr)

## 한국-말련 양국 방송통신위원장, 방송교류, 개인정보보호 분야 MoU 제안 등 협력 강화기로

### 제5차 ITU 아·태 규제자라운드테이블 참가

- 급변하는 OTT 환경의 대응을 위한 아·태지역 논의체 구성 제안 -

### 2015 한-아세안 방송콘텐츠 쇼케이스 개최

- 아시아·태평양 권역 쇼케이스로 확대 제안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8월 24일 말레이시아 방송통신멀티미디어 위원회(이하 MCMC) 할림 샤피이(Halim Shafie) 위원장과 양국 정부 간 방송 통신 분야 협력을 논의하고, 24~25일 양일 간 개최된 제5차 ITU 아·태 규제자 라운드테이블(이하 '라운드테이블')\*에 참가하여 '방송통신/ICT 생태계에서의 OTT(OTT in the Telecommunication/ICT Ecosystem)' 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또한 한국의 방송콘텐츠 해외 확산을 지원하고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라운드테이블과 연계하여 ‘2015 한-아세안 방송콘텐츠 쇼케이스’를 개최하였다.

\* 2015 행사개요 : ITU와 말레이시아 방송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가 공동주관하는 아태지역 38개 회원국 규제기관장 회의. 매년 순환 개최되며 올해로 5번째 행사임

최 위원장은 MCMC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인터넷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양국 간 방송통신 분야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MoU를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MCMC 위원장은 MoU 체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MoU 사안으로 방송콘텐츠 교류 및 개인정보 보호 분야, 그리고 2018년까지 완료 예정인 말레이시아 디지털 TV 전환사업 등에 한국과의 협력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디지털 경제에서의 방송통신/ICT 규제 과제(Facing the Telecommunication/ICT Regulatory Challenges in the Digital Economy)’라는 주제로 개최된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급변하는 OTT 환경에 대한 새로운 규제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아·태 지역 논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 (1세션) ‘균형점 찾기 ‘라는 규제 도전과제 / (2세션) 빅데이터에 대한 기회와 우려 / (3세션) 주파수의 폭발적 수요와 경제적 운용 / (4세션) 통신/ICT 생태계에서의 OTT / (5세션) 사이버보안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 (6세션) 앞으로의 과제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규제기관장들은 아태지역의 OTT 확산에 따른 규제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한-아세안 방송콘텐츠 쇼케이스’는 한-아세안 방송 콘텐츠 교류의 확산을 위해 라운드테이블과 연계하여 개최하였으며, 10개국, 19개 방송사, 총 87편의 방송콘텐츠가 이틀 동안 소개됐다. 이 행사는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처음 부산에서 개최되어 많은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최 위원장은 한-아세안 방송콘텐츠 쇼케이스가 각국의 다양한 방송 문화 교류를 경험하는 소통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는 아세안 지역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방송콘텐츠 교류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와는 별도로 말레이시아 정부가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한 KL Converge<sup>\*</sup>(8.27.~29,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행사에서 한-아세안 방송 쇼케이스 영상을 비롯해 K-POP, 게임, 휴대용 디제잉 서비스 등 모바일 서비스 등으로 한국관을 운영하여 대한민국의 디지털 콘텐츠를 아태지역 국가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이 전시관에는 삼성전자, 케이블TV방송협회, 아시아채널, CJ E&M, SM 엔터테인먼트, 맥스온소프트, 마그나랩, 블루핀, 제이디사운드 등 11개 기관에서 참여한다.

\* KL Converge : ASEAN 디지털 교류를 실현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방송통신멀티미디어부(KKMM), 방송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에서 주관하는 디지털 라이프 관련 행사  
<끝>

2015. 8. 27.(목)



## 보 도 자 료

2015년 8월 27일(목)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문의 : 기획조정실 국제협력팀 박명진 팀장 (☎2110-1331)  
장좌영 주무관 (☎2110-1332) jjjang@kcc.go.kr

### 최성준 방통위원장, 중국 방송통신 주무 부처들과 방송 콘텐츠 및 인터넷 윤리 분야 협력 나서

- 신문출판광전총국과 프로그램 공동제작 관련 연구반 구성 및  
실무 협의체 조속히 가동기로 합의 -
- 최 위원장, 인터넷정보판공실에 개인정보 보호 및 방송  
콘텐츠의 불법유통 방지 노력 촉구 -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8월 26~27일 양일 간 중국의 국가  
신문출판광전총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중국의 주요 방송통신  
정책기관장을 면담하여 한-중 간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이슈와 현안  
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프로그램 공동제작 등 사업자 간 교류 촉진  
과 기관 간 MoU체결을 통해 정부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데  
합의하였다.

최 위원장은 중국 전역의 방송 정책 수립과 규제를 총괄하는 국가 신문출판광전총국을 방문하여 차이 푸차오(蔡赴朝, Cai Fuchao) 총국장(장관급)을 면담하고 프로그램 공동제작, 판권 수출입, 방송콘텐츠 온라인 규제 완화 등 양국 방송 프로그램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아울러 올해 6월 정식서명한 한-중 FTA의 후속으로 체결될 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의 세부사항, 양국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기관 간 정책 및 인력 교류 방안, KBS World 채널 중국어 자막 허용 등에 대해 중국측에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은 교류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 광전총국측에 “FTA 후속으로 체결할 예정인 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 등 전반적 협력 논의를 위해 정책 담당자·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차이 푸차오 총국장은 “각 국가마다 고유의 체계와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며 이를 서로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중국 정부 역시 방송 콘텐츠 분야의 국제적 협력을 통한 역량 향상을 적극 장려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방송 교류를 위한 연구반 구성의 경우 “빠른 시일 내로 연구반 구성에 관한 실무 협의에 착수하자는 방통위측 제안에 적극 동의하며, 양국 정책기관 및 사업자 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상호 방송 분야 발전에 유익한 방향으로 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 위원장은 중국의 인터넷 정책 및 규제를 관할하는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을 방문, 루 웨이(魯炜, Lu Wei) 주임(장관급)과 면

담을 갖고 신스마트 산업의 육성과 이에 적합한 개인정보 관리 방안, 온라인 상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윤리 사이의 균형, 온라인 방송 콘텐츠의 불법유통 방지 등 양국이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인터넷 분야의 현안에 대하여 긴밀히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눈부신 인터넷 분야의 발전을 보이고 있는 양국이 그 혜택만큼 악플, 개인정보 대량유출과 이로 인한 금융사기, 방송 콘텐츠 불법유통 등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안고 있다”며, 양 기관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루 웨이 주임은 “인터넷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의 친선과 우호 증진을 위한 효과적 방안이 될 것이며, 개인정보 유출 및 방송 콘텐츠 불법 유통 등과 관련하여 한국측에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 대응조치하겠다”면서 향후 양 기관이 MoU체결을 계기로 정부차원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중국의 대표적 공영방송사인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을 방문하여 양국 방송 분야의 주요정보를 공유하고, 한-중 방송 교류에 CCTV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양국은 문화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거시적인 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면서 “서로의 장점을 결합한 방송 콘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가 양국이 헐리우드 못지 않은 방송 콘텐츠 생산기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CTV 웨이 디춘(魏地春, Wei Dichun) 부사장은 “현재 CCTV가 한국 방송업계와 추진 중인 공동사업 외에도 양국 방송업계가 큰 틀에서 정기적인 협력채널을 만들어 꾸준히 교류하기를 바란다”면서 아울러 “양국 방송 교류를 적극지원하겠다는 방통위의 의지에 감사한다”고 화답했다. 끝.



## 보 도 자 료

2015년 8월 28일(금)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문의 : 홍보협력담당관 국제협력팀 박명진 팀장 (☎2110-1331)

신은정 주무관 (☎2110-1333) (ejshin@kcc.go.kr)

## 최성준 방통위원장, 몽골 방송통신규제위원회와 MoU 체결

- 방송통신 분야 인력교류 확대 등 양국 간 협력방안 논의 -

### ‘몽골 국영방송(MNB)’, ‘블룸버그TV 몽골’과 인터뷰

- 한국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사례 소개 -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8월 28일 몽골 방송통신규제위원회(Communications Regulatory Commission of Mongolia, 이하 CRC) 발간슈렌 바슈크(Balgansuren Batsukh) 위원장과 만나 양국의 방송통신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협력 추진을 위해 양 기관 간 MoU를 체결했다. 이어서 몽골 국영방송(Mongolian National Broadcaster, 이하 MNB) 및 블룸버그TV 몽골의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 한창 진행 중인 몽골의 방송디지털 전환에 대해 인터뷰했다.

최 위원장은 먼저 CRC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양 기관 간 방송통신 인력의 교육 훈련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한국의 앞선 경험과 애로사항 극복 사례 등을 함께 나누어 몽골의 방송통신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CRC 위원장은 “정보통신 분야 및 모든 미디어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룬 한국을 모범케이스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많은 도움을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차세대 방송통신 서비스 관련 정책과 방송주파수 정책, 프로그램 공동제작, 방송통신 인력 육성 지원에 대한 협력을 위해 MoU를 체결하고, 방송통신 분야 세미나, 워크숍 공동 개최 등 양국 방송통신 규제기관 간 협력 관계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어서 최 위원장은 MNB 및 블룸버그TV 몽골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소개하고 현재 몽골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방송 전환 사업 등에 대해 우리 경험을 전달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한국의 사례로서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종합계획’ 관련 특별법 제정과, 디지털 전환 추진과정 상 애로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만이 아닌 방송사, 제조사, 지자체, 국민 등 모든 주체들의 협력이 필수 조건임을 강조했다. 끝.

※ MNB 인터뷰 내용은 8월 28일 21시 9시 뉴스에, 블룸버그TV 몽골 인터뷰 내용은 ‘Talk to Bloomberg’ 프로그램(8.28~31.)에 방송될 예정이다.